

일감 스님 (조계종 기획실장)
휴식과 소통은 불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문화포교
16 · 17면

창간 20년
2014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4월 23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993호 2014년 5월 21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법구경〉
항상 새벽같이 깨어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국보 · 보물 무색한 '부실 관리'

감사원, 15일 '문화재 보수 및 관리' 감사 결과

감사원의 문화재 실태 감사결과 국보급 문화재 대부분이 방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5월 15일 공개한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문화재 전반에서 부실이 드러났으며 특히 예산 배분 및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대거 발견됐다.

감사원 조사결과 먼저 문화재 보수 · 정비가 시급함에도 주변 정비사업에 예산이 더 많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수가 진행되지 않는 반면, 문화재 주변 전시관 건립, 화장실 개축 등 주변 정비 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문화재 보수 예산의 22.9%인 908억원이 문화재 보수에 쓰인 반면 51.7%인 2053억 원이 문화재 주변정비사업에 쓰였다.

이 중 2008~2013년 문화재청 정기조사에서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국보 · 보물 191건 중 117건(61%)은 지자체의 신청이 없다는 사유로 보수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주변정비사업은 진행됐다.

실제로 보물 1211호인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는 2010년 조사에서 곰팡이로 보존처리가 필요하다고 조사됐지만 지자체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이 지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를 보관하고 있는 사찰의 앞마당 등 주변정비사업에는 12억 원이 지원됐다.

보수 필요 문화재 조치 대신 주변 정비
시공업체 수의계약 후 부담 전가하기도
건조물 문화재 3.6%만 안전 점검 실시
'면 단위' 문화재 인식 확산 찬물 우려

일부 문화재 보수사업에서는 시공업체를 수의계약하며 업체게 자부담 등을 전가한 정황도 포착됐다.

2012년 순천 모 사찰의 경우 총 17억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된 대웅전 주변정비사업을 진행하며 수의계약을 한 시공업체에 사찰 측 자부담금인 2억 6400만원을 전가시켰다. 2008년 진행된 공주 모 유물전시관 정비공사에서도 총 53억 여원의 사업 계약 중 자부담 9억 8200만원을 시공업체가 부담했다. 이러한 자부담 전가는 보수 시공 부실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보수 시공에 있어서도 관리 · 감독이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수기술자들이 업체에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거나 보수 현장을 무단이탈한 사례도 밝혀졌다.

'문화재 보존 및 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에서도 목조 · 석조 문화재의 안전점검 대책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조 · 석조문화재의 변형 · 붕괴는 미세균열, 풍화, 기울기 등에 따라 완만하게 진행되므로 장기간에 걸친 주기적 안전점검이 필수적인데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30여 년간 전체 건조물문화재의 3.6%(51건)만 안전점검 실시했고, 그중 25건은 1~5회의 단발성 점검을 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실제 매년 특히 목조문화재의 경우 공주 마곡사 영산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 양산 통도사 대웅전 등은 고장난 방재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화재대응 매뉴얼 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감사원의 문화재 감사는 여러모로 불교계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사는 문화재청과 산하 단체,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하지만, 최다 문화재 보유 단체로서 책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조계종 총무원은 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교계가 꾸준히 진행해 온 '면 단위' 문화재 인식 확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총무원 한 관계자는 "현재 감사원 감사 결과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시스템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갈 것"이라면서 "면 단위 문화재 인식 확산 제동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7대 종교지도자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를 위해 서로 손을 맞잡았다.

종교 지도자들 "공명선거 실현하자"

5월 12일 호소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도 촉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7대 종교지도자들이 공정선거를 촉구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자승, 이하 종지협)는 5월 12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참여를 독려했다.

자승 스님은 "모두가 밝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선거가 민주사회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국민 모두에게 희망과 화합을 주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는 나라의 기본이 바로 서도록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드러냈다"며 "투표역시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유권자의 투표권 확대를 위해 사전투표제도 도입한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7대 종교 지도자들은 호소문에서 "지연 · 혈연 · 학연 등에서 벗어나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투표하자"며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져 보다 나은 삶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어 "공명선거가 실현 되도록 중립을 지키고 종파를 떠나 국가와 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지도자들은 기표마크를 함께 그리는 퍼포먼스를 통해 적극적 선거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승 스님을 비롯, 홍재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대주교), 남궁성 (원불교 교정원장), 서정기 (유교 성균관장), 박남수 (천도교 교령)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같은 날 종지협은 세월호 참사 원인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기록만 있던 고려대장경 '밀교대장' 발견

박광헌 前 학예사, 호림미술관 소장품서 찾아내

기록만 있고 실물이 확인되지 않았던 또 하나의 고려대장경, '밀교대장'(密敎大藏)이 발견됐다.

박광헌 前 호림박물관 학예연구사(경북대 대학원)는 5월 16일 청주 고인쇄박물관에서 열린 2014 한국서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호림박물관 소장품 중에 밀교대장 권61이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연구 · 분석 성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발견된 밀교대장은 총 2종으로, 2008년 남권희(서지학) 경북대 교수도 서울 수국사 소장 목조아미타여래좌상에서 나온 복장 유물 중에 밀교대장 권9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박 前 학예사가 발견한 밀교대장은 경전에서 보이는 신비의 주문인 다라니만을 떼어낸 것으로 권61은 1장에 30행 15~16글자로 돼 있다. 책 이름은 '밀교대장 권61(密敎大藏卷六十一)'이라고 하고, 제목 아래 '반(磻)'이라는 글자를 적었다. 현재 남은 장수는 17장. 전체 1~21장 중에 제15~18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어졌다. 표지는 감청색이 도는 감지(紺紙)로 만들었다. 또, 은니(銀泥 · 은가루)로 테두리를 두르고 그 안에 '밀교대장 권61'이라고 적었다.

서지학회 춘계대회서 발표
고려末 13세기 제작 추정
수국사 발견 이후 첫 성과



박광헌 前 호림박물관 학예사가 5월 16일 한국서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공개한 고려대장경 밀교대장 권61.

박 前 학예사는 "보상화 문양으로 표지를 장식한 고려시대 일반 사경(寫經)과 달리 장식적인 요소를 없애고 감지에 책 이름만 기입했다"며 "고려말 13~14세기 목판본을 절첩(접는 구조)으로 장정할 때 흔히 보이는 양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책 끝머리에는 '산원 김청 각'(散員金靖刻)이라고 해서 산원이라는 관직을 가진 김청이라는 사람이 목판에 새겼다는 사실도 적혀 있다.

박 前 학예사는 "밀교대장 권61이 간행된 시기는 권말에 나타난 각수인 '산원 김청'(散員金靖)이 최씨 무신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정권을 잡은 김준(金俊)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김준 정권에서 판각됐을 것"이라며 "더욱 구체적으로는 원종 즉위년인 1259년에서 김청이 낭장(郎將 · 고려시대 무관직)이 되기 전인 1265년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전국 100여 선원 · 2400여 수좌 하안거 결제

13일부터 3개월 정진… 재가 시민 선방도 수행

불기 2558년 갑오년 하안거 결제를 맞아 5월 13일 조계종 8대 총림을 비롯해 전국 선원에서 입재식이 봉행됐다.

올해 하안거에도 2400여 명의 수좌 스님들이 100여개 선원에 방부를 들이고 3개월간 정진한다. 또한 전국 시민선방에서도 재가자들이 방부를 들이고 참선수행을 한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13일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열린 하안거 결제 법회에서 법어를 통해 "혼신을 다해 화두의심을 챙기다보면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남과 동시에 자기의 참모습이 밝은 대낮과 같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면서 "사부대중은 각자 자리에서 자기사(自己事)를 마치는 데 게으름이 없어야 한다"고 설했다.

하안거는 결제 하루 전날인 12일 저녁 결제대중들이 모인 가운데 각자의 소임을 정하는 용상방(龍象榜)을 작성하고, 13일 결제 당일 오전 10시경에는 사찰별로 방장 스님 등을 모시고 결제 법어를 청한 후 3개월간의 참선정진에 들어갔다.

한편, 오늘날 한국불교에서는 음력 4월15일부터 7월15일까지 하안거 결제를, 음력 10월15일부터 다음해 1월15일까지 동안거 결제를 한다.

신성민 기자

종정 · 방장 법어 8면

993호 INDEX

시방세계 5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태교 템플스테이



종합 2·3
조계종 근대불교문헌영역사업 본격화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소송 각하
"사찰 규제 해소해야 전통문화 발전"
총지종, 강남에 명상 힐링센터 건립
신행 6
인터넷 금강카페 오프라인化 '활발'
출판 23
대행 선사 영어 법문집 출간
불교로 읽는 고전 24
몽테뉴 〈수상록〉- 맹난자 수필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함께 이루는 공명선거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는 6월 4일에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지방선거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지역 대표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나와 가족 그리고 지역공동체가 모두 밝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선거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선거로 치러져 보다 나은 우리의 삶과 지역발전에 큰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에 우리 종교지도자들은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공명선거가 실현 되도록 중립을 지키며, 종파를 떠나 국가와 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 드립니다.

첫째, 지역주민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두 투표에 참여하여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도록 합시다.

둘째, 지연·혈연·학연 등 연고주의에서 벗어나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 합시다.

셋째,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서로 경계하고 지적하여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 합시다.

그리고 정당과 후보자에게 요청합니다.

첫째,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여 유권자의 지지를 얻도록 합시다.

둘째,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나 비방·흑색선전을 배격 합시다.

셋째, 선거 때마다 발생되고 있는 돈 선거, 불법 사조직, 공무원 선거범죄 등을 반드시 근절 시킵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6월 4일 지방선거를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 속에 공명선거로 만들어 아름답고 밝은 세상을 이루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14. 5. 12.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 자 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공 동 대 표 홍 재 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공 동 대 표 김 희 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대주교)
공 동 대 표 남 궁 성 (원불교 교정원장)
공 동 대 표 서 정 기 (유교 성균관장)
공 동 대 표 박 남 수 (천도교 교령)
공 동 대 표 한 양 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경허·용성 등 근대 선지식, 세계가 읽는다

조계종, 근대한국불교대표문헌 英譯사업 '본격화'

경허 · 용성 · 석전 · 만해 스님 등 근대 선지식과 지성들의 저술들을 세계가 접할 수 있는 영역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조계종 근대한국불교대표문헌 영역편찬위원회(위원장 자승)는 5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근대기 한국불교 대표문헌을 10권의 총서로 묶어 오는 2017년까지 영어로 번역 · 출간한다"고 밝혔다.

5년동안 11억 2천만 원이 투입되는 역경불사인 이번 근대한국불교대표 문헌 영역사업은 앞서 故 지관 스님이 총무원장 당시 추진한 '전통사상총서' 사업을 계승한 것으로 한국 대표 고승들의 저술에서 근대 불교 선지식의 문헌으로 범위가 변화된 것이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지난해 5월 '근대 한국불교 대표문헌 영역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편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번역 대상 저술들을 선정했다. 대상 저술은 20세기 초부터 해방 전까지의 발간된 320여 종의 불서였으며, 이 중 △철학 △역사 △문화 △의례 △비평 등 5가지 분야 10종의 도서를 번역 대상으로 삼았다.

철학 분야에는 경허 스님의 〈경허집〉과 용성 스님의 〈각해일륜〉, 석전 박한영 스님의 〈인명입정리회석〉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박한영 스님이 불교의 인명학과 서양의 논리학을 비교 분석한 교학서인 〈인명입정리회석〉은 근대 불서를 살피던 중 발견해 처음 공개하는 것으라 눈길을 끈다.

역사분야는 김영수의 〈조선불교사고〉가 선정됐다. 다만 〈조선불교사고〉 편찬 이후 이뤄진 역사 연구 평가에 대해서는 주석과 해제를 통해 보완한다는 게 영역 편찬위의 계획이다.

문화분야에서는 고유섭의 〈조선탑파의 연구〉와 이능화의 〈백교회통〉이 선정됐으며, 만해 스님, 서정주, 조지훈 등 근대 불교시인들의 한데 묶은 〈근대한국불교시선〉도 번역돼 세계에 소개된다.

의례분야는 〈석문의범〉보다 4년 앞서 발간된 최초 의례서 〈불자필람〉이 이름을 올렸으며, 비평분야에서는 만해 스님 등 근대 불교 선지식과 지식인들이 잡지, 신문 등에 기고한 논설들을 모은 〈근대한국불교개혁론〉 〈근대한국불교논설집〉이 영역된다.

철학 · 역사 · 문화 · 의례 · 비평 등 5개 분야 10종 도서 선정

존 조르겐슨 · 일미 스님 등 해외 학자도 역자로 참여

'전통사상총서' 계승 의미 2017년까지 5년 역경불사

5종에 대한 주요 번역자도 계약을 마친 상황이다. 〈경허집〉은 존 조르겐슨 교수(호주 국립대)가 〈각해일륜〉은 일미 스님(미국 듀크대 교수), 〈조선불교사고〉는 판자크 모한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백교회통〉은 정단비(서울대 철학과 박사), 〈근대한국불교개혁론〉은 박포리 교수(미국 애리조나대)가 각각 책임 번역한다.

이와 함께 눈여겨 볼 점은 영역을 위한 한글 대본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영역 사업을 통해 공개되는 〈인명입정리론회석〉의 한글 대본작업에는 김상일 동국대 국문과 교수, 고승학 불교학술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기도 했다.

편찬위원회 기획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욱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은 "한국불교 근대 시기 대표 저작들을 영역함으로서 세계인에게 한국불교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영역출판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에 안정적인 영역 출판 시스템을 확립하고 동시에 해외 배포를 위한 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영위원장 정도 스님(조계종 교육부장)은 "근대 불교 문헌 영역은 민족의 시련을 함께한 근대 당시 한국불교의 지적 유산을 되새기는 작업"이라면서 "이를 통해 한국불교의 정체성과 미래적 비전을 제시하고 한국 문화 전통의 지적 역량을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세월호 참사 애도하며 '평상심' 찾아야"

자승 스님, 15일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 예방서 밝혀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5월 15일 예방한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온 국민이 매몰돼 있고, 이로 인해 집단 우울증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제는 슬픔을 수습하고 '평상심'을 찾을 때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5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진행된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의 예방서 이 같이 밝혔다.

경기도지사 후보 등록을 마친 후 인사를 위해 예방한 남 후보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10여 일 진도 팽목항에 있었다"면서 "조계종 복지재단과 지역 사찰들이 중심이 된 봉사활동이 매우 인상 깊었고, 두르러졌다. 부인을 잃은 남편은 직접 쌍계사를 찾아서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추스르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의 위로가 유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느 시기보다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에 자승 스님은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추모 · 애도하면서 각자 맡은 일에도 충실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평상심을 찾을 필요가 잇다. 특히 정치인들은 민생 현안 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예방에는 기획실장 일감 스님, 사서실장 심경 스님과 김학용 새누리당 국회의원(경기 안성)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주민소송 대상 아냐" 또 교회 손 든 法

고법,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 취소소송 각하… 대책위 대법 상고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역시 사랑의 교회쪽에 손을 들었다.

5월 15일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황일근 서초구의원 등 주민 6명이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 및 건축허가 무효소송에서 "해당 사안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과 같은 조처다. 소송자체를 무효화했기에 제대로 된 공판을 받을 기회마저 박탈당한 것이다.

서초구는 2010년 사랑의교회 건물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공공도로 점용과 건축허가를 내줬다.

사랑의교회 신축관련주민소송 대책위원회는 이같은 법원의 연이은 결정에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대책위는 공판 후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에 대해 지역주민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격하시켰다.

사랑의교회와 서초구청간의 유착관계도 비난했다. "이들은 공공도로 점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면을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특혜로 얼룩진 사랑의교회와 서초구청간의 유착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며 "사법부가 이에 대한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않고 판결을 내린 것은 무능을 드러낸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가 기득권층과 관료들의 유착으로 초래된 사고임이 드러난 이상, 사랑의교회를 둘러싼 특혜를 묵인하는 이번 판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과 위법무당한 행정에 대한 감시가 어렵게 된다면 제2세월호 참사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는 "행정기관이 위법행위시 국민이 감시할 기회가 없어진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종교가 권력화되어 공권력을 동원해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그것이 종교가 지닌 바른 모습인가"라고 반문했다.

원고측 김형남 변호사 역시 "서울시라는 상위기관이 하급지자체인 서초구청을 대상으로 주민감사 실시 후 위법판단한 사안에 대해 주민소송이 아니라하면 이는 주민소송의 범위를 완벽히 줄이는 것"이라며 "그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초구민들이 문제를 삼은 부분은 공공도로를 사랑의교회가 영구점용했다는 데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도로점용 허가는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해 일시적, 부분적으로 가능할 뿐이다. 더군다나 서초구청 유관부서 역시 이 지역에 공공하수시설(맨홀 5개, 빗물받이 15개소)이 매설돼 있어 하수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곳이기에 도로점용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바 있다. 가스공사역시 도시가스 배관철거시 공급중단 수용가와 정압실 가동중단, 피해보상 발생 등을 이유로 도로점용이 어렵다고 서초구청에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배현진 기자

"삼성 백혈병 피해 사과 미흡하지만 다행한 일"

조계종 노동위, 14일 성명

5월 14일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이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사과한 것에 대해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가 환영 의사를 밝혔다.

삼성전자의 공식사과는 2007년 기흥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지 7년 만에 이루어졌다.

조계종 노동위는 5월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삼성전자가 뒤늦게나마 백혈병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보상계획을 밝힌 것은 다행"이라는 뜻을 밝혔다.

다만 반도체 사업장 근무와 백혈병 발병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측은 전문기관을 통해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안전 보건 관리 현황을 진단받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만 밝힌 바 있다.

노동위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진솔한 대화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과는 진심을 바탕으로 나올 때만이 효과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의 백혈병 문제 해결 출발점은 무노조 경영 방침을 철회해 노동자의 노동 3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현진 기자

한국 · 중국 · 미얀마 · 티베트

4개국 불교 스승에게 배우는 바른 집중법

보리수선원 6월 11~22일 국제심포지엄 · 수행지도

미얀마, 티베트, 중국, 한국에서 오랜 수행을 한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삶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열린다.

(사)보리수선원(원장 붓다락키따)은 6월 1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부산, 합천, 광주 지역에서 '국제 심포지엄 및 체험 행사 – 바른 집중을 말하다'를 개최한다.

보리수선원은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신적 지도자들이 지금까지의 정신적 깊이인 집중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 한국에 모였다"고 설명했다.

문화관광부, 미얀마 대사관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순다라 삼장법사 스님(미얀마), 겐뒨샤꺄 스님(티베트), 밍셴 스님(중국), 원담 스님(한국)이 참여해 수행하면서 느꼈던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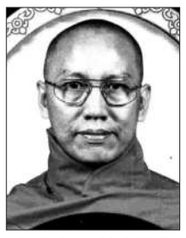
순다라 삼장법사 스님은 12세에 출가해 48세에 성경의 11배인 경장, 율장, 논장을 빨리어로 완전히 외우고, 쓰고 이해하는 삼장법사에 통과했다. 스님은 경전에 근거한 부처님의 바른 수행법을 스스로 점검하며 근세기 대선사인 순룬 사야도의 정통을 따르고 있다.



원당 스님(한국)



밍셴 스님(중국)



순다라 스님(미얀마)



겐뒨샤꺄 스님(티베트)

겐뒨샤꺄 스님은 1975년 겔룩빠 본사인 간덴 사원에서 출가해 오대경전을 수학하고 많은 학자를 제자로 키웠다. 1999년 간데 사원 교수로 임명된 스님은 현재까지 논리학, 반야, 중관학, 구사론, 율장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무문관 수행으로 집중명상과 분석명상을 통해 삼장을 닦고 있다.

밍셴 스님은 강시성 운거산 전뤼사로 출가해, 루산에서 독거 수행 과정 중 입중론 친문기(入中論親問記)를 완성했다.

원담 스님(진주 도과선원 선원장)은 서울대 총불회 회장을 역임하고 송광사로 출가하고 비구계를 수지하고 봉암사 희양선원 수선안거 이래 25안거를 성만했다.

행사는 6월 1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부산, 합천, 광주, 보리수선원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첫 행사는 11일 오후 2시 부산 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어떻게 정신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청중이 질문하면 응답하는 좌담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같은 방식으로 12일 오후 3시 경남 합천에서, 13일 오후 7시 전남 광주 동구청 6층에서, 1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 8층에서 바른 집중 국제 심포지엄이 열린다. 15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8층에서 국가별 바른집중 지도 및 체험을 직접 지도 · 점검한다.

이어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보리수선원에서 '삼장법사의 특별집중수행'이 진행된다. 순다라 삼장법사 스님이 법문을 통해 아비담마에 근거한 수행법을 가르치고 개인지도 할 계획이다.

보리수선원장 붓다락키따 스님은 "살아가면서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것들, 명백하지 않았던 것들, 수행하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바로 물어보고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02)517-2841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국민과 함께 세월호의 아픔을 나누며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평화세계법왕 석만청 합장

서울 전통사찰 17곳 방재시스템 구축

서울시, 올해 18억원 투입

서울시 전통사찰 17곳에 올해 안으로 화재와 도난 예방을 위한 방재 시스템이 구축된다.

서울시는 5월 6일 '2014년 전통사찰 보수 및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일반에 발표했다. 이 사업은 사찰이 각종 도난과 화재예방을 위한 것으로 시는 국비 포함 18억4600만원을 17개 사찰에 투입할 방침이다. 사업비는 국비 40%, 시와 자치구, 사찰이 각각 20% 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보수사업에 9억 원, 방재시스템 구축에 9억4600만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종로의 소림사와 도봉 천축사, 성북 봉국사는 보수정비와 방재시스템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대각사 · 문수사(종로) △보문사 · 정법사(성북) △호압사(금천) △관음사(관악) 등은 보수정비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적조사(성북)를 비롯 △옥천암(서대문) △성주암(관악) △연화사(동대문) △약사사(강서) 등에는 방재시스템이 구축된다.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누전, 합선 등 전기화재 원인을 예측하기 위해 경보기 및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행 첫해인 2012년 7개, 지난해 13개에 완료됐다. 서울시시는 2021년까지 시내 전체 전통사찰 총 58개에 방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종교 등 각계 원로들 새 한국 국민운동 전개

15일 운동본부 발족식

종교 · 경제 · 문화 · 학술 등 우리 사회 각 분야 원로 118명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적 총력을 모아 새 한국을 만들어 내자"며 범국민 운동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을 발족했다.

이들은 5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세월호 사태의 원인은 우리 사회 책임 윤리의 부재, 안전 불감증, 고발정신 부재 등의 병폐가 누적돼 왔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개혁에 참여해 몇 년이 걸리더라도 기필코 우리나라를 개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계에서는 월주 · 성타 스님이 참석했으며, 김진홍 · 손인웅 · 이수영 · 이영훈 목사, 이한택 주교 등 종교계 인사와 시민운동계 박상증 · 서경석씨, 문화계 복거일씨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한다. **신성민 기자**

"사찰 중첩 규제 해소돼야 전통문화 발전"

조계종, 6.4 지방선거 앞두고 정책 제안서 배포

전통 사찰과 불교에 대한 중첩 규제는 불교문화 발전과 보존에 장애물로 작용돼 왔다. 전통사찰 들은 도시공원법과 자연공원법에 규제를 받고 문화재보호법은 공공성을 너무 강조하다보니 소유주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건축법은 현대 건축물과 전통 건축물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도 획일 적용 중이다.

6.4 지방선거에 앞서 이 같은 규제 법령들을 해소와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들을 담은 자료집이 제작돼 눈길을 끌고 있다.

조계종 기획실은 5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통문화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과 '해소가 필요한 전통문화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자료집을 각각 제작했다"고 밝혔다.

자료집을 살펴보면 그간 불교 발전을 옥죄고 있는 중첩 규제 법령은 총 18개. 이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자연공원법 △농지법 시행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문화재 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령은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전기 사업법/ 전기의 기본 공급 약관 등 7개 법령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조계종은 전통사찰 도시공원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와 △자연공원법 재검토 △전통사찰 건축법 적용 제외 △사찰 내 장사구역 설치 △봉안당, 자연장지 상한선 제한 폐지 등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조계종 기획실은 "규제 만능주의에 묶여 거친 숨을 내쉬는 역사와 문화라는 생명체가 있으며, 그 중 가장 힘든 숨을 내쉬는 존재가 문화재 사찰과 전통 사찰"이라며 "자료집에 내용들은 실제 규제이기도 하고 전통 문화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들"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이 6.4 지방선거을 앞두고 제작 배포한 전통문화 발전 정책 제안 자료집.

문화재보호법 · 장사법 등
규제 개혁 법률만 18개
중첩 규제法 해소 필요

전통사찰 담당부서부터
지역 역사교육 강화 등
문화 발전 정책 제안도

이와 함께 조계종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통문화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들에 대해서도 정치권에 제안했다.

조계종은 '전통문화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자료집에서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종합 대책 △문화재 · 전통 사찰 중심 전통문화 지원 육성 △불교관련 규제정책 해소 및 규제법령 개정 △사찰 '숲' 활용 생태보전 · 친환경 정책 △지역사찰 연계 문화사회복지 활동 및 시설확충 지원 △역사교육 강화 △차별 없는 행정 등 7가지 분야에 걸쳐 정책을 내놨다.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에 대해 조계종은 전통사찰보존위원회 활동 강화, 방재사업 지원 등 전통사찰 보호 노력 강화, 전통문화정책 담당 부서 시설, 문화재 및 전통사찰 수행환경 침해 요소 억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도 유무형 문화재 보존 노력을 확대하고 사지 복원 조사 사업 지원, 템플스테이 적극 활용, 안내 표지판 일제 점검 등이 이뤄져야 하며, 사찰 '숲' 활용해 사하촌 저탄소 녹색마을 만들기, 수목장 등 자연장지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된 종교편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별금지 관련 조례 제정과 후보자의 종교적 중립 선언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계종 기획국장 남전 스님은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불교 현안을 공유하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자료집을 만들었고, 전국 사찰과 국회와 주요 정당에 배포했다"면서 "자료집을 통해 스님들은 후보자들에게 정책 기조를 제안하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전통문화 발전 정책을 공유했으면 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곧 공개되는 뉴요커 사로잡은 보원사 철불

금동미륵반가사유상 반출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전시. 지난 2월 막을 내린 전시에서 뉴요커를 매료시킨 문화재는 보원사 철불이었다. 이 거대한 철불은 아직 국보나 보물로 지정조차 안됐지만, 현지 학자들은 서양에서는 찾을 수 없는 고도의 기법으로 평가했다. 해외에서 먼저 주목한 보원사 철불은 5월 20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 통일신라실에서 만날 수 있다. **〈차주 상보〉**

글=신성민 기자 · 사진제공=국립중앙박물관

클릭 한번에 조계종 사찰 소식 '한눈에'

조계종, 통합정보사이트 오픈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소속 사찰과 단체의 소식을 한 곳에서 소개하는 '조계종 통합정보 사이트(이하 통합정보 사이트)'를 선보인다.

통합정보 사이트는 종단의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의 홈페이지, 사찰, 및 불교단체 등에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RSS 방식으로 서로 연결해 각종 소식들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각 사찰과 단체의 홈페이지 담당자가 게시물을 등록하면 홍보자료, 사진, 동영상 등이 자동으로 연동돼 통합정보 사이트에서 게제되는 것이다.

조계종 기획실은 "현재 통합정보 사이트에는 교구본사와 직영사찰을 비롯한 33곳, 관련기관 15곳의 사이트가 연동돼 있다"면서 "종단은 향후 사찰과 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연동 사이트를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이 오픈한 '통합정보 사이트' 첫 화면.

서울 강남에 힐링센터 '어울림' 들어선다

총지종, 5월 25일 개원… 명상 · 치유 등 40개 강좌 개설

밀교종단 불교총지종이 서울 강남에 종합힐링센터를 열고, 국민 힐링과 치유에 본격 나선다.

불교총지종은 5월 25일 서울 강남 총지사 문화관에서 종합힐링센터 '어울림' 개원식을 시작으로 상담, 심리치료, 명상, 요가 등 9개분야 40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개원에 맞춰 미얀마 마하시 명상센터 이사이며 위빠사나 명상지도자로 유명한 자가라 스님 초청 위빠사나 강좌가 6개월 간 열릴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경희대 후마니카스 칼리지 교수들이 주로 참여해 진행하며 크게 △공감과 소통 △명상의 세계 △비움의 여행 △살아있는 음식 △삶의 철학 · 문학 △심신의 치유 △자기개발 △치유의 예술 △행복한가정의 9개 분야로 나뉜다.

연극과 음악, 미술 등 예술치유와 요가, 태극권 등 심신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먼저 △공감과소통 분야에서는 스트레스와 춤을(최경실)/에니어그램(강윤곤)/치유와 회복의대화(김점란)/성격이해와 갈등개선(박상억) 등이 진행된다.

총지종은 내년 6월에는 세계 각지의 힐링 리더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힐링캠프를 4박 5일간 열 계획이다. 힐링캠프에는 국제심포지움과 워크샵이 포함돼 있다. 또 5월 23일 괴산수련원을 개원에 맞춰 어울림센터를 연계해 향후 1박 2일 집중수행프로그램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어울림 센터가 들어설 총지문화센터.

어울림 센터장을 맡은 김종인 총지종 법장원 연구원(경희대 교수)은 "우리사회 힐링은 소통의 부재에서 발생하고 있다. 가족과 직장 내 소통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다"며 "'어울림'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경희대 비폭력연구소, 한성대 중독예방교육원 등 학계와도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02)501-9035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제2회 청소년과 함께 하는 이주노동자 전통문화체험 참가안내

국내 이주노동자 20만 시대, 대한불교천태종은 청소년과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역사문화 현장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관심 있는 청소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행사 참여 안내

- 일 시 : 2014년 6월 28일(토) ~ 29일(일)
- 장 소 : 충북 충주 세계무술박물관 수안보 제천 단양 일원
- 참가인원 : 이주노동자 55명 / 청소년 20명
- 참가신청 기간 : 2014년 5월 21일 ~ 30일
- 참가자격 :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
- 신청방법 : 전화 신청 및 상담 / ☎ 02)723-1559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 서울사무소

일 주 문



어르신 떡국 공양

청소년교화연합회 총재 현성 스님은 5월 14일 현성정사에서 어르신 143명에게 떡국공양을 올렸다.



불일불교대학 개교식

순천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은 5월 9일 송광사 대웅전에서 제1회 불일불교대학 입학식 및 개교식을 개최했다.



제41기 단기출가학교 모집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6월 5일까지 제41기 단기출가학교 출가자 접수를 받는다. 선착순 60명.



울산시복지관협회장 취임

울산 선암호수노인복지관장 종선 스님 5월 16일 울산 선암호수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울산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으로 취임했다.



유엔베삭절 한국대표 참석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 부위원장 진월 스님은 5월 8~12일 태국에서 열린 유엔베삭절 기념식에 한국대표로 참석했다.



부산 능인선원 개원 2주년 법회

능인선원 선원장 지광 스님은 5월 14일 부산본원 개원 2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짝찾기 기차여행

옥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선남선녀인연맺기 10주년 행사'로 5월 31일 충북 종단열차 짝찾기 기차여행을 개최한다.



동국대에 불자대상 상금 기부

김동건 불교포럼 대표는 5월 12일 조계종 불자대상 수상 상금 전액을 동국대에 기부했다.

동국대 정승석 교수, 한국연구재단 우수학자 선정



정승석 동국대 교수는 5월 15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인문사회분야 우수학자로 선정됐다.

정승석 교수는 '인도의 이원론과 요가' 연구과제로 불교의 수행전통 뿐만 아니라 한의학, 종교학, 심리학 등 학제 간 연구의 실질적인 통로를 제시하는 연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 불교학 및 동양철학분야에서 최초로 우수학자에 선정된 정승석 교수는 5년간 총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한국연구재단 강연에도 나선다. **노덕현 기자**

"사찰과 기업 연계해 상생할 것"

이민수 광주불교방송 신임 사장



전문경영인 출신, 지역불교계 기대
지역불교 상생프로그램 개발 추진
호남지역 총괄 송출 시스템 마련

"열악한 광주불교방송의 재정상황을 정상화하고, 지역 불교세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불교방송 신임사장에 동양건설 이민수 대표이사가 임명됐다. 스님들이 방송사 사장을 맡았던 여타 지역과 달리 전문경영인의 취임에 불교세가 약한 지역불교계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재단법인 불교방송은 5월 2일 광주불교방송 신임사장에 동양건설 이민수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이민수 사장은 광주불교방송의 향후 역할에 대해 "불교방송의 역할은 부처님의 법음을 널리 홍포하고 불교를 알리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광주불교방송은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지역불교계를 활성화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조선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경영대학원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광주JC특우회 회장과 중앙회장, 대한건설협회 대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남인라인연맹회장, 전남경영자 총협회 회장을 맡는 등 지역의 핵심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민수 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지역 사찰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어릴 적 화순 개천사, 운주사 등을 다닌 인연으로 현재도 화엄사 연기암, 영암 천암사 등에서 신행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장은 지역민들에게 전법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지역 스님들과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지역 사찰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사찰과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데 불교방송이 매개체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도 밝혔다.

이 사장은 "기업과 연계된 협찬 광고를 수주해야 한다"며 "그동안 쌓은 지역 인맥과 함께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 이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불교방송은 신임 사장 임명과 동시에 광주 상무지구 동양빌딩에 새사옥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부터 설비 이전과 함께 지역송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불교방송은 인사발령을 통해 광주불교방송 총괄국장 직무대리 겸 방송제작부장에 심창훈, 총무부장 직무대리에 김홍범, 기술부장 이재형을 임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최상의 힐링, 도시민 마음다스리기에 힘쓸 터"

5월 18일 명상수련센터 상량식-대광사 주지 월도 스님



5월 18일 전통명상수련센터 상량식을 봉행한 천태종 대광사 주지 월도 스님(천태종 총무부장)은 "대광사 전통명상수련센터는 현대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게 해주는 최상의 수행과 힐링 장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광사 주지 월도 스님은 개관에 앞서 해마다 전통명상과 관련한 세미나를 통해 철저히 준비해 왔다.

"2회에 걸쳐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해보니 도시민들을 위해서는 선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센터안에 4개의 체험 공간이 만들어질 예정인데 이 곳에서 일상속에서 나를 잊고 외부와 단절된 선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마음다스리기 집중 훈련 프로그램을 운용할 것입니다. 또한 기간은 당일 출퇴근 프로그램부터 1박2일, 2박 3일, 1주일 등 단기 프로그램을 주로 마련할 것입니다."

한편 전통명상수련센터는 연면적 9329㎡에 지하3층, 지상 1층 규모이며 공사비는 120억 여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현재는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말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며, 각종 명상과 다도 체험, 템플스테이, 소외계층 지원, 어린이 청소년 대상 동양문화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율장 정신 되돌아 보는 계기 되길"

빨리어율장 최초 번역 전재성 박사



불교 규범의 근간인 율장. 남방불교에 전해 내려오는 빨리어 율장이 최초로 한글번역 됐다. 전재성 박사의 〈마하박가(大品)와 쭐라박가(小品)〉가 그 것.

전재성 박사는 "율장은 계율 자체보다 그 계율이 어떻게 성립되고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기록한 것"이라며 "한글로 번역된 원전 율장을 보며 상황에 따른 참된 계율 정신을 살펴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현재 한국불교계는 한글대장경 중 〈사분율〉과 〈십송율〉 등 한역율장을 모두 한글로 번역해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전 박사는 이러한 번역본에 오류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 박사는 또 "〈빨리율장〉에는 부처님께서 당대의 사회상 등을 고려해 왜 그런 계율을 만드셨는지에 대한 상황이 표현돼있기에 단순한 계율 뿐만 아니라 그 계율 정신을 살필 수 있다"며 "현재 맞지 않는다고 하여 사문화 된 계율이 아니라 살아있는 계율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 박사는 끝으로 "경율론 삼장 중 제일 먼저 나왔어야 할 율장이 이제 갖춰짐으로 한국불교가 한발 더 전진하기를 서원한다"며 "수많은 재가수행자들과 어려운 여건에서도 정진하는 스님들과도 이 기쁨을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원학 스님 '동다송' 출판강연회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5월 11일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서 〈향기로운 동다(東茶)여 깨달음의 환희(歡喜)라네〉 출판 기념강연회와 저자 친필사인회를 개최했다.

이날 특별강연회에는 불교TV 이사장 성우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박원순 서울시장, 김희옥 동국대 총장,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 등 500여 불자들이 참여했다.

원학 스님은 "저는 차인(茶人)이 아니고 수행승으로서 200년 전 초의 스님이 말한 '끽다가 곧 수행'이라는 다선일미의 정신을 현대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동국봉사단, 생명나눔 명예의전당

동국대가 운영하는 동국참사람봉사단이 생명나눔실천본부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동국참사람봉사단(단장 김희옥)은 동국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기기증을 홍보한 결과 희망등록자 108명을 추천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명예의전당 헌정식은 5월 17일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열리는 '생명존중 나눔걷기 축제'에서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북한, 인민생활 향상 가장 절실"

민추본 월례강좌서 정영철 교수 강조



정영철 교수

민추본은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사진〉를 초청 '북한 체제의 성립과 전개'를 주제로 월례강좌를 실시했다. 정 교수는 5월 15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열린 민추본 정기강좌에서 3대 세습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김정은 체제를 평가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는 1945년부터 2014년까지 북한체제의 성립에서부터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로 이어지는 북한 사회를 정치 경제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정 교수는 "김정은 현재 제도적 리더십은 확보한 상태"라며 "앞으로 인격적 리더십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정은은 김정일의 유훈인 세계화와 인민생활 향상, 북미관계의 개선, 남북관계의 발전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민생활의 향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경제산업의 강조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남경대학한국캠퍼스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한국캠퍼스 총장의 추천 입학제'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남경대학 한국캠퍼스와 함께 세계를 향한 날개짓을 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모집요강
- 한의학과 5년 – 120명
- 박사과정 3년 – 10명
- 석사과정 3년 – 10명
- 재경대학 4년 – 10명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3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4년 6월 20일

4 문의처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팩스 :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부산지원은 5월 11일 경내 수련원에서 특별 체험형 템플스테이 '태교, 대장부를 품다'를 진행했다.


태교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산후 우울증 예방 및 스트레스 완화, 순산 등 임산부를 위한 유용한 요가 동작들을 배웠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1일 체험형 태교 템플스테이

"선한 마음 가져 아기부처님과 인연 맺어요"

예비엄마 · 신혼부부 등 23명 참여
요가 · 명상 · 차담 · 태교일기 작성
혜도 스님 "임신 전부터 선한마음 가져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 이하 부산지원)이 산모들을 위한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부산지원은 5월 11일 경내 수련원에서 특별 체험형 템플스테이 '태교, 대장부를 품다'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신혼부부부터 뱃속에 아이를 둔 예비엄마와 미혼 청년법우 등 23명이 참여해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템플스테이는 △오리엔테이션 △입재식 △We are the 대장부 △발원문 낭독 △요가체험 △태교일기장 쓰기 △수행의 향기를 마시다 △마음의 불 등으로 진행됐다.

입재식에서 혜도 스님은 "여러분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하면 선한 인연으로 만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내 아기가 무한한 부처님의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임신하기 전부터 3세 때까지의 태교가 중요하다. 원을 세우고, 선한 마음으로 아기 부처님을 맞이하길 바란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에 앞서 지도법사 혜벽 스님은 "공자 어머니가 태교를 위해 몇 년 동안 공을 들였던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부터 아기 부처님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템플스테이 첫 프로그램인 'We are the 대장부'에서 참가자들은 아이와 부모 모두가 대장부가 되길 발원하며 발원문을 낭독했다. 이어 태교와 심신 안정을 위한 요가수업이 진행됐다. 산후 우울증 예방 및 스트레스 완화, 순산 등 임산부를 위한 유용한 요가 동작들이 지도 강사의 진행 아래 이루어져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서 태교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는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입덧, 진통 및 분만 등 출산 과정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훗날 만나게 될 아이를 위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각자의 태교 일기장에 써내려갔다.

박우재(45) · 이지은(35) 부부는 "어머니의 신청으로 오늘 태교 템플스테이에 참가하게 됐다.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번 프로그램으로 효율적이면서도 좋은 방법을 알게 된 것 같다"며 소감을 말했다.

며느리 권서운(31)씨와 함께 참석한 신정희씨(55)는 "지금까지 며느리에게 태교에 대해 알게 모르게 부담감을 준 것 같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뛰어난 아이를 원하기 보다는 어떤 일을 하든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주변을 환히 밝힐 수 있는 아이를 소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서운 씨는 "이번 템플스테이를 계기로 좀 더 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자 한다. 이러한 자리에 함께 참여해주신 시어머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오후 프로그램에서는 스님들과의 차담 시간 '수행의 향기를 마시다'가 진행됐다. 세 개 조로 나뉜 참가자들은 영도 앞바다가 보이는 탁 트인 배경을 벗 삼아 부모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해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참가자들은 부모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해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태어날 아이가 야생화처럼 단단하면서도 아름답게 자라길 발원하며 사진을 찍고 있는 참가자들.


부부 참가자가 태교일기에 미래의 아기를 위해 편지를 쓰고 있다.

마지막 프로그램인 '마음의 불'에서 참가자들은 스님으로부터 건네받은 촛불을 들고 악한 마음과 업을 씻고 마음의 불을 밝히겠다고 발원했다.

이어 부산지원은 '매일 아기에게 들려줘야할 세 가지 당부'가 적힌 태교 일기장을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세 가지 당부는 대행 스님의 법어를 인용한 것으로, △첫째, 너의 주인공은 너에게 보디가드처럼 항상 따르고 있다. 그러니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너의 주인공을 항상 지니고 있으니 진실로 믿고 그렇게 해라. △둘째, 아픔을 전부 건져서 편안하게 해주는 대심을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셋째, 부드럽게 행하고 보배스러운 인간으로서 자유인, 지혜로운 사람, 너그러운 사람, 모나지 않는 사람, 자비롭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로, 참가자들은 태교일기에 미래의 아기를 위한 편지를 적어 내려갔다.

'마음의 불' 두 번째 순서에는 부부가 명상을 하며 서로에 대해 생각해보는 '아내도리, 남편도리'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오디오 명상을 들으며 인생 동반자로서의 책임과 유대감을 깨닫고 마지막 순서인 '즉석카메라로 야생화 찍기' 활동으로 태어날 아이가 야생화처럼, 단단하면서도 아름답게 자라나기를 발원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의 특별한 템플스테이는 계속해서 진행된다. 오는 6월에는 가족을 위한 템플스테이가, 11월에는 두 번째 태교 템플스테이가 이어진다. 인원은 선착순으로 30명이며, 정기 템플스테이인 1박 2일 체험형과 휴식형 템플스테이는 성인 5만원, 어린이 · 청소년은 4만원이다. 또한, 1일 체험형인 특별 템플스테이는 2만원이다. 참가 신청 및 문의는 www.대장부템스.org 또는 템플스테이 사무국 070-4650-5535로 하면 된다. **김나영 객원기자**

"은사 대행 스님 가르침 실천"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인터뷰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올 한 해 동안 대장부 템플스테이를 상설화해 불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은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대장부 템플스테이에 참여해 불교라는 틀에 메이지 않고 마음을 쉬면서 각자의 내면에 갖춰진 무한한 에너지를 발견하고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부산지원은 지난 1월부터 5월 현재까지 초 · 중 · 고등학생 및 어머니, 아버지를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열어왔다. 이번에 개최한 태교 템플스테이는 평소 태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행 스님의 법문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혜도 스님은 "은사 스님께서는 아이를 갖기 이전부터 태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아이를 가져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태교는 시작돼야 한다"며 "밝고 지혜로운 아이와 만나기 위해 좋은 마음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 맞춤형 템플스테이도 진행하는 부산지원은 체험을 희망하는 인근 중학교와 관공서, 복지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혜도 스님은 "보편적인 프로그램은 꾸준히 진행하면서 학교 및 관공서를 비롯해 일반인들의 특징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수행모임 '금강' … 묘금륜원 세우고 정진 박차

오는 6월 충남 태안에 완공…단체 법인화 준비중

청화 스님(1924~2003)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일상에서 수행을 실천하는 인터넷 수행카페 '금강 불교입문에서 성불까지(이하 금강)' 의 정기 오프라인 모임인 '금강정진회' 가 오는 5월 24일 100회 회향을 맞는다. 이와 함께 금강카페는 충남 태안에 금강도량인 '태화산 묘금륜원' 을 오는 6월 완공하고, 단체를 법인화해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금강 카페지기 배광식 회장(국제포교사회 명예회장,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명예교수)은 "많은 금강카페 회원들이 정례모임 외에도 수시로 모여 정진할 수 있고 금타대화상과 청화 스님의 혜명을 널리 펼 수 있는 고정된 도량을 발원했다"며 "이에 금강 회원들은 깨어있는 행동으로 널리 모든 생명의 이익과 행복을 이룩하길 발원하고 2006년 11월 25일 해인사 원당암에서 염불선 천일수행 입제와 함께 금강도량 발원 모연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 회장은 "8년이 지난 지금 3차 천일수행 중이며, 지금까지 많은 회원들이 일과 수행에 맞추어 보시금을 적립, 올해 현재까지 총 3억원이 모연됐다. 또한 신심 깊은 도반께서 우리나라 최초로 마애불이 조성된 태안의 땅을 기꺼이 희사하고, 2013년 11월 22일 금강도량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금강카페 회원들은 '금강불사 추진위원회' 를 지난해 9월 발족하고, 금강카페 수행도량 후보지를 결정해 대지면적 2483㎡(751평)에 건축면적 177㎡(53.57평), 연면적 263㎡(79.8 평), 지상 2층의 3억 5천만원 규모의 금강도량인 '묘금륜원' 을 세우고 오는 6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묘금륜원에서 금강카페 회원들은 정기철야정진을 비롯한 별시수행과 개별정진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학술세미나와 불교강좌 및 문화강좌를 열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 할 방침이다.

배광식 회장은 "많은 금강 카페 회원들이 정례모임 외에도 수시로 모여 정진할 수 있고 금타 대화상과 청화 스님의 혜명을 널리 펼 수 있는 고정된 도량을 발원했다"며 "향후 묘금륜원을 중심으로 주변에 개인 수행처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수행공동체 마을을 형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페 유지비결… '도반' 과 '꾸준한 수행'

"심은 허공과 등할 새. 편운척영이 무한 광대무변한 허공적심계를 관하면서 청정법신인달하여 비로자나불을 염하고[마음은 허공과 같을새 한 조각 구름이나 한 점 그림자도 없이 크고 넓고 끝없는 허공같은 마음세계를 관찰하면서 청정법신인 비로자나불을 생각하고]…"

5월 13일 저녁, 서울 조계사 인근 오피스텔에 '승우당' 이라는 문패가 걸린 곳에 30여 명의 인터넷 금강카페 회원들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청화 스님(1924~2003)의 보리방편문을 염송한 회원들은 개인적으로 수행하면서 느꼈던 점을 서로 질문 · 토론하며 궁금증을 해소하고 청화 스님의 법어집인 '가장 행복한 공부' 를 강독하며 수행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5월 24일 금강정진회 100회 회향
묘금륜원 불교강좌 · 세미나 실시
"수행공동체 마을을 만들 계획"





금강강독회 회원들은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모여 각자의 수행을 점검하고 청화 스님의 법문을 공부한다(사진 왼쪽). 6월 완공 예정인 묘금륜원 선원(사진 오른쪽).

배광식 회장은 2002년 보리방편문 사경을 비롯해 생활법문과 다양한 수행법을 접할 수 있는 금강카페를 다음(cafe.daum.net/vajra)과 네이버(cafe.naver.com/huineng)에 개설한 이후로 회원들은 꾸준히 청화 스님의 사상과 가풍에 따른 염불선 수행을 실천하고 있다.

금강 카페는 '다음(daum)' 에서 7000여 명, 네이버(Naver)에서는 50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2006년 5월 첫 오프라인 모임을 가진 회원들은 현재까지 한번도 빠지지 않고 모임을 이어왔다.

오프라인 모임에는 매월 둘째 화요일에 모여 경전을 독송하고 불교서적을 읽는 '금강강독회' 와 매월 넷째 주 토 · 일요일 전국사찰을 순례하며 철야정진을 하는 '금강정진회' 가 있다. 현재 금강강독회는 5월 13일 97회를 맞았으며, 금강정진회는 오는 5월 24일 모임 100회를 맞는다.

이밖에 금강카페 회원들은 매일 일상에서 보리방편문의 '아미타불' 108독 봉독을 하고, 인터넷 사경을 통해 신심을 다져나간다.

닉네임 '무원' 을 사용 하는 금강카페 회원은 " '나' 라는 상을 놓아 버리니 세상이 제대로 보인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능현' 은 "금강카페에 와서 느낀점은 도반님들이 차원 높은 불교 공부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모두가 불교 핵심을 관통하는 금타 선사, 청화 스님의 가르침 덕분이다. 신심 깊은 도반을 보면서 생활하다 보니 조금씩 커가는 느낌이 듭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배광식 회장은 20년 넘게 염불선 수행을 해오고 있다. 그의 염불선(念佛禪) 수행은 청화 스님의 보리방편문을 계승발전 시킨 것으로, 금강 카페도 청화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개설한 것이다.

배 회장은 "청화 스님께서는 평소 '대중이 많이 모이는 법회도 중요하지만 몇 명이 되더라도 모여서 제대로 수행하는 모임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며 "혼자 수행을 하면 내가 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결심이 흔들려 수행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럴 때 도반들과 일정기간 한 가지 수행을 함께 하고 공유하면 지속하기도 쉽다. 많은 회원들이 금강카페를 통해 신심을 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불교여성개발원, 서울노인복지센터와 웰다잉 협약

노인상담 활성화 위해 강사파견 및 상담원 지원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정경연)이 노인복지와 노인상담 활성화를 위해 강사파견과 상담원을 지원한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와 불교여성개발원은 5월 14일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실에서 웰다잉 관련 교육 · 상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08년 웰다잉운동본부를 발족한 불교여성개발원은 웰다잉 지도자과정을 개설, 관련분야 전문가를 양성해온 불교계 대표적 웰다잉운동단체다. 올해는 안전행정부로부터 웰다잉 강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와 불교여성개발원은 5월 14일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실에서 웰다잉 관련 교육 · 상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관장 희유 스님은 "이번 업무협약 덕분에 어르신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며 "좋은 프로그램을 함께 발굴해 노인들의 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정경연 원장은 "부처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회향할 수 있도록 해 준 서울노인복지센터에 감사드린다"며 "어르신들의 노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성심껏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배현진 기자

"미국 서부지역 · 사찰 탐방… 국제감각 길러요"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 '제4회 한미불교문화유산 연수단' 모집

조계종 국제전법단(단장 수암)과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대표 정범)는 청소년들을 한국불교 인재로 키우기 위해 실시하는 '제4회 한미청소년 불교문화 연수단' 을 모집한다.

이번 연수는 8월 7~17일 10박 11일 동안 LA, 샌프란시스코, 그랜드캐년 등 미국 서부지역 일대에서 진행된다.

한국 학생을 비롯해 미 동부와 서부에 거주하는 한인 학생과 함께 UC버클리, 스탠포드, UCLA 대학탐방을 비롯해, 그랜드캐년, 태평양 연안, 금문교, 헐리우드 등을 관광하고 실리콘밸리와 인텔 뮤지엄, 시빅센터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LA 태고사, LA정혜사도 순례한다.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는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세계 불교문화 체험과 국제 행사 경험을 통한 타문화의 이해와 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참여를 통해 청소년들이 불교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 대표 정범 스님은 "세월호 사고로 온 국민이 마음 아파하고 있기에 안녕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도 왠지 죄스러운 마음이다. 봉축 행사를 비롯해 많은 행사가 취소 · 축소됐기에 청소년 연수단 모집 안내문을 보내려고 하니 망설임이 앞선다"며 "하지면 1년 전부터 기획된 일이라 부득이 하게 일을 진행하게 됐다. 많은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조심스럽게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신청기간은 6월 10일까지이며 홈페이지(www.dourim.net)에 접속 후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메일(kbin8985@naver.com)이나 팩스(02-733-8985)로 접수하면 된다.



2013년 12월 진행된 '제4회 한미청소년 불교문화연수단' 의 참가 학생들이 미국 동부지역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생전 예수재 기도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생전 예수재는 살아 있을때 사후(죽은 뒤)를 위하여 공덕을 쌓아서 지옥고를 받지 않고, 극락왕생하도록 법의 공덕을 저축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전예수재가 사후의 극락도 보장하지만, 살아있을때, 전생의 빚을 갚는 의식을 겸한 재로써, 이 재를 지내면 그시점부터, 단계적으로 빚을 갚아 나가게 되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빚을 갚은 만큼,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도로써 업장소멸이 거의다,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생의 빚을, 단계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생전예수재 기도 방법과 방편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진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스러운 방편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이제 생전예수재 기도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쉽고, 간편하게,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자님들께 드릴 생전예수재 기도의 중요성 책자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기도신청방법

생전예수재 기도 책자를 받으셔서 읽어보시고, 본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기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생전예수재 기도의 성취효과는 매우 크며,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써넣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불자님들께서 다른 좋은 기도도 많이 있지만, 이번에 한번 해 보실 만한 기도로써, 생전예수재 기도를 권해드립니다. 그동한 살아왔던 삶이 괴로우셨다면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요.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연천군 황혼 미팅… 80대에도 로맨스가

최연소자 65세…독거노인 솔로탈출 미팅

얼굴 주름은 늘었지만 이성 앞에서 설레는 마음은 청춘못지 않았다.

젊은이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미팅이 어르신들 대상으로 열리는 곳이 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운영하는 경기 연천군노인복지관이다. 3월부터 '인생2막 황혼에서 찾은 로맨스, 두 번째 프로포즈' 가 남녀 어르신 각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프로그램에는 '독거노인 솔로탈출기' 라는 부제가 붙었다.

"외롭지. 외롭지 않다는 건 거짓말이야." (이 모 어르신, 80세)

"비나 눈이 칙칙 날릴 때는 쓸쓸하지. 그때마다 나도 남편이 있었으면 오죽 좋을까란 생각이 들어." (박 모 어르신, 82세)

나이만큼 외로움도 늘어가는 법. 어르신들이 체면불구하고 쏟아낸 말들에 적적함이 배어있다.



포천 허브아일랜드에서 진행된 황혼미팅에 참가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어르신들.

건강한 노년 삶 위한 장기 프로젝트

배우자 없이 사는 홀몸노인은 152만명. 이들의 자살비율은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의 3배다. 우울증에 걸리는 비율은 20%나 높다.

연천군은 경기 노인자살률 1위(2012년 통계기준)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 여러 자구책을 동원해왔다. '두 번째 프로포즈' 역시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덜고자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어르신들이 복지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점도 고려됐다.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홍윤숙 연천군노인복지관 재가복지과장은 "배우자가 없어 느끼는 외로움, 소외감으로 노인들에게 우울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며 "같은 세대를 살아온 어르신들이 상호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심리적 지지감을 얻을 수 있도록 좋은 벗을 찾아주는데 프로그램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홀몸노인 외로움 덜기 위해
힐링캠프, 성인식 교육 포함
황혼 미팅… 참석률 100%
어르신들의 열기 '뜨거워'

일회성 실버미팅이 복지관별로 진행된 적은 있지만 단순 만남 프로그램은 노인들 스스로가 부담스러워했다. 주변 시선에 이성적 호감은 자연스레 자취를 감췄다.

홍 과장 역시 노인들의 이성교제가 사회적으로 껄끄러운 문제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회적 인식상 노인들의 재혼이나 성문제는 억압된 측면이 없지 않다. 노인 스스로가 전통적 도덕관을 극복하고 건강한 노년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프로그램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두 번째 프로포즈는 단순 단체미팅이 아니다. 10개월간 노년기의 사랑과 삶에 대해 알아가는 장기 프로젝트다. 매주 한 번씩 총 25회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자아 존중감 회복과 우울증 예방을 도모하는 힐링캠프, 노인영화관람, 웃음치료, 성인식개선 교육, 운동회 등을 함께하며 지속적 유대관계 형성을 꾀한다.

그래도 미팅은 여전히 설레

어르신들을 설레게 하는 미팅은 세 차례. 첫 회는 지난 5월 8일 열렸다. 사랑의 작대기는 8커플을 탄생시켰고 나머지 7쌍 역시 차순위로 택한 상대와 짝을 이뤘다. 다음 미팅에서는 새로운 커플들이 만들어진다. 프로그램 룰이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을 넓혀보라는 복지관측의 배려다.

얼른 짝지 좀 바꿔달라는 의견부터 다른 사람 필요없다며 한 상대만을 고수하는 순정파 어르신까지 요구사항도 제각각이다. 복지관측은 수업에 관한 어르신들의 지나친 열기를 어떻게 식힐지 고민중이다.

프로그램 참석률은 100%. 80%를 넘으면 최우수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하기 마련인데 이 같은 수치는 복지관 개관이래 최초다. 본격 연애모드에 돌입하면서 교실은 말 그대로 '뜨거워' 졌다. 수업담당자는 짝궁 바라보기에 하염없이 몰두한 어르신들을 수업으로 불러들이려고 진땀을 뺀다. 가끔 손 좀 그만 놓으시라고 제재도 한다. 급속도로 상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외로웠다는 방증이다.

어르신간 남녀인식차이를 줄이는 것도 과제다. 가부장적인 제도하에 평생을 살아온 어르신들이 가진 고정된 성역할에 대한 인식차가 여기서도 드러난다. 복지관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직접 연극에 참여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표현하는 드라마치료를 준비중이다. 동료어르신의 심리에 함께 몰입하며 이해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리라는 생각에서다.

오랜만에 양복을 꺼내입고, 한복 옷고름을 단정히 맸다. 서로 말끔히 차려입고 수줍게 인사한지 한달. 어르신들에게는 요즘들어 복지관 가는 길이 가장 설레는 일이다. 외로움을 덜어낸 마음에 두근두근 로맨스 그레이가 피어나고 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사찰 장애인시설 확충방안 모색

조계종사회복지재단, 3차 미래 포럼 5월 26일 개최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불교계 지역사찰의 장애인편의시설 현황 및 확충방안' 을 주제로 미래복지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5월 26일 오후 3시,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6층 프로그램실에서 열린다.

그간 불자 장애인의 사찰 내 접근과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토론장이 마련됐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조석영 관장이 지역사찰을 방문하는 장애인들의 접근과 이용을 향상시키고자 지역사찰 내 장애인편의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장애인편의시설의 사례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어 장애인편의시설의 확충을 위한 제도적 노력과 산하 사찰에 대한 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방안도 모색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 스님은 "본 포럼을 통해 장애인들이 좀 더 불편 없이 사찰에서의 법회나 기도 등의 신앙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나아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은 장애인들이 삶의 여가를 위해 산중이나 도시에 있는 사찰을 방문 하여 불교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역시 "지역사찰의 편의시설 설치 확충은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며 "노인, 임산부, 어린이에서부터 문화재를 관람하는 일반인 및 외국인들까지 이용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일이다. 때문에 이번 포럼은 지역사찰관람의 편리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2014년 제3차 미래복지포럼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참가비는 무료며 신청은 5월 21일까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으로 하면 된다. (02)6334-2203

배현진 기자


장애인이 사찰에 마련된 경사로에 의지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종로노인복지관 분관 무악센터 개관

600명 대상으로 무료 문화교실 열 계획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 분관인 무악센터가 5월 16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복지관이 자체 소규모 분관을 설치한 것은 이례적인 일. 종로구 내 복지서비스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설립된 무악센터는 교남동, 사직동 거주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할 예정이다.

무악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 357평 규모로 컴퓨터실, 프로그램실, 휴게실, 다목적 강당 등을 갖췄다.

6월부터 개강하는 문화교실에는 인문학, 미술, 영어, 일본어, 프랑스문화, 체조, 무용, 다도 등 600명을 대상으로 21개반이 운영된다. 게다가 수강료는 무료다. 지역 소규모 복지관이라지만 프로그램 운영이나 수용규모는 타 복지관에 견줘도 손색없을 정도다. 그만큼 잠재수요층 요구가 상당했음을 방증한다.

무악센터 관장인 정관 스님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 개관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신노인 문화 중심 1번지를 만들어나가겠다"며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에 부응해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즐거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2012년 12월 착공해 1년 6개월만에 개관하게 된 무악센터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운영하며 운영법인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맡는다.


5월 16일 개관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의 조감도

배현진 기자

어르신 미술 재능 전시회

5월 20일, 뚝섬 자벌레에서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산하기관이 모여 서예, 사진, 미술 등 어르신 작품 총 40여점을 전시하는 '꿈을 심다' 가 개최된다.

전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한강 뚝섬 전망문화콤플렉스 자벌레에서 열린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 용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박준기), 중랑노인종합복지관(관장 심정영)이 연합해 어르신들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습득한 기술 및 실력을 엿볼 수 있다.

배현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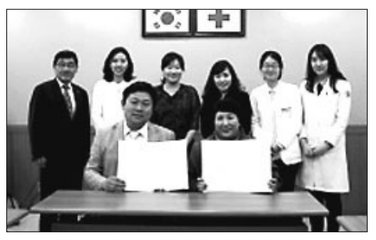
한부모가족 의료지원 대상자 모집

싱글맘 자녀 의료비 100% 지원 내용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한 서울-싱글맘! Smile Again(스마일 어게인)'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최저 생계비 180% 이하의 저소득 싱글맘 자녀(0세~만7세)들에게 의료비(외래비, 입원비, 간병비, 선택적 의료접종비) 및 장애자녀 의료보조기 구입비용의 본인부담금 100%를 전액 지원하는 의료지원사업이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지난 4월 30일 서울적십자병원 희망진료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앞으로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싱글맘 자녀를 발굴하고 서울적십자병원에서 대상자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제로투세븐 후원으로 대한적십자사 · 서울적십자병원 희망진료센터가 연계해 싱글맘가족 의료지원사업으로 진행된다. 제로투세븐은 유아복과 유아 스킨케어를 생산하는 회사로 '스마일 어게인' 사업에 3500만원을 후원했다.


서울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서울적십자병원 희망진료센터의 4월 30일 사업연계 협약식.

사업은 5월 15일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 연중 진행되며 매월 말일까지 대상자를 접수받는다. 대상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하면 된다.(02-861-3020). **배현진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6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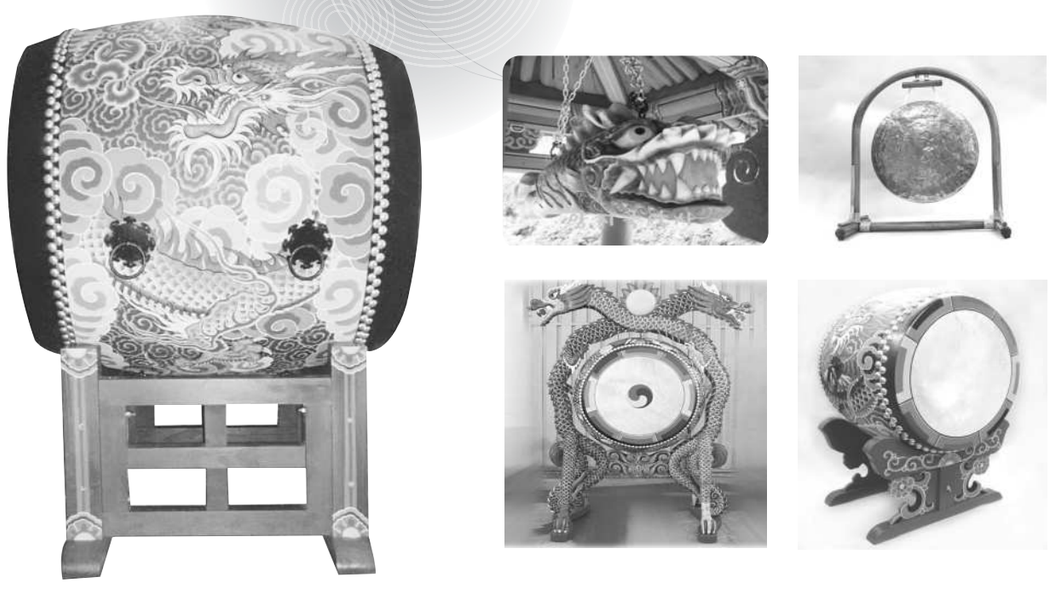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5월 중
◆ 개강일시 : 2014년 5월 중 매주 (월,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1시 ~ 2시 반
▶ 개강일시 : 2014년 5월 26일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게으름없이 혼신 다해 정진하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一得永得〈일득영득〉하여 如如不變〈여여불변〉이요,
微念不起動〈미념불기동〉이라.
大寂滅場中〈대적멸장중〉에서 遊戱自在〈유희자재〉함이
正眼宗師〈정안종사〉들의 悟后行履〈오후행리〉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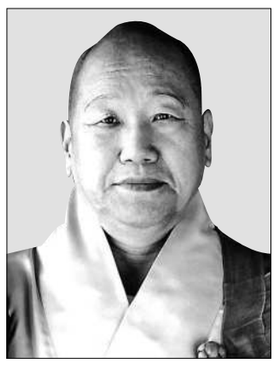
하나를 얻으면 길이 얻어서 여여하여 변치 않음이요,
티끌만큼의 생각도 일어남이 없음이라.
큰 적멸의 가운데에서 자재하게 놂이
정안종사들의 깨달은 후의 행리로다.

금일은 갑오년 하안거 결제일이라.

사부대중은 각자 자리에서 自己事(자기사)를 마치는 데 게으름이 없어야 함이로다. 우리가 사바세계에서 인간의 몸을 얻은 것은 다른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요, 오로지 生死(생사)를 요달하여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에서 영원한 안락을 누리고자 함이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생사를 요달하여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에서 영원토록 낙을 누리겠는가.

이미 話頭(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고?” 하고 이 화두를 들고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해야 함이로다. 일상생활 가운데 하루에도 천번 만번 챙기되 한 번 챙기고 간절한 의심을 쭈욱 밀어주고 또 챙기고 밀어주어 화두의심 한 생각이 흐르는 시냇물처럼 끊어짐이 없게끔 챙겨야 됨이로다. 화두의심을 끊임없이 밀어주라는 이유는 참의심이 발동이 걸리도록 하기 위함이니, 시골에 방앗간에서 아침에 방아를 돌리는데 처음에는 잘 걸리지 않다가도 꾸준히 방아를 돌리다 보면 문득 시동이 걸려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방아를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혼신을 다해 화두의심을 챙기다보면 문득 참의심이 일어 화두의심 한 생각에 푸욱 빠져서 사물을 봐도 보는 감각이 없고 소리를 들어도 듣는 감각이 없게 됨이로다. 그렇게 一念三昧(일념삼매)에 빠져 한 달이고 일 년이고 십 년이고 시간이 흘러가는 줄 모르고 흐르고 흐르다가 문득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남과 동시에 자기의 참모습이 밝은 대낮과 같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됨이로다. 〈중략〉



백장스님이 마조 선사 회상에서 侍者(시자)로서 시봉할 때에, 하루는 마조 선사를 모시고 산골의 들판을 지나게 되었다. 조용하던 깊은 산골 들판에 인기척이 나니 들오리들이 놀다가 푸울 날아갔다. 이를 보고 마조 선사께서 시자에게 물으시기를,

“저기 날아가는 것이 무엇인고?”하니, 시자가 “들오리 떼입니다.”하고 답하였다.

“어디로 날아가는고?”

“저 산 너머로 날아갑니다.”

시자가 이렇게 답하자마자 마조 선사께서 시자의 코를 꽉 잡아 비틀어버리셨다. 이에 시자가

“아야!”하고 소리를 지르니, 선사께서

“어찌 날아갔으리오!”하시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시자가 선사님을 모시고 절에 돌아와서는 방에 들어가 안으로 문을 잠그고, 먹고 자는 것을 잊고 勇猛精進(용맹정진)에 들어갔다.

“‘저 들오리가 어디로 날아가는고?’ 물으셔서 ‘저 산 너머로 날아갑니다.’ 라고 답하였는데, 어째서 내 코를 잡아 비틀고 ‘어찌 날아갔으리오.’ 하셨을까?”

이 의심으로 一念三昧(일념삼매)에 푸욱 빠져들었다가 일주일 만에 해결되었다. 마조 선사께서 어째서 코를 비트셨는지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곧장 조실스님을 찾아가 방 앞에서 “조실스님, 어제까지는 코가 아프더니 이제는 더 이상 코가 아프지 않습니다.”하고 말씀드렸다.

이에 마조 선사께서 백장 시자가 눈이 열렸음을 아시고 다른 시자를 시켜 雲集鐘(운집종)을 치게 하였다.

그리하여 수백 명 대중이 법당에 운집하여 坐定(좌정)하고 있고, 마조 선사께서도 법상에 올라 좌정하고 계시는 차제에, 마지막에 백장 시자가 들어와 마조 선사께 예삼배를 올리고는 절하는 배석자리를 돌돌 말아 어깨에 메고 나가버렸다. 이에 마조 선사께서도 즉시 법상에서 내려와 조실방으로 돌아가버리셨다.

正眼(정안)이 열리고 나면 이와 같이 척척 통하는 법이로다.

그러면 時會大衆(시회대중)은, 마조 선사께서 법상에 올라 좌정하고 계시는 차제에 백장 시자가 들어와 예삼배를 올리고 배석자리를 돌돌 말아 어깨에 메고 나가버리니, 마조 선사께서 법을 설하지 않고 곧장 법상에서 내려와 당신 방으로 돌아가 버리신 뜻을 아시겠습니까?

龍袖拂開全體現〈용수불개전체현〉이요
須彌倒卓半空中〈수미도탁반공중〉이로다.

임금이 용상 위에서 소매를 떨치니 전체가 드러남이요,
수미산이 반 허공 가운데에 거꾸로 꽂힘이로다.

“대용맹심으로 결제에 임하라”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법전 스님

〈상략〉

잉어가 용문폭포를 통과하면 용이 되지만 통과하지 못하면 올라가던 도중에 바위에 머리가 부딪혀 이마에 멍만 들고 맙니다. 이를 점액(點額)이라고 합니다. 선불장은 뱀을 용으로 만드는 등용문입니다. 선가(禪家)에서 견성하지 못한다면 바로 그것이 ‘점액’ 인 것입니다. 결제를 제대로 한다면 등용문이 될 것이요, 결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마에 멍 자국만 남는 점액문이 될 것입니다.

광운선사는 ‘용문에는 묵어가는 객이 없다’ 고 했습니다.

설두선사는 ‘용문에서 일찍이 묵었던 나그네’ 라고 하였습니다.

하안거 결제대중은 용문입구에서 쫓겨나는 객이 될 것이 아니라 용문에 입실하여 묵을 수 있는 객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용문의 객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한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래 앉아있는 것으로 살림살이를 삼는다면 결국 삼십대의 방망이가 기다리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본인 스스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결제철에는 반드시 공부를 해마치겠다는 대용맹심의 각오로써 임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자신만이 나를 구할 수 있다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

지금 이 도량에는 용사가 혼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일대사를 요달하기 위해서 모여 있겠습니다.

사상산四相山이 점고漸高하면
삼도해三途海가 익심益深이라.

옛날에 유생들에게 괄시 받을 때 공부를 훌륭하게 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새 와서는 모두가 대접받는데 몰입되어서 그야말로 제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안타까운 때에 놓여있습니다.

여러분! 귀가 있으시니 듣겠지요.

아무쪼록 이 위기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일대사를 요달하겠다는 분심을 가지고 이번 하안거 결제에 동참하고 있다고 봅니다. 크나큰 배신은 내가 나를 배신하는 것이 더 큰 배신입니다. 그러기에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요새 와서는 대접 받으려는데 급급해서 내가 나를 돌아볼 줄 모르는 바로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을 받들겠다는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 말씀은 등지고 내 이익에만 급급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끌어주겠는가? 여러분들 아니고는 아무도 구제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인천(人天)의 안목을 얻어서 아무쪼록 내가 나를 등지지 않는 장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철 용맹정진 하시길 바랍니다.

매화가 눈서리 겪어야 그 향기 코를 찌른다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

응연(凝然)한 한 물건이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홀로 가는 하늘과 땅에 달빛만 가득하도다. 파도 없는 바다위에 여룡(驪龍)이 뛰어 놀고 그림자 없는 산위에 사자(獅子)가 노는 도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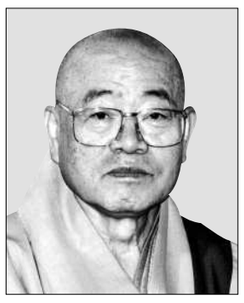
미(迷)한 꿈을 깨닫지 못하면 만사(萬事)가 실(實)답지 못함이니 저 칼날 위에처럼 다시 정신을 차려서 모름지기 삼요(三要)를 갖추라.

첫째는 대분심(大憤心)이요, 둘째는 대용맹심(大勇猛心)이요, 셋째는 대의정(大疑情)이니 위의 삼요는 솥의 삼발과 같아서 하나라도 궐(厥)하면 바로 서지 못함이라.

대도를 이루고져 하되 삼요를 갖추지 못하면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거와 같음이니 어떻게 근본을 얻으리요.

역수탱선필역량(逆水撐船筆力量)하고
여묘포서갈정성(如猫捕鼠竭精誠)하라
도불원인인자원(道不遠人人自遠)하니
매경상설비충향(梅經霜雪鼻充香)이로다

역수에 배를 저어 역량을 다하고



고양이가 쥐를 잡듯 정성을 다하여라

도는 사람을 멀리하지 아니하나 사람이 스스로 멀리하니

매화가 눈서리 겪어야 향기가 코를 찌르리라

무명의 길에서 무생 도리 찾아가라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祖意明明百草頭
春林花發鳥聲幽
朝來雨過山如洗
紅白枝枝露未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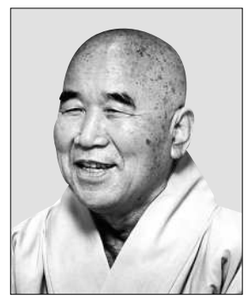
풀끝마다 조사의 뜻 분명함이여!
봄 숲에 핀 꽃 새소리 그윽하네.
아침에 비 뿌린 뒤 산은 씻은 듯하니
가지마다 붉고 희어 감출 수 없구나.
〈중략〉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을 잡니다. 이는 평상의 이치를 통해서 변함없는 도리를 깨우쳐주려 함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지당한 것들을 직시하는 것이 참 수행입니다. 바람이 불면 풀이 춤을 추는 이치와 같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며 밖으로 헤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사는 끊임없이 나를 핍박해 물러날 곳이 없게 하고 있습니다.

무명의 길 위에서 무생의 도리를 찾아가는 대장부 수행자답게 용맹심을 낼 때입니다.



진흙 속에 있어도 결코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잡다한 세상사에 망설이지 말고 오직 금생뿐이라는 굳은 마음으로 화두와 씨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편함 없으면 좋은 소식 있겠는가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이 時代를 살고 있는 工夫人들이 精進에 앞서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達磨血脈論에서 말씀하신 理入四行論이다. 즉 眞理에 들어가는 네 가지 중요한 행동이란 것이다.

첫째, 報怨行이다.

개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에게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서 상호 보완하므로 개체와 전체가 융통하게 하는 것이며,

둘째, 隨緣行 이다.

非行을 조심하고 德行을 행하여 서로 서로를 받쳐 주는 것이며,

셋째, 無所求行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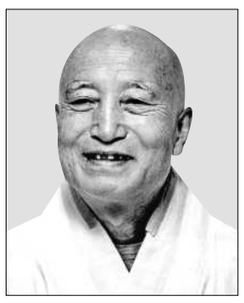
바라는 것이 없이 자비를 행하여 利他行을 하는 것이며,

넷째, 稱法行 이다.

佛祖의 규범을 실천하므로 人格體로서의 삶을 의미한다. 이 네 가지야말로 善의 綜合이며 도에 들어가는 初入이다. 도를 닦는 사람이 達磨祖師께서 말씀하신 四行을 떠나 달리 도를 닦는다는 것은 그대로 緣木求魚다. 실현 불가능하단 것을 명심해야 한다. 〈중략〉

이 工夫는 참으로 좋은 것이로되 어려움과 불편함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어떻게 좋은 消息을 기약하겠는가?

觀心一法是何事



迷雲破處月孤明
凡聖從來無二路
莫將邪見隨多道

마음을 관하는 한 법이 무슨 일인가
미혹의 구름 없어진 곳에 달만 우뚝 밝기만 하여라.
범부와 성인은 본래로 두 길이 아니거늘
삿된 견해로 이리저리 헤매지 마라.

“禪은 무궁무진의 寶藏”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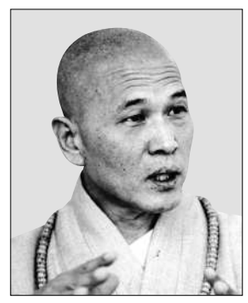
大乘一句 수행자들의 원력과 책임은 무한정으로 텅빈 소리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활 중에서 알게 모르게 方便示顯을 해야 합니다. 지난시절의 악각악습의 관념적 태도를 변화시키는 작업으로 자기개조를 통한 바탕에서 우리 모두 生活本身의 변화신이 되면 세상을 정토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대중을 위하여 일해야 즐겁고, 사랑은 헌신을 하여야 의미가 있으며, 금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 때 가치가 있음을 압니다. 수행자들의 饒益衆生이야 강조할 필요가 없겠지요. 이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때 진정으로 즐겁고 살맛나는 행복으로 통하는 생활이 됩니다.

인생은 차갑고 따뜻하고 달고 쓰며 성취하고 실패하며 많은 기회를 만나거나 잃게 되거나 일터와 놀이터에서, 그리고 배우는 상아탑이나 십자가두에서 고통스런 지옥문에서 뿐만 아니라 억천만사는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소위 禪의 경지는 진실자기 자주. 해탈. 안정. 희열이며, 선은 삶의 즐거움을 촉진하는 離苦得樂의 원천입니다. 선에는 지혜와 보물이 아주 많아 선이 있는 곳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중략〉

禪은 무궁무진의 寶藏(보물창고)입니다.

선은 바로 불보살의 가르침인 행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안과 밖에서 찾으려면 어긋납니다. 자기 진실행위의 결과인 것입니다. 화두선 그자체가 주인 됨이니 우리의 삶속에 스며들지 않는 곳이 없이 나타나는 결과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業識의 幻影이 아닌 일체처소와 모든일 가운데에 話頭禪行의 입장이 되니 八萬細行에 빛을 발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窮(막힘)과 達(통함)에 무애자재하게 할 것입니다.

다시 오지 않을 이번 철에 확실하게 챙기십시오.

본성은 나지도, 소멸하지도 않는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일체법이 나지도 않고(一切法不生)
없어지지도 않나니(一切法不滅)
만일 스스로 이 이치를 알 것 같으면(若能如是解)
모든 부처님이 항상 나타나리라(諸佛常現前).

이것은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진정한 참나, 즉 본성은 불생불멸(不生不滅)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일대사 가운데서 큰 변수 중 하나가 삶과 죽음에 대한 고뇌일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둘이 아닌 하나로 보고 생사해탈(生死解脫)의 경지를 말하며, 우주 만법이 불생불멸(不生不滅)이고, 상주불멸(常住不滅)한다, 즉 〈법화경〉에도 ‘불생불멸하는 이 법이 어디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습 이대로 항상 있는 것이다(是法住法位 世間相常住)’ 라고 한 것처럼 이 우주는 항상 머물러 있는 법의 세계(常住法界)라고 합니다.

이 사실은 자연계의 구성이 불생불멸의 원칙으로 되어 있다고 현대원자물리학계에서도 이미 규명한 이론입니다. 즉 이 자연계는 에너지(무형의 움직이는 힘)와 질량(유형의 물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결국 형태는 변화해도 질량은 없어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계를 구성하고 있는 존재 전체가 다 있는 그대로 불생불멸(진여의 작용)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자연법이(自然法爾)에도 불구하고, 미혹한 중생들의 문제는 〈수심결〉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요즘 사람들(今之人)은 미하게 지나온 것이 오래 되어(迷來久矣) 자기의 마음이 참 부처인 줄을 모르고(不識自心是眞佛), 자신의 밝은 성품이 참다운 진리인 줄을 모른다(不識自性是眞法).’ 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알음알이(見聞覺知)가 아닌 성품을 바로 들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한 눈 밝은 공부인이 드물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심결〉에는 또 다른 경책의 말씀으로 ’ 다만 모르는 줄 알면 그것이 바로 견성이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수행인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알 것 같다거나, 아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 오히려 위험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중략〉

결론적으로 참된 공부인은 육신의 생사는 존재하지만, 본성은 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확연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면 생사를 초월해 있는 진아(眞我)인 본래 성품은 현현히 빛날 것입니다.

萬法皆空明佛性 (만법이 모두 공하다 함은 불성을 밝힌 것이요)

一塵不染證禪心 (한 티끌도 물들지 않는다 함은 선심을 드러냄이라)

身在上方諸品靜 (몸을 상방에 두니 모든 사물 고요해지고)

心持半偈萬緣空 (마음에 반구절 게송만으로도 모든 인연 쉬어지네.)

지면 구성상 법어의 전문을 싣지 못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불교 정착에 민간 포교사 활약"

불광연구원 '중국불교의 전법정신과 전법론' 세미나에서

인도에서 발생한 외래 종교였던 불교가 중국에서 어떻게 민간에 정착될 수 있었을까. 그 이면에 다양한 능력을 지닌 민간포교사들의 활약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불광연구원이 5월 10일 서울 불광사 교육원에서 개최한 '중국불교의 전법정신과 전법론' 학술연찬회에서는 중국전법과정에서 민간포교사들의 역할이 조명됐다.

이날 김성순 금강대 HK연구교수는 '중국의 민간불교결사와 전법사들' 발표를 통해 중국불교 전법과정에서 민간포교사들의 역할을 소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위진남북조시대에는 경사(經師), 복강사(覆講士), 창도사(唱導師), 유행승(遊行僧) 등 다양한 전법사와 스님들이 있었으며 민간포교가 급속히 진전된 수당시대에는 설법사(說法師) 등의 전문포교사가 배출됐다. 또 각 마을마다 신앙결사조직이 있었으며 그 조직에는 최소 1명 이상의 포교를 위한 포교사들이 있어 마을마다 다니며 전법활동에 매진했다.

김 교수는 "남조에서는 팔관재회 등에 반드시 창도사가 초청돼 뛰어난 말재주로 비유와 인연담을 섞어 평이하게 불법을 설명했다. 재회에는 경사도 초청돼 경사가 전독을 하면 창도사가 설명하는 형식으로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는 스님들 외에도 민간 전문강설자가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창도사의 경우 설법뿐만 아니라 음악에 소질을 갖고 있어 음성으로 민간의 종교적 감성을 어루만져 준 사람들이었다"고도 소개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포교사들이 풍부한 성량 등으로 범패와 전독(轉讀)에도 능했으며 불교경전 외에도 사서와 유교, 시에도 달통한 사람들이었음을 밝혔다.

복강사 · 창도사 등 전문 계층 발달
수 · 당시대 마을마다 신앙결사 조직
"전법정신 고찰 · 방법론 배우자"

김 교수는 이와 함께 북조에서는 사찰 중심의 전법이 아닌 민간 도읍 중심의 전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북방지역의 경우 민간교화를 위해 노력했던 결사조직인 의읍과 그 활동가인 읍사가 있었다"며 "조직 안에 1명 이상의 승려가 있으며 여러 마을을 순회하며 교회활동을 전개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종래의 의읍은 사원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친목과 신앙공동체였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사읍으로 변화하며 그 중심에 사원이 존재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사원의 승려들의 역할도 종래의 읍사들과 달리 사원에 정주하며 포교하는 것으로 변모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결국 북송대 이후부터 의읍의 족적이 중국불교사에 사라지며 법사의 형태는 승려들의 지도를 받는 불교결사로서 명맥을 이어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이들은 공덕신앙을 발달시켰으며 돈황과 용문, 운강 등 석굴과 각종 조상, 불화 사원 등을 우리에게 남겨준 주체"라며 "이들의 모습을 오늘날 되살리는 것은 불교의 생명력을 살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불광연구원 이사장 지홍 스님은 인사말에서 "전법은 단지 불교의 교세를 널리 펴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역대 전법사들의 정신을 고찰하고 그 방법론을 탐구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은영 금강대 HK교수의 '역경과 찬술을 통한 전법', 석길암 금강대 HK교수의 '변문을 통한 대중전법', 이병욱 고려대 강사의 '종파불교의 전법정신과 전법론' 도 각각 발표됐다.





김성순 금강대 교수(사진 왼쪽)는 5월 10일 서울 불광사에서 열린 전법론 세미나에서 중국에서 불교가 정착되기까지에는 민간포교사들의 역할이 컸으며 이들의 역할을 현대불교계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청화사상연구원, '염불과 선' 학술세미나

5월 23일, 동국대 문화관 2층 학명세미나실

청화사상연구원(원장 박선자)은 5월 23일 오후 1시 동국대 문화관 2층 학명세미나실에서 청화사상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염불과 선-염불선의 성립과 전개'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준호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연구원의 '초기와 부파불교에 나타난 염불과 선' △박경준 동국대 교수의 '대지도론에 나타난 대승의 염불과 선' △최동순 동국대 연구교수의 '무주당 청화 스님의 천태교관 이해'가 발표된다.

토론자로는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법상 스님, 양승규 동국대 박사, 이병욱 고려대 박사가 각각 나선다.

박선자 청화사상연구회장은 "염불선은 동아시아 불교를 넘어 인도불교의 수많은 경론에서 찾을 수 있는 불교수행의 근본이며 중심수행법"이라며 "오랜 불교역사에서 전개돼 온 다양한 수행전통 중 염불선을 재인식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현대과학과 생명'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회장 이진오 · 조수동)는 5월 24일 부산대 인덕관 대회의실에서 '현대 과학기술과 생명'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원자핵 개발과 생명의 위기에 대한 불교적 관점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게 될 이번 춘계학술대회에는 △김익중 동국대 교수가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그 대안적 과제', △법현 스님이 '불교적 관점에서 본 원자력과 생명, 그리고 평화',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가 '한국사회의 에너지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불교윤리적 대안', △윤종갑 부산대 교수의 '현대 과학기술과 생명의 위기에 대한 불교적 조망'를 각각 발표한다.

노덕현 기자

한국선학회 '선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한국선학회(회장 이덕진)는 6월 13일 서울 우리는선우 법당에서 '선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선어록을 연구하고 논문화하는 과정 속 현대적 번역에 대한 중심을 잡기 위한 이번 대회에는 △신규탁 연세대 교수의 '백파긍선의 〈선문수경〉에 나타난 선어용례 연구' △동국대 영석 스님의 '〈선문염송 집설화〉에 나타난 선어' △동방대학원대 인경 스님의 '평상심에 대한 비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영식 동국대 HK연구단 연구원의 '昭昭靈靈 개념의 변천에 대해' 등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불교학연구회 '불교 과문(科文) 전통'

불교학연구회(회장 조은수)는 5월 24일 오전 10시 서울대 인문대학 신양학술정보관 302호 국제회의실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불교의 문헌해석학과 과문(科文)의 전통'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연구원 심원스님의 '과문과 회본(會本)' △김주경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연구원의 '과문을 통해 본 경제석(經題釋) 변천' △명법 스님의 '능엄경 과문에 나타난 주석적 관점의 비교' △이태승 위덕대 교수의 '티베트 불교의 주석 전통' 등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인도철학회 〈인도철학〉 40집 발간

인도철학회(회장 이지수)는 최근 〈인도철학〉 40집을 발간했다. 이번 40집에는 △권오민 박사의 '上座슈리라타의 一心' △박청환 박사의 '아빠랄라나가(Apalaga) 이야기를 통해 본 불교 내러티브 연구' △석길암 금강대 교수의 '화엄경의 편집의 사상적 배경에 대한 고찰' △안환기 서울대 교수의 '담론(談論)그리고욕망__유식사상과푸코의이론을중심으로' △정승석 동국대 교수의 '요가철학에서 거론하는 소지성(vedyatva) 개념의 함의(含意)' 등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성보문화재 3점 보물 지정

인제 봉정암 오층석탑 · 의성 대곡사 대웅전

성보문화재가 대거 보물로 지정예고 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5월 12일 인제 봉정암 오층석탑을, 15일 의성 대곡사 대웅전을 보물로 지정예고 했다. 아울리 지난 4월 보물로 지정예고 된 기장 장안사 석조석가여래삼불좌상은 보물 제1824호로 지정됐다.

봉정암 오층석탑은 설악산 소청봉 아래 해발 1244m 높이에 위치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석탑으로 만해(1879~1944) 스님이 1923년 쓴 〈백담사 사적기(百潭寺 寺蹟記)〉의 '봉정암 중수기(1781년)'에 따르면 신라 자장 율사가 당나라에서 모셔온 부처님 사리 7과가 봉안돼있다. 봉정암은 이 탑의 사리로 인해 5대 적멸보궁(寂滅寶宮) 중 하나로 꼽힌다.

조형적인 특징으로는 거대한 자연 암석을 기단으로 삼아 그 위에 올린 탑신석을 올렸다. 이는 고대의 일반형 석탑이 고려 후기에 단순화돼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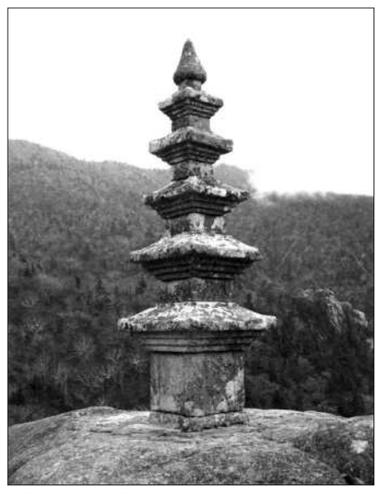
15일 지정예고 된 의성 대곡사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 1687년(숙종 13) 태전 스님이 중건했다.

대곡사 대웅전은 의성 지역 불교사찰이 부흥하기 시작한 시대 양식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써 건축사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다. 대웅전의 정면과 양 측면의 기둥 아래에는 마루가 설치됐던 것으로 보이는 큰 구멍이 있는데 불전 정면에 마루를 둔 구조나 배면의 영쌍창은 18세기 이전 건물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는 고식(古式)이다.

의성 대곡사는 고려 공민왕 17년(1368) 지공 스님이 원나라와 고려를 다니면서 불법을 펼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은 절이라 전한다. 창건 시기는 이규보의 '대곡사 탐방시구(探訪詩句)' 등의 자료를 근거로 신라 말에서 고려 초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아직 유구 등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보물 지정이 확정된 기장 장안사 석조삼불좌상은 17세기 중엽 녹원(鹿元) 스님이 수조각승(首彫刻僧)을 맡아 1659년에 경주지역에서 출토되는 불석(沸石)으로 제작한 불상으로 17세기 중후반 불교 조각사 연구의 기준으로 꼽힌다.

노덕현 기자



봉정암 오층석탑

영주댐 수몰 예정지에 보물급 성보문화재 출토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인 한국문물연구원은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건설단 의뢰로 수몰예정지인 영주시 평은면 일대를 발굴조사한 결과, 고려시대에 금강사(金剛寺)라 불린 사찰 흔적을 발견했다. 여기서 광명대(촛불과 등불을 받치는 기구)와 양류관음보살 새김 경상(鏡像) 등의 불교공양구 등 고려시대 유물을 다량 확인했다.

이 중에서 광명대는 제작 시기와 동기 등을 확실히 밝혀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제작 시기와 내력을 기록한 고려시대 광명대는 동국대박물관과 한독의약박물관에 소장 중인 원주 법천사지 유물을 비롯해 몇 점이 남아 있지만, 확실한 출토품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발굴조사가 완료된 후 학술자문회의, 전문가검토회의 등을 거쳐 보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법당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힘차고 장엄한 소리에 놀라실 것입니다!!

(소리가 마음에 안들 경우 대금은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절 설치비 : 1,80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불자님들께서 주지스님께 올리는 최고의 보시품

(구입하시는 불자님들께는 보시자의 이름을 하단에 넣어드림)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어떤 오래된 앰프에 사용해도 뛰어난 소리가 납니다!!

■ 멋진 모양의 마이크로 법당의 품위를 높여줍니다.



가격 : 2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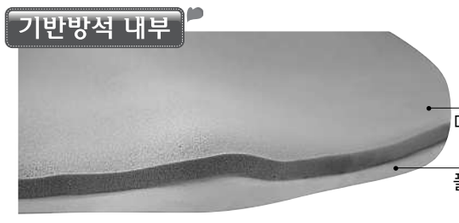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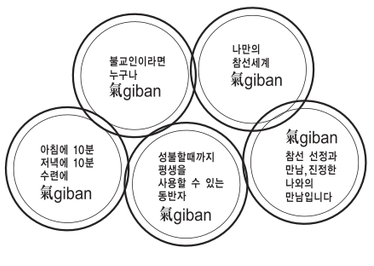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선교사 별장 문화재 추진… 종교편향 논란

사료 가치 충분 對 자연환경 훼손

해발 1200m 위치 왕시루봉 별장
2009년 이어 문화재등록 재시도
화엄사 등 지리산 6사찰 반대 성명
종교시설 확장과 선교활동 우려

일부 기독교 단체가 지리산에 선교사 별장을 문화재등록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남 구례 화엄사(주지 영관)와 지리산 권역 5개 전통사찰들은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 "선교사 별장이 자연환경을 훼손할 가능이 매우 큰 건물임을 명확히 인식해 이를 조속히 철거하라"는 성명서를 5월 9일 발표했다. 이어 문화재청에 대해서는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의 등록문화재 등재시도와 관련한 일체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지리산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은 구한말 외국인 선교사들이 건립한 곳으로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됐으나 1962년 휴 린튼(한국명 인휴, 1926~84) 선교사가 다시 재건, 현재 집 10채와 교회 1채, 창고 1채 등 총 12채가 남아 있다. 현재는 서울대 학습림 구역에 속해있다.

기독교선교유적지보존연합(이사장 인요한)은 2009년에 이어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을 등록문화재 등재요청 추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지난 3월 19일에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와 지리산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 보전 및 운영을 위한 신탁협약을 맺었다. 일각에서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관련 단체, 지역사회 등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존 지정한 데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독교선교유적지보존연합 이사장 인요한씨 아버지는 휴 린튼이다.

화엄사, 쌍계사, 연곡사, 천은사, 실상사, 대원사 등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국가시책에 동조해온 기존 입장을 철회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지리산 권역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행환경 제약에도 불구하고 국가시책에 호응해 왔다"며 "사찰 소유지내 역사적 유물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작업을 통해 불교유적에 대한 복원불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은 이미 2004년에도 문화재 가지정을 신청했으나, 전라남도 문화재위원 최종 심의 결과 지정 부결된 적이 있다.

지리산 전통사찰들은 "지리산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의 등록문화재 지정 시도는 민족의 성지이자 절대적인 자연보존구역인 지리산의 환경을 심각히 훼손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즉시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 철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9년에도 불교계와 시민단체가 반대하여 좌절된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에 대한 등록문화재 등재 재시도는 일부 정부기관의 무사안일한 행정집행과 이에 편승한 일부 기독교 단체의 무분별한 선교활동의 결과물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며 이에 엄중히 대처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 모임도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에 대한 등록문화재 지정 움직임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지리산국립공원 왕시루봉 일대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리산국립공원 중에서도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따라서 선교사 별장 철거 후 자연경관 회복, 고유 식생으로의 복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리산기독교선교유적지보존연합'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


지리산 왕시루봉에 위치한 선교사 별장. 현재는 폐허 상태로 12채가 남아 있다.

'경허로' 지정, 5월 23일 도로명판 제막식

서산 천장사(주지 허정) 진입로가 경허선사를 기리는 뜻에서 경허로(鏡虛路)가 지정됨에 따라 고묵농공단지 사거리에서 5월 23일 도로명판제막식이 열린다. 경허로는 천장사 입구에서 신송리까지 5km 구간이다.

서산시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지난 5월 7일 고북면 신송리~장요리까지 3.8km 구간을 경허로로 명명했다. 나머지 1km는 천장사 입구로 올라가는 길이다.

천장사 주지 허정 스님은 "경허로는 충남의 불교 관련 첫 명예도로명"이라며 의의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전국에 이름난 스님 법명을 딴 도로명은 몇 군데 더 있다. 서울에는 원효 스님을 기리는 원효로가 있으며 충북 서산시 간월암 근처 무학로, 전남 화순 진각로, 경북 영주 의상로, 강원도 홍성 만해로가 도로명으로 지정돼 있다.

명예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해 5년마다 심의를 거쳐 재지정된다. 도로명주소 안내지도에는 법정 도로명과 함께 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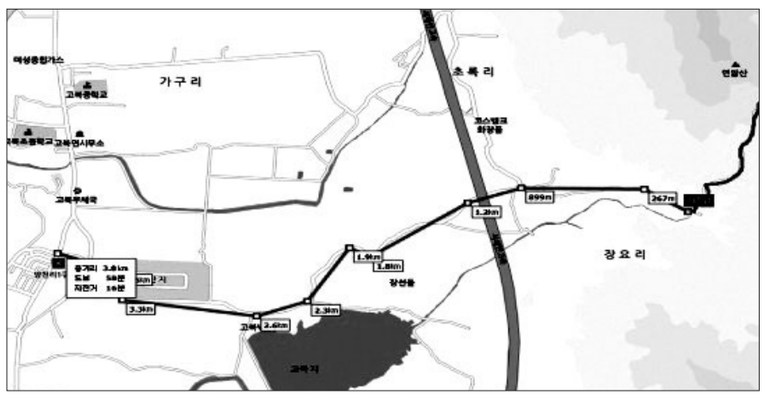
경허로 지정에는 허정 스님의 남다른 노력이 있었다. 스님은 신도 130여명과 함께 기존에 '고수관로'로 명명된 천장사 진입로를 '경허로' '천장사로'로 바꿔줄 것을 서산시청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심의에서 부결됐고 올해 1월 명예도로명을 신청해 경허로를 통과시켰다.

천장사는 경허 선사 열반 102주기에 맞춰 경허로 제막식과 함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경허 백일장'을 개최할 계획이다.

허정 스님은 "경서 스님의 제자인 수월, 혜월, 만공 스님 등에 대한 스토리 텔링으로 교육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국불교의 중흥조로 불려지는 경허선사는 천장사에서 오랜 기간 수행하며 머문 바 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서산 신송리~장요리까지 경허로로 지정된 천장사 길.

군산 교도소 여성 재소자 선운사 방문 체험

법만 스님, '팔정도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 달라' 당부


법만 스님이 선운사를 방문한 군산교도소 여성 재소자들에게 팔정도 실천을 당부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영어(囹圄)의 몸이 되어 군산교도소에 복역중인 여성재소자들이 산사를 찾아 참회의 시간을 가졌다.

군산교도소(소장 김정선)는 5월 12일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에서 사회적응프로그램과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만기 출소를 앞둔 여성재소자 8명은 선운사를 찾아 참회의 절을 올리고 지난날의 과오를 참회했다.

또한 도량 곳곳을 함께 청소하고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하면 범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를 기원했다.

법만 스님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가장 확실하게 실천하는 것이다"며 "건강한 모습으로 출소하게 되면 팔정도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사회견학프로그램을 주선한 성광문 법무부 광주교정연합회장은 "여성불자들이 형기를 무사히 마치고 출소 후에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신 군산교도소장은 "수용자의 사회처우 일환으로 사회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며 "수용자들의 교육과 프로그램 진행에 협조해준 선운사 주지스님 이하 여러 대중스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선운사는 정기적으로 군산교도소의 법회를 주관하고 있으며 매년 부처님오신날에는 불자재소자들을 위해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동국사, 3.1절 기념 백일장 시상식

이치노헤스님, 금광초등학교에 장학금 전달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이 백일장 시상식에서 학생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3.1절을 기념해 군산 동국사(주지 종걸)가 주최한 백일장 시상식이 5월 14일 금광초등학교(교장 주광순) 강당에서 열렸다.

동국사와 금광초등학교는 지난 4월 일제 강점기 일제의 조선침탈을 고발하는 기획전 '조선총당에는 신사가 있었다'를 관람한 금광초등학교 어린이들과 병설유치원생 대상으로 백일장을 진행했다.

아이들은 일제 강점기의 참혹상을 직접 체험하고 느낀 감상을 다양한 글로 표현했다. 최우수상인 백범상에는 5학년 조혜경 어린이가 차지했고 우수상인 안중근상에는 김민음어린이가 수상했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는 동국사 지원모임 회장인 일본 운상사 주지 이치노헤 쇼코 스님이 직접 방한해 금광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치노헤 스님은 "지난 침략의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과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종걸 스님은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자라 정의로운 한국의 큰 기둥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치노헤스님은 이번 방한길에 1938년 발행된 '조선총독부 경찰강습소' 졸업앨범을 비롯한 여러 점의 사료를 동국사에 기증했다.

그동안 동국사는 이웃의 금광초등학교에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에게 급식비를 후원해 왔다.

한편 동국사에 전시중인 일제침탈 기획전 '조선총당에는 신사가 있다'는 연인원 2만여명이 관람했으며 오는 6월까지 전시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여수 청암사, 광주소년원생에게 자비행

여수 청암사(주지 지암)가 사찰순례 일환으로 소년원을 방문해 자비행을 펼쳤다.

청암사 스님과 신도 50여 명은 매월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고용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를 5월 11일 방문, 소년원생 163명을 포함해 교직원 및 봉사자 등 200여명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특히 광주소년원은 최근 세월호 참사로 인해 많은 도움의 손길이 줄어든 가운데 이날 청암사 대중들은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소고기, 밥, 반찬 4종류의 푸짐한 점심을 마련해 소년원생들의 환영을 받았다.

지암 스님은 인사말에서 "거창하게 큰 준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신도들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모았다"며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맛있는 밥상을 마련해 아이들에게 주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청암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소년원생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월 신도들이 소년보호위원으로서 소년원생과 1대 1 멘토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학금 수여는 물론 나들이행사, 식료품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광주소년원인 고용정보산업학교에서 5월 11일 급식 자비행을 펼친 여수 청암사 신도들과 주지 지암 스님

한편 한때 '광주소년원'이라 불렸던 고용정보산업학교는 전국 10개 청소년 교화시설 중 직업교육 특화학교로, 현재 17세 이상 19세 미만의 200여명의 학생들에게 자동차 정비와 자동화용접, 건축환경설비, 중장비운전 등 4개 부분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빙의 퇴마 전문가 과정 강의

1 빙의환자는 천도재나 구병시식을 해도 해결되지 않으며 반드시 퇴마 후 퇴마한 영가와 조상천도재를 해야 합니다.
2 이십여년간 연구하고 퇴마해 온 경험과 비법으로 오로지 제행스님만이 할 수 있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3 상담에서 퇴마까지 실제로 사용한 강의로 배우면 누구나 퇴마 전문가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제행스님 직접강의 및 퇴마, 사주, 작명, 예약상담과 출장퇴마 합니다.
책 구입 : 농협 552-01-047918 비룡정사 (정가 13,000원)

● 개 강 : 6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4회 과정)
◇참가비 : 200만원 (정원 5명 선착순. 통화 후 접수)
특전(1) : 수강생 전원에게 1회씩 무료출장 퇴마해 줌으로 해서 배운 되로 하면 된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주겠습니다.
특전(2) : 배우려는 의지만 있다면 퇴마를 할 수 있게 끝까지 책임지도 하겠습니다.

● 지방 참가자를 위한 2일 단기집중 강의 과정 신설
◇개 강 : 6월 2일 월요일부터 2일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개인지도 수시모집 : 퇴마 심리상담. 사주(기문둔갑). 작명)

장 소 : 서울 서초구 방배1동 923-6번지 아크로타워 (주차가능)
서울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출구
전 화 : 011-772-4606 제행

전통식품교육사

전통식품교육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전통식품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전통식품교육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전통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목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제 기 동 02-966-0020 | 창 원 055-243-6333 | 호 남 063-288-5623 |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 울 산 052-260-1037 | 충청북부 043-263-9966 | 대 구 053-566-1116
강원서부 033-252-3682 | 경 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방과후 명상수업 열기 '후끈'

부산 해운대 시선원, 방과 후 명상수업

부산 해운대 명상센터 시선원(원장 우현)이 초 · 중 · 고 학생들에게 명상을 통한 마음치유와 생활 교육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선원 우현 원장은 마음챙김을 통한 명상훈련을 통해 학생들에게 마음의 안정과 명상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우현 원장은 2003년부터 불교 교리 공부와 수행을 병행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대인의 생활과 마음 치유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후 2008년 부산 해운대에 심신 건강 증진을 위한 명상센터 '시선원' 을 열었다. 그후 불교공부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을 위해 과학적 명상방법인 'K-MBSR(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대인의 삶에 불교가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초 · 중 · 고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으로 우현 원장이 직접 학생들의 '명상 수업' 을 지도하고 있다.

약 1시간 동안 이뤄지는 강의에는 종교와 무관한 일반 학생들을 배려해 종교적인 내용을 배제하고 불교 명상의 특징인 '마음챙김' 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마음챙김은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명상 훈련으로 불교의 참선과 흡사하다.

부산 초중고 학생들에게 마음챙김 명상 지도 스트레스해소 · 집중력 강화

시선원의 명상은 가만히 앉아서 집중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고려해 앉아서 깨우치기, 걸어서 깨우치기 등 다양한 신체 동작이 함께 이뤄진다. 학생들에게 호흡과 걸음걸이, 손 들기 등 신체 동작에 집중해 보라고 권유한 후, 그 순간에 '깨어있음' 을 알아차리게끔 하는 프로그램이다. 부산 운봉초등학교, 명호고등학교, 교대 부속초등학교 등 여러 학교들이 이미 시선원의 학생 명상 프로그램에 참가했으며, 학생들에게 집중력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어 많은 학교들이 시선원의 '명상 수업' 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시선원은 현대인의 마음을 챙길 수 있는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매주 월 · 화요일에는 삶과 진리에 대한 통찰을 일깨우는 불교 경전 수업, 매주 목 · 금요일에는 현대인을 위한 활력충전과 스트레스 해소에 초점을 맞춘 명상수업, 매주 일요일에는 과학적인 마음챙김 명상과 심신이완의 목적인 MBSR 명상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051)746-7611

김나영 객원기자


시선원은 초 · 중 · 고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으로 명상수업을 진행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깨어 있어야 행복합니다"

시선원 우현 원장



우현 원장〈사진〉은 이론과 실천이 없는 불교는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는 것과 실천을 함께 하기 위해 시선원 센터를 건립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불교에 귀의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현대인들이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고, 불법이 세상에 널리 보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된 일이다.

또한, 우현원장은 현 시대의 아이들의 '힘듦' 을 놓치지 않았다.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명상수업을 지도하는 우현 원장은 "현 시대의 학생들이야말로 마음을 챙기는 수행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일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재의 순간에 의식의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노력은 정신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주의력, 집중력, 기억력이 강화되어 학습에서도 뛰어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게 된다. 화가 나고 짜증났던 일을 객관적으로 봄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되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며 학생들을 위한 명상 참여의 장점을 밝혔다.

이어 우현 원장은 "현재에 깨어있는 것은 성인은 물론 학생들에게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열쇠로, 이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만들 수 있다"며 지속적인 명상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아울러 "학문적인 교육에만 치우치다 보니 꼭 필요한 바른 인성과 건강한 정신을 위한 교육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오로지 자신 만을 들여다보는 명상 수업이 학생들의 마음치유와 더불어 올바른 성장의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명상의 중요성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당부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부산의 청년들, 노인학대예방 나선다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대학생행복지킴이단 전문교육

부산광역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대학생 자원봉사단이 5월 9일과 16일 각각 '제8기 대학생 행복지킴이단' 전문교육을 수료했다.

참가자들은 피해노인전용쉼터에서 학대로 고통을 받는 어르신들을 치료하기 위한 교육을 받았다. 그 내용으로는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나들이 및 문화체험 등의 봉사를 위한 전문교육이 포함돼 있다.

제8기 대학생행복지킴이단은 6월초부터 부산 지역 내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온라인모금포탈사이트(네이버 '해피빈', 다음 '희망해' 등)에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지원을 주제로 온라인모금함을 개설 대중들에게 나눔 문화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한편,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인식개선을 위한 효(孝)카툰전' 도 연다. 부산도시철도 3호선 물만골역 인권전시관에서 5월 19일~30일 열리는 이 전시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가족의 의미와 효(孝)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실시된다. 이 전시에서는 부모의 은혜, 할머니의 힘, 삼대 등 노인공경과 부모에 대한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051)867-9119

정혜숙 기자


부산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대학생 봉사단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정해학당 불자회 창립, 첫 시민 강좌

'불교의 깨달음과 효사상' … 5월 24일 부산일보 강당서

재가자들을 중심으로 경전, 참선 수행을 이어온 정해학당이 정해학당 불자회를 창립하고 제 1회 정법 시민강좌를 개최한다.

정해학당 불자회는 부산과 안동의 정해학당 회원과 안동 보경사(주지 오경스님)에서 열린 여름, 겨울 경전 수련회 참가자들이 함께 뜻을 모아 만든 재가 불자들의 모임. 전국의 재가 불자 50여명이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정해학당 불자회는 창립 첫 행사로 부산에서 시민 강좌를 연다.

5월 24일, 부산일보 10층 소강당에서 '불교의 깨달음과 효사상'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첫 시민강좌를 시작으로 전국 투어 강연을 열어 나갈 방침이다. 정해학당불자회의 시민강좌는 스님들에 의한 법회 중심이 아닌, 재가불자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강좌 형식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대중들의 일반 생활 속에 살아 있는 가르침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어서 불교의 대중화에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사)효(孝) 문화지원본부와 공동주최로 열리는 시민강좌에서는 정해학당 원장 오경 스님의 '불교의 깨달음' , 오형근 동국대 명예교수의 '한국 원효선의 특징' 양은용 원광대학교 명예 교수의 '현대사회와 불교의 효사상' 박화문 대구대학교 명예교수의 '원효의 화쟁 사상' 등의 강연이 펼쳐진다. 정해학당 원장 오경 스님은 "이번 강연회가 불교의 깨달음이 효와 별개가 아니라 인륜의 근본이 되는 효가 왜 중요하며 깨달음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불교적 관점에서 풀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해학당 불자회 초대 회장을 맡은 박화문 대구대 명예교수는 "유식 30송에 대한 집중 강의로 진행됐던 올 2월 겨울 수련회에 참가했던 분들이 불교 가르침을 더 널리 펴는데 힘을 모아 보자는데 뜻을 같이 하게 돼 모임을 만들게 됐다"면서 "어렵고, 먼 불교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살아 숨 쉬는 불교, 일상에 접목되는 불교 가르침을 펴기 위해 시민강좌를 열어 나갈 것이며 올 가을 서울 조계사 강연을 구상 중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국을 돌며 강연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천태종 삼광사 소외이웃에게 사랑의 쌀 전달

네이버 해피빈 캠페인 참여, 10개 단체 선정

부산 천태종 삼광사(주지 무원) 봉사단체 '힐링광장' 이 네이버 해피빈 캠페인으로 부처님의 손길이 필요한 10개의 단체에 쌀 108kg을 각각 전달했다.

삼광사는 5월 14일 삼광사 대웅보전 앞 도량에서 각단체를 대표한 강원도 인제군 임마누엘집(원장 김경식 목사) 관계자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

삼광사 힐링광장의 네이버 해피빈 캠페인은 4월 22~5월 5일까지 도움이 필요한 단체들의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았으며 아동청소년단체, 보육원,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단체,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단체 등 해피로그(네이버 모금 공익단체)에 가입한 여러 단체들이 이번 삼광사의 해피빈 캠페인에 참여했다. 그 중 '임마누엘집' 은 중증장애인 5명이 생활하고 있는 체험홈이 있으나 운영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캠페인의 대상으로 가장 먼저 선정됐다.

주지 무원 스님은 "부처님은 수행하는 사람의 마음은 땅과 같아야 한다. 나쁜 것을 받거나 좋은 것을 받더라도 조금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오직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중생을 대하여야 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덧붙여 무원스님은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고 하나 이웃들이 조금씩 낸 마음으로 이렇게 자비가 세상에 펼쳐지고 있다"며 네이버 해피빈 캠페인에 동참해준 사부대중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삼광사 사랑의 쌀 전달식

대구 대성사 부처님오신날 전야 세월호 희생자 추모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류화산)는 5월 5일 부처님오신날 전야 봉축점등식을 열었다.

세월호 희생자 추모 대법회와 함께 열린 이날 행사에는 팔공총림 조계종 제9교구 성문 주지스님, 진각종 대구교구청장 정효 정사,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장 선지 스님, 법화종 대구교구장 도광 스님, 불교방송 이채원 사장, 조계종 9교구 류병선 신도회장, 지역기관장, 단체장 등 사부대중 2500여명이 동참했다.

사부대중은 "진도 앞바다, 암흑같이 어두운 차가운 바다 속에서 두려움에 떨다 지쳐 쓰러져 갔을 우리 아이들의 못 다핀 영혼들에게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모두가 한줄기의 등불이 되기를 두손 모아 간절히 기도드린다"며 추모의 마음을 전했다.

류화산 주지스님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심의 참뜻은 탐욕과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다. 기성인들이 참회하여 생명의 가치를 알고, 자비의 삶을 실천하는 보살도의 삶을 실천하자"고 서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성사 점등법회 장면

영산불교 현지사 영산불교대학에서 5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영산불교는 왜곡되고 왜소화된 세계불교를 바로잡고 불교사의 새 장을 열어갑니다.





2014년도 영산불교대학 5기 수강생 모집 안내

■ 모집인원 : 1 · 2 · 3 · 4학년 각반 150명 선착순 모집
■ 입학자격 : 제한없음. 처음 입학하시는 분은 1학년만 입학가능.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순서로 매년 승반
■ 수업일정 : 2014년 5월 24일 ~ 2014년 11월 30일
월 2회 - 격주 토요일 (4시간 강의)
■ 입학일시 : 2014년 5월 24일 10시
■ 교육장소 : 현지사 대전분원 -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1392
■ 교육과목

1학년	부처님의 생애, 신불교사상, 칭명염불수행법, 금강경사경, 불교예절, 찬불가, 특강
2학년	지장경, 천수경, 반야사상, 정토학, 신불교학개론, 찬불가, 특강
3학년	법화경, 아함경, 열반경, 금강경, 세계종교비교 I , 특강
4학년	보현사상, 문수사상, 신불교학과 철학, 세계종교비교 II , 특강

자재 만현 큰스님 법회 안내

현지사 대전분원 6월 정기법회 :
6월 1일(일) 오전 9시

업장을 씻어주는 세계유일의 부처님회상에서
불과 이룬 큰스님의 사자후를 들어보십시오!
세계 어느 불교에서도 몰랐던 부처님세계와
인간 영혼체에 대한 깊은 비밀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21세기 인류정신을 향도하고 불교사의 새 장을
열어갈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를 만나보십시오!

<자재 만현 큰스님 법회 안내>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저자 자재만현 큰스님의 동영상 법문 (238회째)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버스 운행됩니다.
문의 033)243-1787 / 042)525-5325

아미타불 재일 행사 : 매월 음력 5일. 오전 10시 30분
현지사 재일 : 음력1일, 15일, 18일(지장재일), 25일. 오전10시 30분

입학처 및 연락처
대전분원 : 042)525-5325, 042)525-5345
춘천본사 : 033)243-1787
고성분원 : 033)681-5515
제주도 제2본산 : 064)783-5355
서 울 분 원 : 02)453-5953
부산분원 : 051)554-5150
대구분원 : 053)654-5557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현지사 춘천본사 033)243-1787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노란 봄향기 솔솔… 유채꽃 만발한 남국의 도량

제주의 사찰을 찾아서 - ① 서귀포 약천사


서귀포시에 위치한 약천사 앞마당에는 너울거리는 노란 유채꽃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특히 주변 야자수와 어울려 남국의 이국적인 정취를 풍긴다.

5월은 제주도의 관광 성수기이이다. 녹음이 우거지고 들판엔 야생화로 울긋불긋 하다. 천천히 쉬면서 봐야 제주는 더 곱다. 서귀포시 대포동에 위치한 약천사(주지 성원 스님)는 제주도에서도 남쪽에 위치해 더욱 따뜻하다. 세월호 여파로 수학여행객의 급감함에도 불구, 5월 10일 찾아간 도량에는 중국 관광객들로 붐볐다. 많게는 하루 5천여명의 관광객과 참배객들이 몰려드는 약천사는 제주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여는데 큰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최근 관광객 대상의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성산일출봉이 36.7%로 1위, 그 다음은 한라산 이 12.6%를 차지했다. 약천사도 사찰로는 처음으로 4.8%로 7위를 차지할 정도로 종교를 불문하고 관갱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약천사가 오늘날 같은 도량으로 거듭난 것은 지난 1981년 고향이 서귀포인 혜인 스님이 이곳에 큰 절을 짓겠다는 원력을 세우면서 부터다. 스님은 제주도에 국제적으로 내 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한 대가람을 짓고자 터를 찾던 중 한라산 영봉이 보이고 앞으로는 태평양을 가슴에 안은 바다가 펼쳐진 현 터에 약천사 불사를 시작했다.

대 가람이 없는 제주지역이기 때문에 웅장한 3층 구조의 대적광전 조감도를 처음 그렸을 때 사람들은 한낱 공상으로 치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혜인 스님은 반드시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함께하리라 굳게 믿으며, 전국을 다니며 사찰 건립의 원력을 전했고, 많은 불자들이 동참했다. 혜인 스님이 약천사를 짓기 전에는 1485㎡(450평) 남짓의 절터에 '약수암'이라는 59.4㎡(18평) 규모의 제주 전통 초가집만이 고작이었다. 이후 본격적인 불사가 시작됐고, 절의 규모가 갖춰지자 사명을 약천사(藥川寺)로 짓게 되었다.

지난 1988년 토지가 확보되자 착공에 들어가 1991년 동양 최대의 법당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993년 큰법당에 비로자나부처님을 봉안하고 봉불식을 거행한데 이어 1996년 대웅전 낙성대법회 및 나한전 상량식을 봉행, 수행과 포교가 어우러진 내실 있는 사찰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2007년도에는 법당 내 목지비로자나불상을 비롯한 후불목각탱화 등이 뛰어난 작품성으로 많은 참배객이 찾고 있어 보존 가치가 인정된다해서 '전통사찰'로 지정됐다.

특히 서귀포 앞 바다가 환히 내려다보이는 자리에 위치한 대적광전은 단일 법당으로는 동양 최대의 규모를 자랑한다. 법당은 구례 화엄사 각황전의 웅장한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금산사 미륵전의 3층 구조를 응용해 설계됐다. 외부서 볼 때는 3층이지만 내부의 가운데는 천장까지 트여져 있어 웅장함을 더한다. 비로자나부처님을 본존불로 모셨기 때문에 '대적광전(大寂光殿)'이 된 것이다. 주불로 모셔진 비로자나부처님은 백두산서 가져온 목재로 조성됐으며, 높이가 4.5m나 된다. 좌보처는 약사여래불인데 이는 예로부터 약천사에는 약수물이 흐르는 샘물이 있어 약사여래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질병 치료의 영험이 계속 이어져 많은 중생들이 질병의 고통서 구원되기를 서원하는 의미에서 모셔졌다.

우보처로는 아미타불이다. 아미타불을 모시게 된 것은 특별한 연유가 있다. 약천사가 위치한 서귀포(西歸浦)라는 명칭이 서방정토(西方淨土)로 귀의(歸依)하고자 하는 불자들의 서원에서 유래된 것인데 아미타불을 모셔서 많은 불자들의 서원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길 기원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이 밖에도

1981년 혜인 스님이 원력 불사 시작
대적광전은 단일 법당으론 최대 규모
2006년 템플스테이 사찰로 지정
2009년 중증 장애시설 '자광원' 개원

화려한 채색으로 500나한의 영험을 더한 오백나한전을 비롯해 약천사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굴법당, 보름날 이곳에 올라서면 바다와 산 등 약천사의 전경이 어우러져 시흥이 절로 나는 범종각과 법고각 등은 제주불교계에서도 으뜸가는 위상을 충분히 갖췄다. 이 뿐만이 아니다. 약천사는 지난 2002년 월드컵 전후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 1월에는 조계종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로 지정돼 내·외국인들에게 불교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제주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데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 정책에도 빠르게 발맞춰 지난 2009년 12월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약천사 자광원을 개원했다. 그 여세를 몰아 2011년 7월 6일 나눔의 산실 약천사 부설 행복나눔 푸드마켓 서귀포시 서홍동에 개원하는 등 명실상부 한 복지도량으로 거듭났다.

서귀포=제주불교 이병철 기자


굴법당 입구에 모셔진 약사여래불


대적광전에 모셔진 나한전

"힐링 사찰로 거듭나겠다"

약천사 주지 성원 스님



성원 스님은 약천사 8대 주지로 취임하면서 '부처님·사회·자연과 함께 하겠다'고 약천사 운영지표를 발표했다. 부처님과 함께, 사회와 함께, 자연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성원 스님은 "늘 부처님 품안에서 신행하면서 어려운 이웃과 이웃 종단, 이웃 종교와 손잡고 서로 도우며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더불어 세계가 인정하는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면서 우리들도 자연으로부터 힐링받는 약천사를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국내는 물론 외국인들을 위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도 각광받고 있다"며 "우리의 전통 불교문화를 세계인들에게 알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주변 가볼만한 곳

▲**주상절리**=막혔던 가슴이 탁트이도록 시원스레 부서지는 파도, 신이 다듬은 듯 정교하게 겹겹이 쌓은 검붉은 육모꼴의 돌기둥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는 중문관광단지 동부지역 해안가의 주상절리대는 자연의 위대함과 절묘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제주도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 50호다. 아득한 옛날 지각변동으로 인해 이루어진 주상절리대를 보고 있으면 새하얗게 부서지는 포말 속에 석수장이의 애달픈 사연이라도 금새 실려오는 듯하다. 파도가 심하게 일때는 높이 20m 이상 용솟음 치는 장관을 연출한다. 천혜의 절경으로 인해 테마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는 명소다.



▲**제주중문관광단지**=약천사서 차동차로 10여분 거리의 중문관광단지는 제주의 자연경관과 지리적 조건을 활용해 지난 1978년부터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해 서귀포시 중문·예래동 일대에 조성된 관광단지다.

현재 중문관광단지는 신라호텔·롯데호텔 등 숙박시설 7개소와 대형 국제회의가 개최되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천제연관광, 여미지식물원, 테디베어뮤지엄, 믿거나말거나박물관, 퍼시픽랜드 등 위락휴양시설 10여개소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올레 8코스**=약천사를 지나가는 올레 8코스는 바다에 밀려 내려온 용암이 굳으면서 절경을 빚은 주상절리의 비경을 갖춘 올레 최고의 코스다. 주상절리 돌기둥과 중문해수욕장에 이어지는 등 호젓한 바다 산책 코스로는 그만이다.

〈먹거리〉

▲**수일식당**= '불자의 집'으로 약천사 신도들이 적극 추천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전복죽과 오분재기 뚝배기, 성게국, 갈치국, 고등어 및 갈치조림, 물회 등 제주토속음식을 즐길 수 있다. 064-762-0777

〈묵을 곳〉

약천사 신도인 길상화 대표가 운영하는 서건도 게스트하우스가 있다. 서건도 게스트하우스에는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 한달에 10차례에 걸쳐 앞바다가 갈라지는 서건도가 있어 유명하다. 064-739-8012, 010-6739-8012.

디자인 등록원

장인이 만든 명품 청동 촛대세트

현 불 샵 단독입점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사자·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촛대(大) 촛대(中) 촛대(小) 향로 향통 다기

품 명		규 격 (세로 / 지름)
촛대	사자 코끼리	(大) 51㎝×21㎝ (中) 41㎝×21㎝ (小) 35㎝×21㎝
	거북이	(中) 41㎝×21㎝ (小) 35㎝×21㎝
향로	거북 용두	(大) 28.5㎝×34㎝ (中) Ⓐ 21.5㎝×29㎝ (中) Ⓑ 18.5㎝×23㎝ (小) 15.5㎝×18㎝
다기	다기	(大) 26㎝×20㎝ (中) Ⓐ 22㎝×14㎝ (中) Ⓑ 20㎝×13㎝ (小) 17㎝×12㎝
향통	원형	(大) 15.5㎝×7.5㎝ (小) 11.7㎝×5㎝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

新 사찰 건축

8. 담양 정토사 무량수전

안팎 경계 버린 또 하나의 무량수전



2000년 11월에 세워진 전북 담양의 정토사 무량수전은 목조 대신 시멘트로 지은 현대적 건물로, 외관벽이 140개의 창호로 되어 있다. 140개의 창호를 열고 닫을 때 법당의 형태가전혀 다른 형태를 함으로써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물고 '공'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

"무량수전은 고려 중기의 건축이지만 우리 민족이 보존해온 목조 건축 중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오래된 건물임이 틀림없다. 기둥 높이와 굵기, 사뿐히 고개를 든 지붕 추녀의 곡선과 그 기둥이 주는 조화, 간결하면서도 역학적이며 기능에 충실한 주심포의 아름다움, 이것은 꼭 갖출 것만을 갖춘 필요미이며 문창살 하나 문지방 하나에도 나타나 있는 비례의 상쾌함이 이를 데가 없다. 〈후략〉" 고인이 된 前 국립중앙박물관장 최순우는 자신의 저서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에서 목조건축의 명품으로 남은 부석사무량수전(국보 18호)을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위와 같이 적었다. 부석사 무량수전이 지어진 지 700년이 흐른 지금, 전남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에는 명품으로 기억될 또 하나의 무량수전이 있다. 정토사 무량수전이다.

단청과 기와를 버리다

대지면적 450평, 연건평 173평, 지하 1층 지상 2층의 정토사 무량수전. 주지 혜광 스님은 건축가 김개천 교수에게 설계를 의뢰했다. 스님과 김 교수는 현대적 건물로 법당을 짓기로 했다. 드문 일이었다. 혜광 스님은 새로운 불자를 들이고 싶었다. 젊은 불자들과 불교를 모르는 새로운 불자들을 정토사로 불러들이고 싶었다. 그것이 진정한 포교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일을 건축불사에서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좀 더 현대인들에게 맞는, 시대에 맞는 법당을 짓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시대가 변한 만큼 현대인의 문화적 감성도 많이 변했다고 생각했다. 시각적인 요소들이 행동의 중요한 동기가 되는 시대인 만큼 법당 건축도 '디자인' 이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스님은 오랜 동안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형식들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우선 대표적인 전통 형식인 단청과 기와가 절대적이라는 생각으로부터 나오기로 했다. 단청과 기와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단청과 기와만이 절대적인 형식이라는 생각을 놓은 것이다. 단청과 기와가 없는 법당을 짓기로 했다. '시도'였다. 단청과 기와가 필요 없다보니 건물이 굳이 목조일 필요가 없었다. 시멘트로 짓기로 했다.

140개의 창호가 들려주는 법문

2000년 11월에 세워진 정토사 무량수전에서는 배흘림기둥을 볼 수 없다. 부석사 무량수전 처럼 사뿐히 고개를 든 지붕 추녀의 곡선도 볼 수 없으며, 때문에 그 곡선과 기둥의 조화는 더욱이 볼 수 없다. 간결하면서도 역학적이며 기능에 충실한 주심포의 아름다움, 최순우가 말했던 문창살에 드러난 비례의 상쾌함도 없다.

하지만 정토사 무량수전에는 140개의 창호가 배흘림기둥을 대신하고 있다. 법당의 전체, 벽면이 창호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사뿐히 고개를 든 지붕 추녀의 곡선 대신 최소화된 직선의 베젤이 건물의 외관을 마감하고 있다. 그 140개의 창호와 최소한의 베젤이 배흘림기둥과 추녀의 곡선을 대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단순히 디자인적인 형식이 아니라는 데 있다.

법당의 한 쪽에는 산이 서있고, 또 다른 한 쪽에는 너른 연못이 펼쳐져 있다. 법당의 창호를 모두 열어젖히면 법당이 사라지고 산과 연못이 들어온다. 법당 전체가 창호로 지어졌으니 그 창호를 모두 열어젖히면 법당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실존하지만 실재하지 않는, 불교적으로 말을 바꾸면 공과 색을 넘나드는 것이다.

2000년 11월 준공 · 설계 김개천 교수
새불자 유치 위해 현대건축 시도
140개 창호 열고 닫으면
안팎 경계 사라져 공과 색 공존해
'공(空)' 사상 문자 아닌 건축으로 표현
혜광 스님, '전통가람' 살린 불사 서원



140개 창호 외벽으로 둘러싸인 법당 내부



법당에는 아미타여래상을 모셨다.

김 교수는 "외부 공간이 내부 공간으로 들어와 안과 밖의 경계가 없어지고 함께 조응하는 것이다. 그 순간 법당 안의 대중은 산과 물, 자연, 우주의 중심에 앉아 있게 된다."고 말했다.

결국 정토사의 무량수전은 대승불교의 '공(空)' 사상을 건축으로 설하고 있다. 주지 혜광 스님은 공사상을 대표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반야심경의 내용을 법당에 담고 싶었다고 한다. 그리고 건축을 의뢰 받은 김 교수는 140개의 창호를 통해 스님의 의도를 실현했다. 140개의 창호를 열면 안과 밖의 경계가 무너지고, '절대' 만이 존재한다. 색이 공임을 문자가 아닌 건축으로 말하고 있다. 공이란 색을 여의고 존재할 수 없다. 다시 140개의 창호를 닫으면 법당은 법당으로 돌아온다. 공은 색인 것이다.

2층에는 창호를 바라보게 되어 있는 선방을 만들었다. 이 안과 밖이 따로 없는 선방에서 가부좌를 튼다면 그야말로 문자를 벗어던진 설법을 들을 수 있다.

"공사상을 법당의 창호를 열고 닫는 것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안과 밖이 따로 없음을 현대인들에게 쉽게 일깨워 주고 싶었어요. 전통을 버렸을 땐, 버린 의미와 새로움의 가치가 있어야 하니까요." 정토사 무량수전은 2001년 한국건축가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건축상(김개천)을 수상했다.

'현대' 표방했지만 '전통' 도 살아있어

"현대건축을 표방했지만 종교적으로 불교 고유의 전통적인 요소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정토사 무량수전을 밖에서 보고 있으면 '법당' 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다. 지금까지 봐왔던, '전통' 적인 법당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전통을 버린 것은 아니다. 곳곳에서 이어야 할 전통을 잇고 있다. 전통대로 불단의 뒤 공간을 살려 경행을 가능하게 했으며, 창호의 문살은 전통의 격자문양을 하고 있다. 불단엔 아미타여래를 모셨으며, 천장엔 밖으로 드러내지 않은 단청을 들여놓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법당에 들면 '법당' 이라고 하는 본연의 생각과 마음이 자연스레 찾아든다는 것일 것이다.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이라는 생각, 그 생각이 든다면 어떤 외형을 가졌든 그것은 '전통' 과 '비전통' 을 떠난 것이고 절대적인 '법당' 일 것이다. 정토사 무량수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법당' 인 것이다.

불교적 생각의 실천

"우리 전통의 가람배치는 너무나 멋지죠. 일주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의 문을 거치고 금당에 이를 때까지, 동선 자체가 수행인 것이죠. 우리의 독창적인 가람배치 방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전체적인 불사를 한 번 해보고 싶어요. 건축이라는 무언의 언어를 통해 대중이 감흥 받고 말없는 말 속에서 스스로 얻고자 하는 답을 각자가 찾아갈 수 있는 도량을 만들고 싶어요."

주지 혜광 스님은 절에 드는 의미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가람의 불사를 원력으로 세우고 있었다. 시대가 많이 변했다. 제한된 공간적 한계로 인해 예전에 있어 왔던 산중의 너른 가람을 꿈꾸기 어렵다. 혜광 스님은 제한된 공간적 한계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평면적인 사고에 얽매인다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입체적인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것이다. 적은 공간을 넓은 공간처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혜광 스님은 "저기 멀리 보이는 산을 불러들이고, 지나가는 개울을 이곳으로 불러들이는 거죠. 추상적이고 막연한 임기응변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는 정토사 무량수전에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제한된 공간을 제약으로 생각해야 할 일은 없을 겁니다."고 말했다. 그야말로 불교적인 생각의 확인이며 실천이라고 하겠다.

제2의 최순우가 정토사를 찾는다면

"소백산 기슭 부석사의 한낮, 스님도 마을 사람도 인기척이 끊어진 마당에는 오색 낙엽이 그림처럼 깔려 초겨울 안개비에 촉촉이 젖고 있다. 무량수전, 안양문, 조사당, 응향각들이 마치 그리움에 지친 듯 해쓱한 얼굴로 나를 반기고, 호젓하고도 스산스러운 희한한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나는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사무치는 고마움으로 이 아름다움의 뜻을 몇 번이고 자문자답했다." 부석사 무량수전이 지어지고 700년이 지난 어느 날, 후손 최순우는 부석사에 갔다가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부석사의 아름다움을 위와 같이 적었다. 무량수전의 명품으로 남은 부석사 무량수전이 지어진 지 700년, 그리고 또 하나의 명품 무량수전을 본다. 다시 세월이 흘러 제2의 '최순우' 가 완성된 정토사를 찾아간다면 그는 '배흘림기둥' 대신 무량수전 문창살에 기대서서 정토사의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아름다움을 사무치는 고마움으로 적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량수전을 찬탄할 것이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2층 선방으로 오르는 계단



불단 뒤의 관음보살상 탱화를 모신 공간으로 경행할 수 있다.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도모집

종 정 명진 석법운 대종사



종 정
명진 석법운 대종사

귀의 삼보하옵고…
새로운 불교, 혁신적인 종지종풍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석가세존으로 부터 법맥을 이어온 저희 종단은 구태불교를 개혁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불교세계를 염원하는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은 본 종단과 함께하실 제방의 청정승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원로의장 보 운
원로총무 수 덕 원로위원 해 산
원로위원 월 각 원로위원 혜 담
원로위원 홍 원

총무원장(대행)
행정원장 도 경 사정원장 법 륜 문화원장 진 송
교육원장 청 담 포교원장 동 화
비구니원장 법화 청명 비구니부원장 설 봉

총 무 원
총무부장 (대행) 재무부장 월 산
교무부장 선 각 문화부장 한 담
규정부장 혜 오 법규위원장 설 산
환경위원장 혜 득 신도회장 조태흠
사업부장 이재철

종 무 원
경북1종무원장 월 정 경북2종무원장 성 덕
경북4종무원장 해 산 대구2종무원장 해 산
대구1종무원장 광 덕 경기1종무원장 원 담
충청1종무원장 계 현 전라1종무원장 법 도

법계고시 공고
◆일 시 : 불기 2558년 5월 25일(일)(음 4월 27일) 오전 11시
◆장 소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호 ☎054)974-2605
◆법계고시 위원장 : 법운 / 위 원 : 수덕, 동화, 도경, 진송, 법화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

- 입종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 반 명함판 사진 3매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호 동명사 ☎ 054)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4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 (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독립, 민족의 자존심”… 옥중서도 당당했던 기개



만해 스님 열반 70주년

‘만해의 길을 가다’

⑨ 만해와 서대문 형무소 ㊤

문: 피고는 앞으로도 조선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답: 그렇다. 언제라도 그 마음을 고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몸이 없어진다면 정신만이라도 영세토록 가지고 있을 것이다.

1919년 3월 1일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왜경에 체포된 뒤 경찰과 검사, 만해 스님 사이에서 이뤄진 심문의 마지막 내용이다. “할일을 했다”는 당당한 기개가 넘치고 있다.

일제로부터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스님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다. 그리고 옥중에서도 당당히 조선의 독립을 요구했다.

이제 항일 상징된 서대문형무소

서대문형무소는 여러모로 가슴 아픈 민족사의 굴곡을 가지고 있다. 1907년 시텐노가즈마(四天王數馬)의 설계로 착공, 다음해 ‘경성감옥(京城監獄)’ 이란 이름으로 문을 연 후 80년 동안 약 35만 명을 수감, 숱한 민족의 수난사를 잉태했다.

일제강점기 때는 주로 민족지도자와 독립운동가, 4 · 19혁명 이후 1980년대까지는 정치인 · 기업인 · 세도가 · 군장성 · 재야인사 · 운동권 학생 등과 이 밖에 살인 · 강도 등의 흉악범과 대형 경제사범 · 간첩 등 다양한 범법자들이 이곳을 거쳐갔다.

1912년 서대문감옥, 1923년 서대문형무소, 1946년 경성형무소, 1950년 서울형무소, 1961년 서울교도소 등의 명칭을 거쳐 1967년 서울구치소로 개칭되었고, 1987년 서울구치소가 경기도 의왕시로 이전한 이후 1998년 사적(史蹟) 제324호로 지정되었다.

이제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으로 아픈 민족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만해 스님은 3년여의 이곳 수감생활을 하면서 몇 차례 고문을 받는 등 온갖 고초를 겪었다.

수감된 민족대표들의 생활상은 대략 이럴 것으로 추정된다. 아침 6시 기상해 오후 9시 취침했고, 식사는 콩과 보리로 뭉친 주먹밥 한 덩이와 소금국이 전부였다.

시설도 열악했다. 시멘트 바닥에서 더운 여름과 차디찬 겨울을 보냈다. 이 같은 열악한 시설과 악형으로 몇몇 대표는 생을 등지기도 했다.

실제 박준승은 고문으로 옥사했으며, 손병희는 옥중에서 생긴 병환으로 출감 후 숨졌다.

고초를 겪을수록 당당했던

일제 식민지 시대에 독립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민족대표들을 독려하고 투쟁의 의지를 바로 세웠던 것은 바로 만해 스님이다. 스님의 3년 간 옥고는 故 김상현 동국대 사학과 명예교수의 평가대로 옥중 생활이라기보다는 투쟁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였고, 옥중 활동도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실제 만해 스님은 민족 대표들에게 옥중 투쟁의 3가지 원칙을 제안 · 주장했다. 첫째는 변호사를 대지 말 것, 둘째는 사식(私食)을 취하지 말 것, 셋째는 보석(保釋)을 요구하지 말 것 등이다.

독립선언 발표 직후 왜경에 체포

서대문형무소 수감… 2년여 獄苦

‘변호사·사식·보석 금지’ 옥중 투쟁

“할 일 했다” 日 재판장서도 당당

옥중서 한시 13수, 시조 1수 써내

애국·일제 저항·성찰 등 내용 담아

수감 생활, 지속 항일투쟁 원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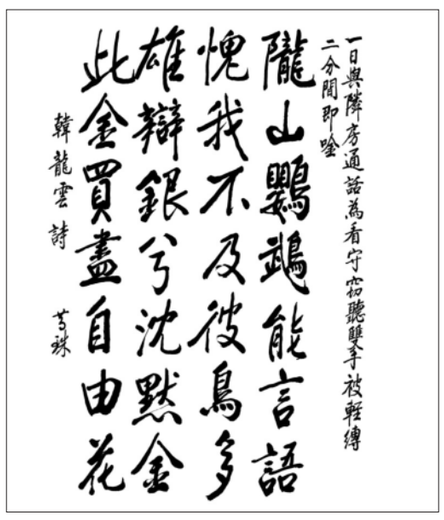
옥중 투쟁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 이유는 내가 내 나라를 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변론을 할 이유가 없고, 호의호식을 위해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여서 사식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만해 스님은 주장했다. 또한 일제 법률에 따라 보석 신청을 하는 것도 맞지 않는 행위라고 여겼던 것이다.

일인 검사의 심문과 이어진 재판에서도 만해 스님은 조선인으로서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그는 법정에 설 때면 “자존심이 있는 민족은 남의 나라의 간섭을 절대로 받지 아니하다”, “우리들의 행동은 너희들의 치안유지법에 비추어 보면 하나의 죄가 성립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라고 독립의 정당성을 갈파하곤 했다.



서대문형무소 본청사 전경. 지금은 교육관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1907년 설계돼 이듬해 완공된 서대문형무소는 수많은 항일 인사들이 고초를 겪거나 생을 마감했으며, 해방 이후에도 민주화 인사들을 수감했던 곳이다.



一日與隣房通話為看守所聽雙手被縛
二分間即唫

韓龍雲詩 芝薰

隴山鸚鵡能言語
愧我不及彼鳥多
雄辯銀兮沈默金
此金買盡自由花

만해 한용운 스님의 옥중 한시 ‘獄中吟’. 독립의 열망이 느껴진다. 생전에 만해 스님을 흠모한 석주 스님의 글씨.



氏名	年齡	年月日生	指紋番號
韓龍雲	身長	尺寸分	
	特徵		

만해 한용운 스님의 수감 카드. 스님은 3년 동안의 수감 기간동안 옥중 투쟁이라고 평가될 정도로 당당하게 일제와 맞섰다.

이종일은 당시 스님의 호통을 “통쾌무비한 일”이라며 “역시 한용운은 과격하고 선사다운 풍모가 잘 나타나는 젊은이”라고 회고했다.

여타의 민족 대표들과는 전혀 다른 당당함과 기개를 보여줬다는 것인 상좌 이춘성 스님의 회고에서도 잘 나타난다.

“절에서 무엇을 만들어서 가지고 면회가면 ‘이것은 뭐하러 가져왔느냐. 내가 아홉 귀신 먹다 남은 것을 먹을 줄 알았느냐’ 고 내던지기 일쑤였다. 감옥의 간수들도 ‘저 중이 제일 간 큰 놈이지. 저 놈에게는 당해낼 수가 없어’ 라고 저희들끼리 중얼거렸다.”

옥중 시조, ‘철장 문학’의 진수

만해 스님의 높은 기개는 스님의 지은 한시와 시조에서도 나타난다. 스님은 수감 기간동안 13편의 한시와 시조 1수를 지었다. 소위 ‘철장 문학’ 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실 옥중에서 수많은 시대의 명작들이 만들어진다. 사마천은 옥에 갇혀 궁형을 당하면서도 〈사기〉라는 역사를 남겼고, 세르반테스는 왕실 감옥에서 〈라만차의 돈키호테〉를 창작했다. 단채 신채호 선생은 만주 뤼순 감옥에서 〈조선상고문화사〉를 저술하다 옥사했다.

평소 깨달을 추구한 수행자이면서 유교와 서양철학 · 문학에도 이문이 밝았던 스님이 옥중 생활동안 창작활동을 이어갔던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이다. 만해 스님은 한시와 시조를 통해 자유에 대한 갈망과 독립에 대한 열망을 노래했다.

농산의 앵무새는 말을 곧잘 한다는데
隴山鸚鵡能言語
그 새보다 훨씬 못한 이 몸이 부끄럽다.
愧我不及彼鳥多
웅변은 은이요 침묵이 금이라면
雄辯銀與沈默金
그 금으로 자유의 꽃 모두 사리라
此金買盡自由花

‘옥중에서 읊다(獄中吟)’ 이라는 제하의 한시는 옆방 동료와 이야기하다 간수에게 들켜 2분간 손이 묶이게 된 이후 읊은 즉흥시다.

이 한시에 대해 김광식 동국대 특임 교수는 “여기서 스님은 말 잘하는 앵무새, 웅변으로 상징되는 일제의 회유 간섭을 거부하는 심정을 내비치고 있다”면서 “이는 저항의식을 보여준 것으로 저항의식은 독립을 갈망하는 의지의 지속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 같은 담대한 정신과 행적에서 만해 스님의 옥중 독립운동은 살아날 수 있었다”면서 “서대문형무소의 항일 투쟁은 출옥 이후 지속적인 항일 운동의 원동력이 됐다”고 주장했다.

김상현 교수는 “자유를 갈망했던 만해 스님이 이 시에서는 자유의 꽃을 사기 위해서는 침묵이라는 금을 모두 다 팔아버리겠다고 항변했다. 그의 옥중 시에는 자유와 독립의 두 개념이 일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문학자인 김종균은 자신의 논문 〈한용운의 한시와 시조〉에서 옥중 시의 핵심은 ‘자유 의지’에 있다고 봤다.

그는 논문에서 “만해 스님의 옥중 시(시조)에서 가장 귀 기울이고 들어야 할 음성은 자유다. 이 자유의 문제는 만해 스님의 ‘님’을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된다”면서 “님의 존재는 다위가 되어주고 한없는 그리움은 신앙을 낳게 된다”고 해석했다.

이어 “종교인으로서 정진과 학자로서의 논리, 시인으로서의 섬세한 정서가 모두 하나로 응결돼 옥중 시에 나타난다”면서 “만해 스님의 옥중 시는 독립이란 개념이 철두철미하게 은유돼 표현된 시”라고 설명했다.

1921년 가을, 출소한 만해 스님은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옥중의 고통 속에서 쾌락을 얻었고, 지옥 속에 극락을 구하였다”고. 고통의 칼날을 기꺼이 수용하고 지옥을 향해 걸어갔다. 철장마저 수행처로 알던 만해 스님의 담대함과 당당한 기개도 우리 후학들이 본 받을 귀감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구촌 세계불교 최고의 지도자와 한국의 350여 종단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불교 지도자들의 법석

世界佛教 指導者 合同 金剛戒壇 & 法王廳 中央政府 閣僚 任命式

주최 : 사단법인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계속적으로 서류 접수하여 심사 후 6차 금강계단 (일시 추후결정) 지속적으로 봉행함

승가의 탐,진,치,가 넘쳐나고 오만과 무지와 분수를 모르며 먹물 옷을 입었어도 자신을 잃어버린 불쌍한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
오호라!! 이제 고통받는 사바세계를 환하게 밝히는 광명의 해가 솟아 올랐도다.

드디어 세계인의 존경의 대상인 불교 최고의 어른 한분을 법왕으로 모시고 상좌부권과 대승권 각각 승왕 두분을 모시게 되었으며 각 나라 불교대표이신 승가회 회장 큰스님들을 대승정에 모시는 준비가 크게 진행되고 있으며 20개국 종정 및 승왕들의 친필 싸인 서명을 확보한 정통 세계불교 법왕청입니다. 고승 및 각종단의 종정 및 총무원장을 모시고 각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갈래로 찢어져 있는 일부종단의 법납조차 무시한 진흑탕속의 품수체계와 품수를 내세워 후원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고 승가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자 합동 금강계단을 설치하고 대종사, 종사, 대덕, 중덕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품수를 수여하는 의식까지 병행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모 종단의 3급고시니 4급이니 하는 철저한 단계라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수준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정화하고 걸른다는 측면에서 세계불교 지도자 합동 금강계단을 봉행하고자 하며 일체의비용이 없습니다. 이제 각 종단차원의 모든 종도들을 동참시키시어 합동 금강계단의 증명 법사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세계 불교 법왕청 세계 불교 법왕 및 승왕 추대 1080인 위원회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종단 종정 고승단, 종단 대종사 자문단 추진위원장 SANGGALAJA 대승정 목탁 합장

* 대법원에 등기된 허가번호 2013-82 . 고유번호 101-82-23205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이사장 목탁스님)이란 명칭은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단 하나밖에 없으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매인 세계불교법왕청.com입니다. 이외 사용하는 곳은 이유를 불문하고 허가조차 받지 못하고 명칭도용 임의단체이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로 고유번호를 받았다 해도 세무관계 에서만의 명칭사용은 가능하나 대외활동에서의 명칭사용은 위법입니다.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각자 직업에 맞는 화두 들자

새말귀(新話頭) ②

또 이전과도 달라야 돼. 예를 들어서 화두도 스님네들이 가지고 있지 보통 사람들이 가지면 안 된다 말이여. 그건 시간적으로 용납이 안돼. 이거 맞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용납이 안돼. 운전수가 화두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돼. 안 된다면 운전수는 말이지 중생 아닌가? 은행에 다니는 사람 화두 가지면 되겠습니까? 은행에 다니는 사람들은 수판 놔야 되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말이지 중생 아닌가? 그 사람들은 인생문제 해결하지 말라는 법 있나요?

이러하기 때문에 화두는 불변의 이치인데, 가져야 되지만, 그 중생 근기에 따라서 중생들이 가질 수 있는 무엇이 방편이 새로 서야 됩니다. 나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말귀가 나온 겁니다. 새말귀라. 새 신(新)자. 신화두(新話頭)라 그 말입니다. 화두라 하는 것은 말귀입니다. 처음에 내가 새말귀라고 하니까, 화두라고 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내 한국에 인연을 받았습니다. 인연을 받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말을 갖다써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말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말귀라고 하면 통합니다.

운전수도 은행에 다니는 사람도 소를 잡는 사람도 말을 잡는 사람도 장사를 하는 사람도 가질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선지식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 화두 좋습니다.

스님네들로서는 가장 적당합니다. 왜 그러느냐. 화두는 변소에 가서도 화두를 놓는 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네들은 만족해. 그걸 거부할 필요가 없어. 좋아. 그러나 신도들은 가질 수가 없어. 그런데 이걸 갖다 구태의연하게 신도들을 스님네들 취급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거 됩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건 어딘가 자기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성불이라는 말마디는 하나이지만 우리가 성불하는 길은, 거기에 올라가는 길은 천 가닥 만 가닥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수는 운전수로서의 화두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의 화두가 있어야 된다는 이건 명확한 일입니다.

그러면 새말귀란 뭣이냐? 이겁니다. 아까 말한 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다 허공성이라 말이지.

나무도 허공성 산도 허공성 물도 허공성, 밉다 곱다 이것도 허공성, 심지어 내 몸뚱어리 이것도 허공성, 이러한 바탕을 알아야 됩니다. 이 바탕을 알기는 조금 시일이 걸리지만 알기가 수월합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성 자리를 알아야 돼. 절대성 자리.

> **운전수도 은행원도 백정도**
> **각각의 환경에 맞는**
> **새로운 화두가 필요하다**
> **이것을 '새말귀'라 명명**
>
> **만약 운전수가**
> **자동차를 잘 운전하겠다는**
> **생각만 버리지 않는다면**
> **이것이 '새말귀'**
>
> **일 할 때 열심히 일하고**
> **참선할 때 다 놓아야**

그러니까 몸은 상대성이다. 몸은 상대성인데 이건 자체성이 없다. 내가 이걸 가져도 손은 이걸 가진 줄 모릅니다. 내가 알지. 내가 안다면 내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거 아닙니다. 손에 자체성이 없거든.

이걸 확실히 알아버려야 돼. 우리가 어디 걸어다녀. 어디 걸어가. 발에 자체성이 없는 거예요. 발은 모르는 거예요. 발뿐 아니라 몸뚱이 자체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아는 겁니다.

그러하니까 이러한 도리를 내가 알아. 이 도리를 알고 손을 움직거립니다. "손을 움직거려서 뭘 걷어잡는다, 눈으로 뭣을 본다, 귀로 소리를 듣는다. 이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 내 성품 자리, 내 법신 자리, 이 자리가 그리 하는 거다" 요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면 이 화두가 곧 잡혀. 그러기 때문에 운전수도 돼.

왜 그러냐면 운전수는 핸들을 잡고 있지만 핸들 잡은 손은 이거 무정물이다 아무 자체성이 없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 내 손을 시켜서 핸들을 가지고 있다, 운전수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나는 주의해서 운전을 하겠다 하면, 요 손발을 가지고서 주의해서 운전을 하겠다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주의해서 운전을 하겠다." 그리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이나 발로 기계를 밟고 손으로 핸들을 가졌다 말이죠. 그러나 손이나 발은 몰라. 다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 성품이 이 손으로 하여금 기계를 돌려.

그러니까 나는 기계를 잘 돌리겠다. 어찌하겠다. 이 생각만 놓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화두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거 내가 만들어 놓은 화두에요. 요걸 새말귀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아침에 집을 나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 내가 자체성이 없는, 우리의 몸은 무정물이거든요, 자체성이 없는 몸뚱이를 끄집고 나가서 오늘 일 잘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가. 또 일 다 마치면 자체성이 없는 이 몸뚱이를 끌고 나는 집에 들어간다. 결국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요게 중심이 되는 거라. 그래서 앉아. 참선을 해. 그러면 나중에 이거 다 놔야 됩니다.

다 놓아야 되지만 우선 처음에는 나는 비명비암,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이 자리를 나는 보리라. 왜 그러느냐. 환해. 이것도 본래 밝은 것이 아니여. 또 어두우면 캄캄해.

이거도 본래 어두운 것이 아니여. 비명, 밝은 것도 아니고 비암, 어두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밝은 것이 보여.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두운 것이 보여. 그런데 이 말이 조금 이해하기가 곤란하지.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칭찬여래 되면 삶이 즐겁다

10. 행원례

②-1 칭찬여래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 보다도 먼저 이 칭양하고 찬탄한다는 덕성부터 길러야 되겠다. 이것은 퍽이나 중요한 일이다.

칭찬여래가는 어일진중진수불 각처보살중회중(於一塵中塵數佛 各處菩薩衆會中)하는 첫귀로 시작한다. '하나의 티끌 가운데에 또 티끌 수만큼의 덕 있는 부처님이 계시다.' 참으로 묘한 사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것은 단순한 시적 과장이나 메타포어가 아니라 벌써 믿음으로 화한 뚜렷한 사실이라 보는 것이다. 현대 과학은 원자핵(原子核)을 얘기하고 있는데, 원자핵이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립자이다. 그러나 이것이 한번 발동하는 날이면 전세계에 우주 공간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준다. 티끌 가운데는 이러한 원자핵이 수십만개가 들어 있을 터인즉 티끌 하나의 우주적인 신비를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러한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인가. 참으로 우리는 티끌 하나의 위력에 눈 뜨고 이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경탄과 각성을 가져야 할 줄 안다.

또 티끌 속에 계신 부처님은 '각처에 보살이랑 제자랑 권속들을 거느리었다.' 부처님의 경우에는 보살이며 제자 등을 거느리시었겠지만 원자핵에는 또 그것대로 전자, 양자 중성자 하는 따위, 그 밖에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많은 권속을 데리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무진법계진역연 심신제불개충만(無盡法界塵亦然 深信諸佛皆充滿)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유정이나 무정이나 다 부처고 그것이 다 부처라는 것을 확인한 이상 우리는 이를 칭양 찬탄해야 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칭양 찬탄하기 위해서는 그 부처의 덕을 낱낱이 살펴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한다. '티끌 하나의 부처도 이와같이 각양의 덕이 모두 충만하였다.' 이렇게 깊은 믿음으로 칭찬하여 그것을 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칭찬하는데는 그 부처들의 각양 각색의 낱낱에 대하여 소리를 내어 칭양하고 찬탄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 마음속으로 아무리 고맙게 느끼더라도 말로 드러내 표시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칭양 찬탄에도 소리가 없어서는 안된다. 또 음성을 내어 칭찬할 바에는 그것이 아주 듣기 좋은 말을 써서 해야 된다. 다정스런 말, 미묘한 언사, 아어(雅語), 정답고 고운 말, 애어(愛語), 과연 실감이 있고 알맞은 말을 애써 찾아 내어서 해야 된다.

각이일체음성해 보출무진묘언사(各以一切音聲海 普出無盡妙言辭) '각양의 부처에 대하여 낱낱이 소리를 내어 미묘한 말로써 칭찬한다.'

그리하여 이 모든 소리를 내되 시간적으로는 '일체의 겁이 다하도록' 언제, 어느 때, 언제까지라도 영원토록 '그 미묘한 말씨를 가지고, 부처님의 공덕이 깊고 무량한 바다를 칭양 찬탄한다' 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는 그러나 칭찬하는 소리라고는 거의 들을 수 없이 되었다. 여기 아무개 장한 사람이 있다. 흥 그거 무엇이 장해, 아무개는 무슨 큰 일을 했다. 그것 뭐 대수롭지 않은 일을 가지고, 이런 투다. 사회의 단위는 가정이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자. 부부간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아낙네가 뇌까린다. 나는 팔짜가 기박해서, 이놈의 집에 와서, 요놈의 자식이, 한다. 자기 아이를 나무랄 때 요놈의 자식하는 것은 남편을 욕하는 소리가 된다. 자기 남편을 칭양하기는 커녕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줄 모르고 자식은 부모를 있는둥 만둥한 존재로 봐 버려, 서로 존중할 줄을 모른다. 그래서 요즘 신문의 사회면을 어지럽히는 패륜 · 박정, 음산한 기사들은

> **유정 · 무정 모두 부처이니**
> **티끌 하나의 부처도**
> **각양의 덕이 충만**
>
> **일체의 겁이 다하도록**
> **부처님 공덕 깊고 무량**
> **이를 칭양 찬탄하다.**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인간 사회가 아니라 생지옥이라는 관념을 갖게 한다. 또 우리는 한 민족이면서 남북으로 분열되었다. 북한의 괴뢰집단은 남한에 있는 우리를 괴뢰도당이라고 욕설을 퍼부어 업신여기고 우리는 그들을 적대시하여 포용적인 태도를 갖지 못한다. 공산주의는 용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이야 같은 민족의 한 핏줄이 아닌가. 욕하고 헐뜯는 것은 서로 마찬가지다. 민족은 민족끼리 서로 분열하여 업신여기려 들고 형제는 형제끼리 서로 헐뜯고, 가정은 전권속이 서로 백안시하여 아예 존경할 생각을 안 갖는다면 그 집안이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콩가루 집안이다. 가정에, 사회에, 국가에 우리 이 민족에게 상호 반목과 분열만이 있을 뿐 자비와 사랑과 화합대중(和合大衆)은 찾아볼 수 없다.

우리가 여기서 유태민족의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흡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당시의 그들에게는 민족적인 분열과 엄청난 패륜이 벌어졌었다. 그리고 그들은 저희들 족속의 덕 있는 사람과 선지자(先知者)들을 업신 여기고 구박하고, 잡아 죽이었다. 그런 결과 유태민족은 늘상 남의 나라 지배만 받고 끝내 자주독립을 하지 못하였다. 이들을 건지려고 많은 선지자들이 나서 민족정신을 불어 넣었지만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구원을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여 산상수훈(山上垂訓)을 하였지만, 유태민족은 그것이 최후의 기회였음에도 이를 알아듣지 못하고 그를 아주 형편없이 잡아 죽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자기 민족의 적인 로마군에게 넘겨 그 로마군의 형틀인 십자가에 매어 달게 하였다.

원공제중생왕생안락국(願共諸衆生往生安樂國). 원컨대는 모든 중생과 더불어 이와 같은 칭찬여래의 행동을 함으로서 안태(安泰)하고 즐거운 지경에 도달하여 참말 사람다운 생활을 영위하여야겠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대구불교 범음.범패 의식(속성) 학인모집

본 교육원에서는 제2기 수강생을 수시 모집합니다.
■ 개강일시 : **2014년 5월 23일(금요일) 오후 3시 ~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암판사진 3매

초급속성반 (3개월)
요령목탁사용법, 천수경, 반야심경, 새벽도량석, 조석종성염불, 각단예불, 행선축원, 사시마지불공,관음시식.
□ 주1회 :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

중급속성반 (10개월)
시련, 삼신이운, 104위신중작법, 화천수, 당일천도 및 49제의식, 다비편, 방생편, 각종고사, 불상 및 탱화 점안, 위패접는법, 전오리는법, 요잡쇠, 지의접는법, 천수북, 정근북, 신중작법북, 가지게북, 구병의식, (상가)시다림염불.
□ 주1회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

작법 (주1회)
복청게, 사다라니바라, 천수바라, 화의재바라.(오공양작법)
□ 매 주 : 토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

■ 자세한 문의사항은 본 교육원에 직접나오셔서 상담해 주시길 바랍니다.
■ 교육원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2동 871-1번지
(우방미진하이츠 정문 맞은편)
☎ 전화 : 053)781-4200 / H·P 010-2547-4200

대구불교 범음.범패의식 교육원 원장 동현 합장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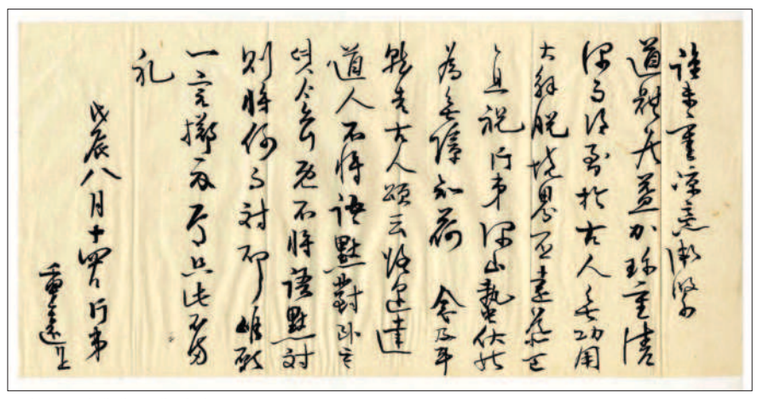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 (소장 : 처명)



한암(漢岩) 선사의 편지 〈7〉

말도 침묵도 안 된다면…



경봉 스님에게 보낸 편지

경봉 스님에게 보낸 편지

삼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점점 서늘해져 가는 이때에 도체(道體, 법체)가 더욱 평안, 청정하시며, 그리고 고인(古人)들의 공용(功用) 없는 대해탈 경계에 이르셨는지요. 멀리서 빌고 또 빕니다. 나는 깊은 산에 칩거하여 아무 장애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염려해 주신 덕분인 줄 압니다.

드릴 말씀은 고인(古人)의 게송(偈頌)에 "길에서 도(道)를 깨달은 사람을 만나면 말로도 침묵으로도 대하지 말라(路逢達道人, 不將語默對)."는 말이 있는데, 이미 말로도 침묵으로도 대하지 않는다면 장차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오직 원컨대 한 마디 일러 주십시오. 이만 줄입니다. 답의 예를 갖추지 않습니다.

무진(1928년) 8월 14일
한암 중원(漢岩 重遠) 거듭 절하고 올립니다.

이 편지는 1928년 8월 14일에 경봉 스님에게 보낸 편지이다. 짧은 서간인데, 그러나 서간이라기보다는 전형적인 법거량(선문답)이다. 선어(禪語)에 "길에서 도인(道人)을 만났을 때(路逢達道人) 말로도 침묵으로도 대하지 말라(不將語默對)."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경봉 스님은 어떻게 대할 것인지, 한 마디 말해 보라는 것이다.

자, 어떻게 상대하는 것이 옳을까?

달도인(達道人)이란 도를 깨달은 사람, 각자(覺者) 즉 깨달아서 부처가 된 사람이다. 그는 집착 없는 무심인(無心人)으로서 사량 분별과 정식(情識, 감정이나 理性)이 다 사라진 사람이다. 석인(石人)이나 목계(木鷄), 목석(木石)같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언어로도 통할 수 없고, 침묵으로도 통할 수 없다. 손짓 발짓도 안 된다. 그는 이성적인 사고나 감성, 감정 등 언어가 두절되어서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마음이 있지만 감성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자〉에 보면 목계(木鷄) 이야기가 있다. 아주 싸움을 잘하는 닭이 있는데, 어느 날 나무로 만든 닭[木鷄]을 만나서 일전을 벌였다. 그런데 싸움을 잘 하는 닭은 결국 나무 닭에게 지고 말았다. 왜 졌을까? 아무리 발로 차고 덤벼들어도 목계는 무정, 무심해서 전혀 반응이 없었던 것이다. 싸움닭은 제풀에 나가떨어졌다.

'노봉달도인, 불장어묵대(路逢達道人, 不將語默對)'는 〈무문관〉 36칙(五祖法演의 路逢達道)에 나오는 공안이다. 〈벽암록〉 82칙에도 나오지만, 노봉달도인 공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봉의존의 문답을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어떤 납자가 설봉선사에게 물었다. 고인의 말에 길에서 도(道)를 깨달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말로도 상대하지도 말고 침묵으로도 상대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습니까? 설봉이 말했다. 자, 차나 한잔 마시게(問. 古人有言. 路逢達道人, 莫將語默對. 未審將什 對. 師云. 且喫茶去)."

'노봉달도인, 불장어묵대' 서신통해 경봉 스님과 법거량

도(道)를 깨달은 사람은 무심의 경지에 있으므로 어떤 방법으로도 상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놔두고 차나 한잔 마시자는 것이다. 무심의 경지에서 차를 마시는 것, 그것이 무심의 경지에 있는 달도인을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일체 생각을 잊고 그대와 내가 차 한잔을 나누는 것, 그것이 상대적인 의식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인 의식이 없다면 달도인도 별 수가 없을 것이다.



윤창화(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휴식과 소통은 불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문화포교

'내비둬 콘서트' 일감 스님 (조계종 기획실장)

경쟁이라는 사회흐름, 시대흐름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저마다 안에서는 '나를 내버려 둬!' '내 방식대로 내 행복을 찾아갈 거야!' 하고 외치지만 어느새 경쟁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스스로 낙오자가 되고,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해한다.

각박한 세상에서 지친 현대인들에게 하나의 청량감으로 다가왔던 자리가 있다. 바로 금산사 '내비둬 콘서트'다. '내비둬 콘서트'는 산사에서의 휴식은 물론 일감(日監) 스님과 매번 다른 게스트들이 함께 소통하는 토크콘서트로 대표적인 템플스테이로 꼽힌다.

'내비둬 콘서트'의 면면을 보면 참으로 신기하다. 산사에서의 휴식이 여타 템플스테이와 다를바 없지만 콘서트에는 특유의 웃음과 울음이 있다. 일감 스님과 참가자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세상의 짐을 내려놓는다.

그래서 일까. '내비둬 콘서트' 초기에 십수명에 불과했던 콘서트 참여인원도 이제는 열릴 때마다 수십에서 기백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한다. '아니, 절집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멀 한다고 그래' 라고 생각할 법도 하지만 행사를 진행하는 일감 스님의 말을 들어보면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그만큼 우리사회가 휴식과 소통에 굶주려 있다고 생각해요. 프로그램의 성패를 떠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잠시나마 웃고, 또 쉬며 삶의 힘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불교가 할 수 있는 문화포교라고 생각합니다."

문화포교 원력, 멕시코로 이어져

스님은 출가하면서 대중들과 함께 하는 포교가 불교의 미래라고 생각했다. 1989년 이십대 중반의 비교적 늦은 나이에 출가한 일감 스님은 성철 스님 상좌인 원융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그 밑에서 수학했다. 출가 전에 본 성철 스님의 〈자기를 바라봅시다〉와 〈선문정로〉가 출가 계기였다.

문화포교에 대한 스님의 오랜 생각은 스님의 발길을 멕시코로 향하게 했다.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제방 선원에서 수행 정진하던 스님은 보리사 반야선원 주지로 3년간 멕시코에서 활동했다.

"월드컵 끝나고 나서였으니 2002년 일겁니다. 우연한 기회에 멕시코 불자들이 부처님을 모시고 싶다고 해서 복장을 하러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포교당을 세우고 나니 돌아오지 못하겠는 겁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불법만이 아니었어요. 한인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고국을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 자리 만드는데 3년이 걸렸어요."

스님은 반야선원을 한인들의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사물놀이반, 연극을 비롯해 인문학 강좌 등 문화활동을 주축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한인 자녀들이 법당에서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컴퓨터 10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런 문화적 접근은 효과를 보았다. 한인 불자들이 힘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한 것이었다. 스님은 이 힘을 바탕으로 멕시코 이민 역사상 처음으로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를 개최하기도 하고 한인문화원을 세우기도 했다. 멕시코에서 스님은 민간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했다.

1989년 출가하며 '문화포교' 서원
2002년 멕시코서 3년간 전법활동
해인사 음악법회 '화엄만다라' 기획
금산사 수련원장 자리 옮겨 활동

휴식형 템플스테이 도입 높은 호응
인기 진행자, '내비둬 콘서트' 시작
자성과쇄신추진본부로 종단 소임
"종단 백년대계 수립 돕고파"

2005년 귀국 한 스님은 해인사 포교국장을 맡아 첫 음악법회인 '화엄만다라'를 추진했다. 여기저기서 산사음악회가 열렸지만 정말 제대로 된 음악법회를 해보고 싶은 원력에서였다. 하지만 해인사는 팔만대장경을 포함해 국보급 문화재만 70여 점이 있는 고찰. 무작정 대중에게 산문을 대거 개방하기란 쉽지 않았다.

"법회 형식을 띄긴 했지만 방장 스님 등 큰스님들이 유달리 많은 해인사로선 법당 바깥에서 예불을 결정하는 것부터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당시 '템플스테이' 도 함께 실시했는데 대중들이 잘 방이 모자라 승가대학 스님들의 거처인 관음전까지도 내주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문화포교의 원력 아래 결국 화엄만다라는 2000여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해인사라는 무거워 보이는 그 이름에서 유쾌한 어울림 마당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문화포교'라는 큰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일감 스님의 복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산사에서 휴식형 템플스테이 도입

스님은 이후 2006년부터 금산사 수련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문화포교에 진력했다. 여기서 스님은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당시 자살문제가 크게 이슈화 됐을 때였습니다.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문제가 연일 기사에 나오고 했어요. 그때 생각했죠. '수련회 방식으로 불교전통을 체험하는 템플스테이와는 다르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구요. 주변에 물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이 '나를 좀 나뒀으면 좋겠다' '집에서도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다' '어디가서 푹 쉬었으면 좋겠다' 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와서 쉬다 가세요' 라는 의미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냥 편히 쉬어가는 프로그램이었지만 스님은 여기에 재미도 더했다. 스님 특유의 유머스러운 대화가 바로 그것이었다. 휴식형 템플스테이였지만 참가자들이 가장 좋았다고 후기를 남기는 부분이 바로 '일감 스님과의 대화' 코너였다. 일감 스님은 금산사를 찾은 이들에게 '인기 짱 스님' 이었다.

여기에 힘입어 스님은 2012년부터 휴식형 템플스테이와 토크콘서트를 함께하는 '내비둬 콘서트'를 열었다. 내비둬 콘서트는 매월 마지막 주 주제를 정해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고 또 중간 중간 음악도 듣는 방식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스님은 해고노동자, 다문화가족 등을 초청하기도 하는 등 우리 사회의 소외받는 이웃들과 일반 시민들이 함께



참가자들과 음악 치유하는 '내비둬 콘서트'



2005년 해인사 '화엄만다리'의 모습



달인 김병만씨와 장애우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감 스님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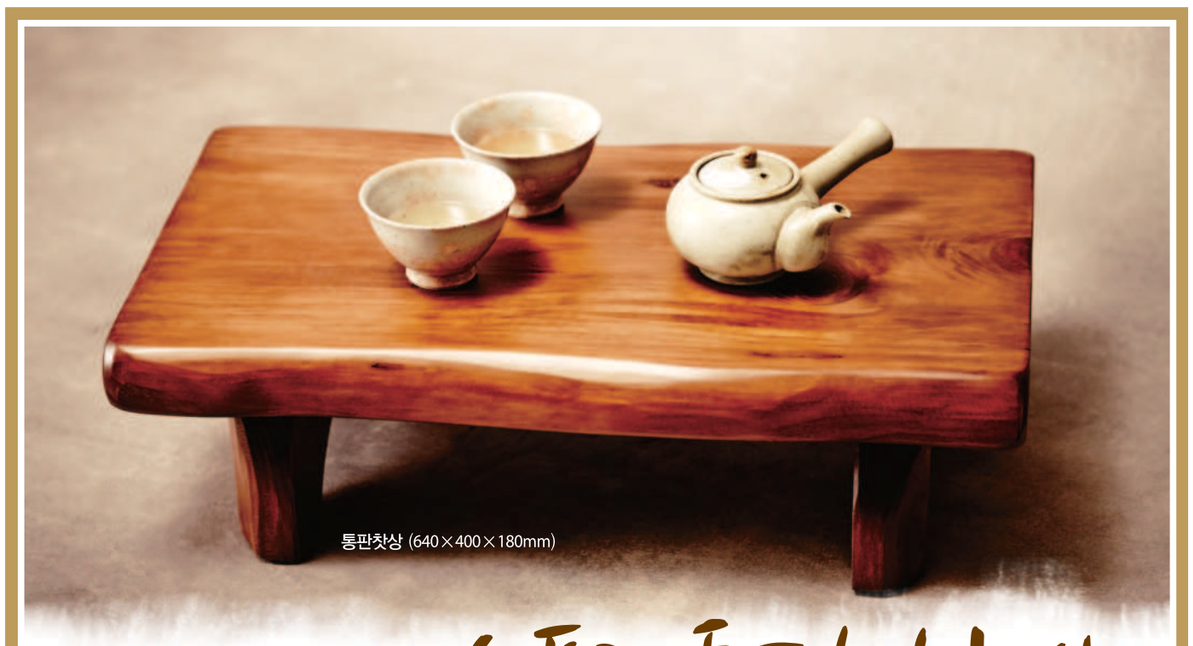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3219-7180 / 010-3743-5167



통판찻상 (640×400×180mm)

아름다운 자연의 향기와
전통가구의 정겨움을 담은 수풀림 통판찻상

100% 국내제작

소나무 원목을 사용하여 **전통가구 장인이 전통가구 제작기법으로 제작**한 튼튼하고 자연스러운 나뭇결의 아름다운 문양이 살아 숨 쉬는 **고급스러운 찻상**입니다.

- 늘 곁에 두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아담한 크기**
-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소나무 나뭇결 문양**
- **낙동법**을 사용한 전통가구 제작기법으로 제작하여 **튼튼한 내구성 보장**

입금계좌 농협 121078-56-121535 (류정애) 정가 ~~150,000원~~ 할인가 90,000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기술이전업체
수풀림숯침대(주) www.supullimbed.co.kr

친절상담 · 주문전화 ▶ 080-999-1080

소통하는 자리로도 내비둬 콘서트를 활용했다. 휴식과 재미, 또 주변을 돌아보는 기회까지 주어지자 이를 찾는 이들은 늘어만 갔다.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스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줄까. 스님은 대중들이 가까이 있는 행복을 먼저 찾으라고 강조한다고 말했다.

"만나는 사람 대부분이 지쳐있어요.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미 자기 안에 행복이 있는 거죠. 가령 '이미 휴가를 와서 이렇게 대화하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휴가를 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라고 말하면 모두들 표정이 밝아져요. 고통이 역지사지로 보면 아직은 견딜만 하다는 증거입니다."

종단 백년대계 세우는데 일조 다짐

대중들과 소통하는 스님의 활동에 주목한 것이 바로 조계종 자정과쇄신결사추진본부였다. 소통과 화합을 기치로 건 추진본부에서는 스님의 이런 모습에 큰 기대를 걸었다.

스님은 2011년부터 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을 맡아 사회 곳곳의 현안에 몸으로 부딪혔다. 특히 특유의 친화력으로 여러 스님들과 대중이 함께 소통하는데 주력했다. 이후 스님은 2013년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을 맡게 된다.

"바쁘다고 말을 하면 능력없다고 생각될 듯 하지만 참 바쁜 자리입니다. 그동안 편안하게 지냈구나 느껴요. 바깥에서 종단을 바라볼 때는 백년대계를 세우는데 일조하고 싶다는 생각에 오게 됐지만 막상 들어오니 여러 기획을 현실화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불교계를 옥죄는 규제법령 해제 등 많은 과제들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나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스님은 최근 종단에서는 연등회가 무사히 회향하게 돼 무거운 짐을 덜었다고 털어놨다.

"이번 연등회는 외국인의 참여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으로 종단차원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적인 큰 아픔인 세월호 사태가 발생했죠. 연등회는 축제이기도 하지만 나라의 위기나 국민들의 단결된 힘이 필요할 때면 큰 슬픔을 위로하고 힘을 모으는 자리로 열리기도 했기에 추모의 장으로 진행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많은 걱정을 했지만 다행스럽게 잘 끝낼 수 있었어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불자들의 위로와 추모의 마음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스님은 이어 불자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사회의 생명가치를 되살리는데 앞장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돌아보면 가장 중요한 생명 등의 가치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한게 아닌가 싶어요. 돈이나 명예에 치우치다 보니, 생명을 경시하고 몰라보는 지경에 와있습니다. 불자들이 이번 계기로 생명의 소중함 가치를 더 많이 얘기하고 그런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문화포교 일선에서 매진 할 것

스님은 종단 소임을 마친 후에는 문화포교 일선으로 돌아가 새로운 포교 방법을 찾고 전개하는데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찰에서 하는 '문화포교' 라는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사찰에 오면 내 곁에서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 잠시나마 세상사를 잊고 쉴 수 있다는 것,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문화포교' 라고 생각해요. 주변에서 불자들을 보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마음에는 여유가 없어요. 이런 불자들과 불교를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절을 한번을 찾아와도 '아, 참 좋구나. 잘왔구나' 하며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스님은 여러 고찰에서 문화포교를 하며 먼저 젊은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또 그것이 불교의 힘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스님부터 여러 문화포교 사업을 진행하며 각 사찰이 사찰하면 으레 떠오르는 어르신 일색에서 탈피해 젊은 사람들이 크게 늘어 '문화' 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문화포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주무자인 스님과 실무자가 자주 바뀌는 겁니다. 대표적인 템플스테이 만도 해도 실무자가 자주 바뀌어요. 이런 문제는 종단에서 해결해줘야 합니다. 또 문화포교 일선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도 육성해야 겠지요."

스님은 불교계에서 사찰음악회, 사찰음식 강좌 등 기존에 문화포교 영역이 많기에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불교연극과 인문학 강좌 등 새롭게 개발되는 분야도 많다고 소개했다.

"결국 불교의 품으로 오는 사람들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휴식을 원하기에 사실 복잡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백년 전 스님들은 당시에 어떻게 포교했을까요. 복잡한게 아니라 단순한 것에 해법이 있는 듯합니다."

스님은 끝으로 불자들이 힘을 모아 불교한류를 꽃피울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한류가 무르익은 지금 이제는 불교한류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서양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불교를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불교는 그 저변이 더욱 넓어질 겁니다. 21세기는 '문화포교' 의 시대입니다. 문화와 포교활동을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어요. 보다 많은 사람, 여러 곳으로 시야를 돌려 사찰로, 불교의 품안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일감 스님은 … 원융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후 1990년 해인사에서 법전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94년 범어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한 이후 봉암사 태고선원, 해인총림 선원, 고불총림 선원 등에서 정진했으며 멕시코 보리사 주지,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총무원 재무부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총무원 기획실장을 맡고 있다. 특히 스님은 금산사 수련원장으로 있으며 특색있는 템플스테이를 구성해 사찰별로 템플스테이가 차별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전법일기

교회 짓는 스님

5사단 군종참모로 있을 때의 일이다. 부임해 종교 시설을 살펴보니 올라가다만 건물 한 채가 눈에 띄었다. 교회를 짓기 시작하다가 예산이 모자라 6개월째 방치돼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우선 담당 군종목사를 불러 자초지종을 알아보았다.

"서울의 모 교회가 교회를 지어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계획이 취소가 됐다고 알려왔습니다. 다른 방도가 없어 일단 예전처럼 외부에 나가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군목이 중위이기에 그런 건 아닐까. 중령인 내가 가면 달라지지 않을까.'

서울에서 사탕을 한 아름 사서 사단 목사를 대동하고 그 교회로 찾아갔다. 그들에게 누구를 만나야 교회를 마저 다 지을 수 있느냐고 묻자 그들은 원로 목사인 한경직 목사를 찾아가라고 했다.

사단목사와 함께 남한산성 중턱의 한경직 목사의 거처로 걸음을 옮겼다. 한 목사를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이니 스님인 내가 조를 수밖에 없었다.

"목사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역사는 끝없이, 중단 없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왜 우리 부대 교회 신축공사는 중단된 것입니까. 돈 때문에 그 역사가 중단돼서야 되겠습니까? 기독교를 믿는 장병들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허허, 스님이 아니십니까. 어찌 교회를 지어달라고 하는 겁니까?"

"제 개인적인 신분은 스님이지만 사단 군종참모로 교회를 원하는 장병들을 위해서는 교회를 지어줄 직분에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마음을 내시면 사단 측에서도 힘을 모을 것입니다."

한 목사는 흔쾌히 승낙했다. 그 자리에서 교회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원을 재개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교회 측에서는 현장방문 이후 결정하겠다고 답해왔다. 산간벽지에 큰 교회를 짓는 것 보다 도시에 교회를 짓는 것이 전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사단으로 돌아와 교회 간부들이 온다는 날에 맞춰 군악대 등을 동원해 화려하게 이들을 맞았다. 당시 교회가 없어 예배를 보지 못한 기독교 장병들도 함께 나와 이들을 환영했다. 결국 이들은 사단 교회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나는 공병들을 동원해 직접 교회 신축공사도 감독했다. 공사 내내 군목이나 기독교 장병들이 스님인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교회를 짓는 것을 보고 의아해 하기도 했다.

교회가 완성되자 그동안 부대 밖 민간교회로 나가야 했던 장병들은 부대 안에 훌륭한 교회가 생기자 환호했다.

교회 간부들은 스님인 내가 교회를 지어주어 고맙다면서도 한마디를 놓치지 않았다. 기왕 교회까지 지어주었으니 개종하면 더 잘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지 말고 개종해서 큰 교회 목사님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내 뜻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질문이었지만 그렇다고 화를 낼 일도 아니었다.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

"다 부처님 손바닥 안이고, 하나님 품 안인데 어디서 논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군 내에 군종업무를 책임질 때는 배타적인 종교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찰이든 교회든 성당이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로 지원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교를 떠나 장병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그로 인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올바른 기독교인은 올바른 불교인 만큼이나 소중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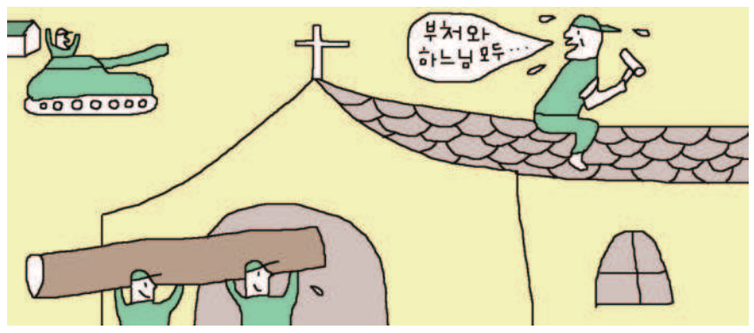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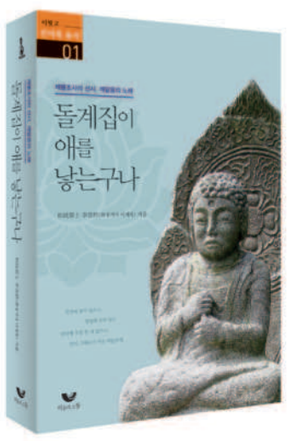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자광 스님
(前 군종교구장 · 용인 반야선원 주지)



삼매(三昧)의 채로 걸러진, 뼈를 깎는 수행의 결정체
오도송 · 전법게 · 열반송 · 선문답 통해 참마음 깨닫기

제불조사의 선시, 깨달음의 노래
돌계집이 애를 낳는구나

이계묵 지음 | 신국판 | 무선 | 흑백 | 636쪽 | 28,000원

제1부 과거칠불과 선종 33조사의 전법게, 제2부 고승 · 대덕의 오도송과 수행송, 열반송을 모아 번역하고 해설했다. 제3부는 저자의 견도송(見道頌)을 비롯한 자작(自作) 선시와 선문답들로서 40여년간 참선하면서 그때그때 느끼고 깨달은 바를 노래한 책이다. 해인사 강주를 역임, 수행자들에게 선(禪)과 유식(唯識)을 지도해온 화정 이계묵 노거사의 역작(力作).

지상 불국토의 발원이 담긴 앙코르 와트 건설한
앙코르 제국의 불자 대왕, 자야바르만 7세

자야바르만 7세, 앙코르 제국의 대왕
소설 앙코르 와트

이형종 지음 | 신국판 | 부분 컬러 | 352쪽 | 15,000원

주캄보디아 대사관 총영사를 역임한 이형종 외교관이 지은 이 책은 자야바르만 7세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형식으로 앙코르 제국의 역사와 유적을 흥미진진하게 소개한 역사 · 전기소설. 부록에 첨부한 앙코르 왕들의 연대기와 유적 일람표, 앙코르 제국의 영역지도, 시엠립 관광지도와 함께 캄보디아의 유적과 캄보디아인들의 풍속과 삶을 촬영한 사진들이 소설을 읽는 재미와 함께 역사적인 안목으로 앙코르 와트를 살펴보게 한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
출판기념회 및 법보시 안내

저잣거리 수행전법도량인 열린선원의 개원 9돌과 열린선원장 무상법현스님의 수상록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의 출판기념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함께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날 짜 : 2558(2014)년 5월 31일(토)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

▶장 소 : 열린선원(☎02-386-4755)
은평구 연서로 17길 18-6, 205호

▶내 용 : 개원 9주년 기념 및 출판기념법회
(설법, 축사, 축가, 인사, 공양자리)



※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을 법보시 하기 위해 50권 이상 주문하실 분은 법현스님(010-5245-037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프로방스, 열린선원 정연위원 일동 합장

서양에서 불교 성장은… '낙관적'

뉴욕타임즈, 가필드 교수의 불교관 인터뷰 게재

서양에서 불교는 이제 '이국적인 종교'라는 허울을 벗은 듯하다. '토종' 서양인이라도 도심의 불교 사원이나 명상센터의 문을 두드리는 데 망설이지 않고, 글로벌 다국적 기업 역시 직원 교양 프로그램으로 명상을 적극 고려하고 있으니 말이다.

과연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최근 〈뉴욕타임스〉 지와 인터뷰를 한 제이 가필드(Jay Garfield · Yale-NUS College) 교수의 "사성제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서양인의 정신세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고, 서양인들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에서 찾을 수 있다.

〈뉴욕타임스〉 지는 현재 종교를 주제로 관련 학자들과의 기획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 기획연재로 불교철학을 전공한 제이 가필드 교수와의 인터뷰를 지면에 게재했다.

이번 인터뷰에서 "서양인에게 사성제는 새로운 가치관"이라고 주목한 가필드 교수는 "불교를 접한 서양인들은 고집멸도라는 사성제에 힘입어, 내게만 몰입했던 형이상학적 철학관에서 벗어나 주변과의 조화 속에서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그 시점이 바로 불교 서양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때"라고 말했다. 또한 "불법승 삼보 역시 서양인에게 '소통하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도 덧붙인 가필드 교수는 "'불'과 '승'은 서양인들에게 영적인 커뮤니티를, '법'은 영적인 인생관의 전형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가필드 교수는 서양에서 불교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먼저 아브라함 전통의 종교관 즉, 유일신 사상이다. 이 사상은 특히 종교철학자들이 불교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서양에서 태동한 종교철학은 유일신 사상에 근거한 연구 방법론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방법론은 불교를 올바로 연구하는데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눈을 멀게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한 가필드 교수는 "그러나 오래지 않아 불교는 이 역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불교의 전래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주변 문화와의 조화인데, 이 점이 불교철학계의 연구 풍토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예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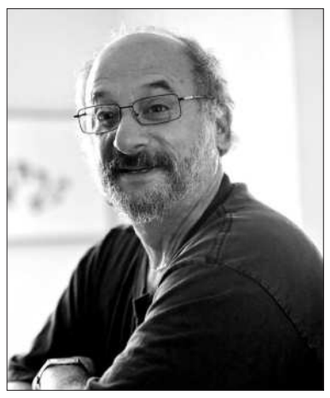
종교철학의 기본 프레임인 아브라함 전통(유일신)은 '신앙의 융합'을 금기시 하지만, 이는 세계 종교의 일반적인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는 점에서 서양 종교철학계의 연구 방법론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불교의 경우, 그 흐름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일본에서는 불교와 신도, 네팔에서는 불교와 힌두교, 중국에서는 불교, 유교, 도교 등이 서로의 신앙을 공유하며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지는 "이는 서양의 철학자 중에서 흄, 쇼펜하우어, 니체와 종교인 중에서 토마스 머튼 등이 불교 교리에 깊은 관심을 보인 이유이기도 하다"는 가필드 교수의 말을 인용하고, "더 긍정적으로, 불교의 전통은 서양인의 삶에서 고를 여의고 나아가 '자신을 보고, 우리를 격려' 하는 이해를 가르치며 공존과 배려의 가치를 심어주고 있다"며 "이는 불교가 서양의 문화와 더욱 긴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덕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뉴욕타임스〉 지는 "불교, 특히 대승불교는 낙천적인 종교"라는 가필드 교수의 말에 주목하고 "이 점 역시 서양인에게 불교를 강하게 어필하는 단초"라며 "미래의 삶을 믿고 나아가면 어떤 각성의 단계에 다다를 수 있다는 부처임의 가르침은, 서양에서 종교로써의 불교가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뉴욕타임스 지〈사진 왼쪽〉와 인터뷰한 제이 가필드 예일대 교수.

"누가 네팔불교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가?"

바드라 렛나 교수, "네팔불교 연구, 서양 학자들이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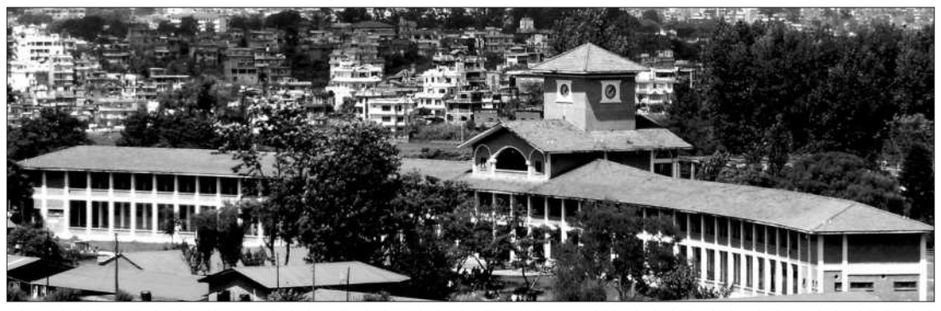
네팔의 공공미디어 〈Republica〉가 5월 14일 네팔의 한 불교학자의 자성의 목소리를 전해 주목된다. 〈Republica〉는 "80년대를 기점으로 네팔불교 연구의 주류가 독일, 영국, 미국 등 서양으로 옮겨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네팔의 불교학도들이 서양의 불교학자들에게 배우고 있다"는 바드라 렛나(Bhadra Ratna Tribhuvan University) 교수의 말을 전했다.

바드라 렛나 교수에 따르면, 80년대 이전에는 서양의 불교학자들이 네팔불교를 배우기 위해 네팔을 찾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서양의 불교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네팔의 불교학자들에게 강연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

즉, 서양 불교학자들의 연구의 깊이가 이미 네팔 불교학자를 따라잡았고, 이제 자신의 사유로 네팔의 불교학자와 학도를 이끄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양 불교학자들의 영향은 네팔 불교학도의 연구 방향으로도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드라 렛나 교수는 "최근 네팔불교의 연구는 서양 불교학계의 연구 지원금 혜택이 있는 '불교와 히말라야', '불교와 평화' 등의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는 불교교리 · 역사 · 문화 등 네팔불교학의 깊을 더하는 연구가 소외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Republica〉는 "따라서 네팔 불교학계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는 바드라 렛나 교수의 말을 인용, "장학제도 개선, 불교도서관 건립, 연구기관 지원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최근 네팔의 불교학 전공자들은 서양의 불교학자들에게 배우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사진은 네팔 바드라렛나 대학 전경.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여성 이슬람교도와 결혼한 미얀마 불자 남성
미얀마 ID 카드를 든 채, 난민 캠프에서 전전

미얀마의 종교 편견이 한 사람의 운명까지도 왜곡시키고 있다고 〈Alaska Dispatch〉 지가 13일 보도했다.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미얀마 라킨(Rakhine) 주에서 살고 있는 모하메드 씨드(Mohammed Saed)씨를 조명한 〈Alaska Dispatch〉 지는 "미얀마의 남성 불교도로서 여성 이슬람교도와 결혼한 그는 이슬람교도 가족과 함께 난민 캠프에 살고 있지만, 가족의 생필품을 살기 위해서는 아웅 레이 툰(Aung Lay Tun)이라는 이름이 적힌 미얀마 ID 카드('주민등록증'의 일종)를 들고 미얀마 사장을 찾는다"고 전했다.

〈Alaska Dispatch〉 지에 따르면 그가 여성 이슬람교도와 결혼 사실이 알려지면 '살해' 위험까지도 감소해야 한다. 그래서 모하메드 씨드의 장보기는 시장 분위기와는 다르게 '은밀' 하고 '조용' 하다.

"5년 전까지 불자였다"고 말한 모하메드 씨드 씨는 "그러나 사랑하는 여성이 이슬람교도이고 개종해야만 결혼할 수 있어서 개종을 결심했고, 가족의 안전을 위해 그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며 "지금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이슬람교도 난민 캠프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얀마에서 이슬람교도와의 결혼은 금지되어 있다. 급진적인 불교지도자 아신 위라투(Ashin Wirathu) 스님이 지난해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이슬람교도와의 결혼을 제한하는 법령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법을 어길 경우, 10년 징역, 재산 몰수 등의 처벌을 받는다.

〈Alaska Dispatch〉 지는 "과거 미얀마에서는 불교와 이슬람교는 평화롭게 공존했다"는 모하메드 씨드 씨의 말을 인용하고, "그는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길 희망하고 있지만, 미얀마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며 "미얀마 정부가 4%에 불과한 이슬람교도를 추방할 뜻을 묵시적으로 가지고 있어, 미얀마에서 이슬람교도의 삶을 위험에 더욱 노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여성 이슬람교도와 결혼한 미얀마 남성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이슬람교도 난민 캠프에서 살고 있다. 사진은 이슬람교도 난민캠프 모습.

日, 백제계 행기스님 유적에 한글병기 간판

생가와 건립 사찰 등에 안내판 설치

일본 오사카(大阪)부 사카이시가 7~8세기 일본 민중불교 지도자로 활약한 행기(行基) 스님(668~749)이 백제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적은 한글병기 안내판을 주요 사적지에 설치했다고 오사카 한국총영사관이 5월 10일 밝혔다.

사카이시는 최근 행기 스님의 생가인 에바라지(家原寺), 스님이 세운 사찰인 오오노지(大野寺)와 흙탑(土塔) 등에 행기 스님이 백제에서 건너 온 왕인 박사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한글 및 일본어로 소개한 안내판을 설치했다.

행기 스님은 일본에서는 '보살'로까지 추앙받는 대표적인 민중불교 지도자다. 15세 출가해 20년을 수행한 행기 스님은 포교활동에 자신의 모든 원력을 쏟아부었다. 교각과 제방, 고아원, 도량 등 사회 제반 시설을 건립해 민중을 도왔고 스님을 쫓아 제자가 된 사람들이 수 천명에 이르렀다.

행기 스님의 세력이 두려웠던 당시 야마토 정권은 행기 스님을 옥에 가두는 등 탄압했으나, 그의 대중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나라 도다이지(東大寺) 대불 기금을 권선하는 중책을 행기 스님에게 부탁했고, 대불 조성 불사는 원만히 회향하게 된다. 이런 공로로 행기 스님은 대승정에 지위까지 올랐다.

현재 행기 스님의 고향에는 스님에 대한 박물관이 있으며 도다이지에 가기 위한 기차역 광장에는 행기 스님을 기리기 위한 동상도 세워져 있다.



도다이지에 가기 위한 기차역에 세워진 행기 스님의 동상. 행기 스님은 백제 후손이다.

한편, 이현주 주 오사카 총영사는 지난 8일 다케야마 오사미(竹山修身) 사카이 시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사카이시의 조치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확인천도
영능력개발과정 전수자모집

전 수 내 용

❶ 그 자리에서 환자의 몸을 통한 빙의 일반병 확인 하는 방법
❷ 환자의 몸에서 나오는 영가의 대화법 (6하원칙 대화법)
❸ 사주와 전생의 수행능력과 빙의 영혼 구별법
❹ 고혈압, 당뇨, 아토피, 심혈관질환. 다이어트의 치유법, 영적인 질환은 冷氣 (냉기)
(스님, 신도분, 종교인,누구나 환자 상담시 2개월 치유프로그램 시행)
❺ 몸, 마음, 정신, 영혼의 작용력 이해, 영가 빛 천도법
❻ 과학적인 오오라장을 통한 빙의 수준의 이해
◆저급빙의 – 육체적인 질병을 통한 빙의 영혼의 고통 호소
◆중급빙의 – 마음적인 갈등과 영적인 갈등을 통한 방황과 혼돈
◆고급빙의 – 삶의 목적과 영혼의 목적 의식에 따른 방황
❼ 인간의 속마음을 읽는법 (인체전기장을 통한 과학적인 방법)
◆수강자 – 스님. 대체의학연구자, 종교인, 영적인 현상을 이해 하고자 하는 분. 삶의 목적의식을 찾고자 하는 분, 깨달음의 이해.윤회의 법이해 이론, 책자(전수용) 실습
– 강의는 수강자와 협의 후 결정
❽ 효소찜질 : 사찰내의 난치병,빙의 환자치유, 목적 설치 상담
■ 보시금은 영혼 확인 상담비 : 십만원 전수료는 협의

풍운 합장

인체전기파동원 (고덕선원)
문의전화 : 010-9242-5259
오시는길 :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93 642-21

※ 경전사경 ※



1호 반야심경(한문) 2호 금강경(한문) 3호 반야심경(한글) 4호 금강경(한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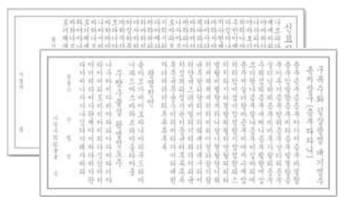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 내 지 : 70장 자연색메트지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크 기 : 220㎜×310㎜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 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신묘장구대다리 / 촘부다라니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 가 200원
- 구 성 : 한지낱장
- 크 기 : 636㎜×313㎜

※ 여러종류의 사경책 · 사경지가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바림등 8cm 3200원 (60개 이상)

등지름 24cm 〈진분홍, 보라, 주황, 빨강, 연분홍, 백색〉



양초 할인판매!!

고급 국내산 양초 "무료배송"



밀 대 (70개입) @90,000원 (2BOX이상)
돈타레 (40개입) @90,000원 (2BOX이상)
원기둥 (20개입) @90,000원 (2BOX이상)



영가옷B형-남 정가 1,300원 할인가 1,000 (100벌 이상) 영가옷B형-여



영가옷D형-남 정가 1,000원 할인가 800 (100벌 이상) 영가옷D형-여



수자영가옷 정가 900원 할인가 700 (100벌 이상)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할인가 800 (200개 이상)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00원 할인가 160 (600개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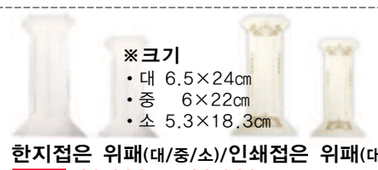
예수재함A (50개 1박스)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예수재함B (50개 1박스) 할인가 60,000 (50개 이상)



종이신발(남/여) 1켤레
100개이상 할인가 1,300원
정 가 1,600원



※크기
- 대 6.5×24㎝
- 중 6×22㎝
- 소 5.3×18.3㎝

한지접은 위패(대/중/소)/인쇄접은 위패(대/소)
정 가 30,000원 / 30,000원 (100개)
할인가 @250원 / @250원 (1000개이상)



※크기
- 15.5×19㎝

한지·인쇄접은영가옷(남/여)
정 가 27,000원 (100벌)
할인가 @240원(1000벌이상)



금강호신경
1000조 @160원
대량주문시 전화주세요.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찬덕연등의 기술을 보유한 연등시공 전문기업

보련기획 BORYEON

특가행사 진행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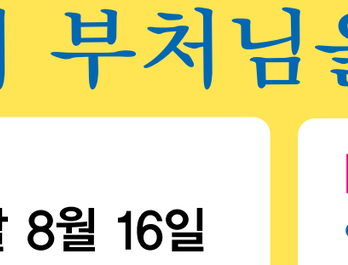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연등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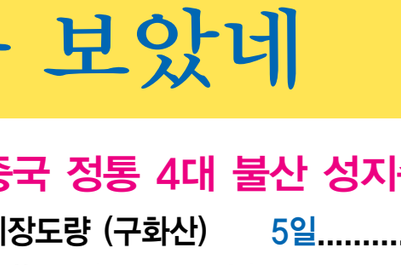
만 월 등



바 림 등



자 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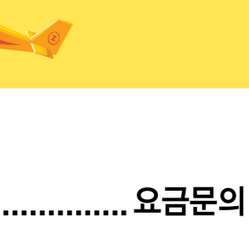


팔각주름등

공 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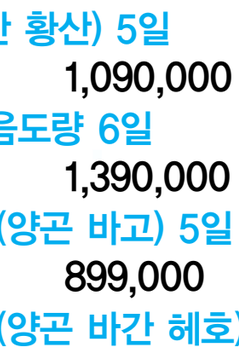
팔 각 접 등

정품 LED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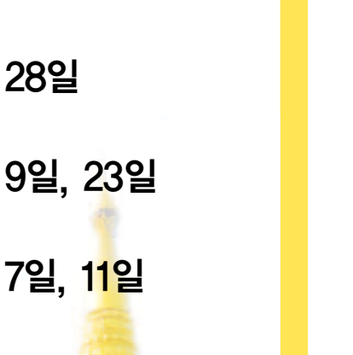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 98원/1kwh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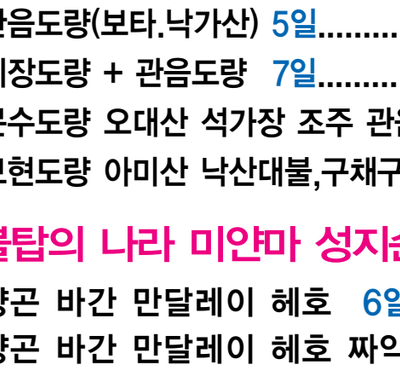
연꽃만월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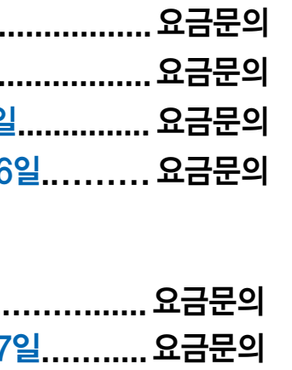
연 화 연 등



차 걸 이



인 등



보련기획 BORYEON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전화 031)526-2201 / 031)526-2202

마하연 투어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 대만 불광사 공승제 4박 5일
1,190,000 출발 8월 16일

* 중국 지장도량(구화산 황산) 5일
1,090,000 5월 28일

* 중국 지장도량 + 관음도량 6일
1,390,000 5월 9일, 23일

* 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 바고) 5일
899,000 6월 7일, 11일

* 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 바간 헤호) 5일
1,490,000 5월 28일, 6월 11일

* 은둔의 나라 라오스 성지순례 5일
1,290,000 ~ 6월 4일

* 민족의 영산 백두산 4일
990,000

【중국 정통 4대 불산 성지순례】
- 지장도량 (구화산) 5일.....요금문의
- 관음도량(보타.낙가산) 5일.....요금문의
- 지장도량 + 관음도량 7일.....요금문의
- 문수도량 오대산 석가장 조주 관음원 6일.....요금문의
-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대불,구채구 황룡 6일.....요금문의

【불탑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6일.....요금문의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짜익티오 7일.....요금문의

【품격 성지순례】
- 스리랑카 정통 성지순례(직항) 7일.....요금문의
- 은둔의나라라오스성지순례(직항) 5일.....요금문의
- 인도8대 성지순례 10일.....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요금문의
-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성지순례 5일.....요금문의

www.mahayeon.com
(주)마하연 투어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법정 스님께 불교의 방향 묻고 싶었죠”

‘김호석-묻다’ 전 6월 8일까지 종로구 사간동 갤러리GMA



“우리 사회가 물신주의에 물들어 있잖아요. 지금의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의 단면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혼탁한 시기에 법정 스님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봐라봐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말이죠.”

‘김호석-묻다’ 전이 6월 8일까지 종로구 사간동 갤러리GMA에서 열린다. 김호석 작가(사진)는 조선시대 전통 초상화 기법을 오랜 기간 연구해 현대적으로 계승, 국내 인물 초상화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뿐만 아니라 일찍부터 현장과 현실에 바탕을 둔 수묵운동에 참여 역사화, 농촌풍경화, 가족화, 군중화, 동물화에 이르기까지 자신만의 회화세계를 확장시켜 왔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법정 스님의 진영과 의자, 옷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물을 통해서 이 시대 불교의 역할을 묻는다. “길상사의 요청으로 스님의 표준 진영을 그리게 됐어요. 작업을 하다보니 스님에게 묻고 싶은 말들이 생겼어요.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고 말이죠. 스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안 계시지만 이 시대의 선각자이시고 아직까지도 불교계에서 영향력 있는 분이시니 이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실 것만 같았어요.”

스님이 벗은 놓은 옷을 그려낸 ‘덧’은 껍데기만 남은 이 시대 불교 정신에 대해 묻고 싶은 마음을 담아낸다. “무심하고 소박한듯 보이지만 이 낡은 옷을 통해 스님에게 불교의 정신과 미학에 대해 논쟁을 하고자 했어요. 참선을 마치고 가볍게 일어선 뒤 자리에 남겨진 또 다른 스님을 만나고 있는지도 모르죠.”

불일암 앞에 남겨진 배추 한포기를 그려낸 ‘불일암’ 역시 단순한 듯 보이지만 내면으로 향하라는 가르침을 준다. “무소유를 말씀하신 스님께서는 농사를 지어 항상 먹을 만큼만 김장을 하고 밭에 남은 배추를 짚으로 싸서 그대로 두셨어요. 겉은 생명이 말라있지만 내면에는 온기가 살아있는 이 또한 생명체라고 생각했어요. 스님께서는 내면에 눈을 돌리고 남과 또 다른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탓하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고 자신을 성찰하는 배추가 곧 법정 스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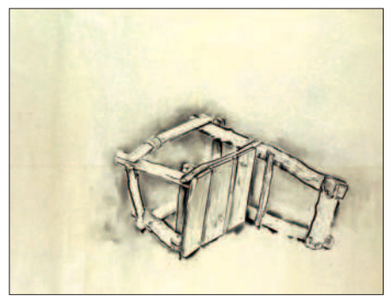
‘이제는 의자가 쉬자’는 법정 스님이 서툴게 만들어 늘 쉬고 있던 낡은 의자를 그렸다. 이제는 불일암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법정 스님의 의자’에 앉아 스님을 만나고자 한다. 하지만 작가는 작품 속에서 이 의자를 뉘어 놓았다. 스님이 떠난 뒤 의자를 쉬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다. 작가는 쉬고 있는 무소유의 법정 스님을 만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이 혼탁한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스님 진영과 사물 통해 불교의 과제 고민

또한 다양한 사물을 빌어 세상을 말하고 이를 통해 또다른 깨우침을 준다. 큰 화면에 머리만 남은 대구가 서로를 물고 뜯고 있는 ‘불이’는 몸은 하나로 2가지의 표정이 흥미롭다. 인간의 이중적 가식과 표정, 사악함과 온화함의 양면성은 서로를 물어뜯는다는 경고임에 분명하다. ‘거울 앞에서’는 자신을 보면서 허물을 보고 반성하면서 맑은 얼굴로 아름답게 살아가자는 스님의 가르침을 말한다.



‘김호석-묻다’ 전이 6월 8일까지 종로구 사간동 갤러리GMA에서 열린다. 법정 스님의 진영.



‘이제는 의자가 쉬자’



스님이 벗은 놓은 옷을 그려낸 ‘덧’

“법정 스님은 불일암에서 홀로 수행하신 독거 수좌시잖아요. 눈빛이 강하고 섞여서 살기 싫어하셨고 또 혼탁한 걸 싫어하셨어요. 이런 스님은 우리에게 무소유의 삶을 가르쳐 주고 떠나셨죠. 이제 우리는 스님의 정신을 계승한 새로운 법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작가는 법정 스님을 통해 이 시대 불교가 가야 할 길을 묻는다. 그리고 작가는 시선을 돌려 우리에게 질문한다. 당신의 내면에 불교 정신이 살아 있느냐고? 혼탁한 세상에 불교는 어떤 길을 가야 하냐고? (02)725-0040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한지로 불교문화 우수성 알려나가요”

국제 한지미술전 연 영담 스님

“동서양의 현대작가들이 ‘영담한지’라는 특수한 재료를 만나 표현한 다양한 작품으로 탄생했습니다. 각 나라의 작가들이 한지의 독특한 질감과 특성을 만나 조심스럽게 접근한 실험적, 심리적, 예술적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애불, 천년의 탑 등이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으로 탄생했다. 국제현대작가 한지미술전이 5월 15~ 20일 울산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렸다. 올해로 2회를 맞은 이 전시는 35년째 전통종이연구와 닥섬유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영담 스님(영담한지미술관 관장)이 만든 한지를 국내외 작가들이 작품으로 탄생시켰다.

“제가 만든 닥종이로 작업한 국내외 현대작가들이 함께하는 합동전입니다. 지난 2011년 워싱턴에서 전시를 하고 반응이 좋았어요. 이후 국내외 작가들이 함께하는 전시를 기획하게 됐죠. 지난해부터 국제전 참가 작가들에게 100만원 상당의 종이를 제공하고 작품을 출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국제현대작가 한지미술전입니다.”



국제현대작가 한지미술전이 5월 15~ 20일 울산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렸다. 영담 스님은 자신이 만든 한지를 참여작가들에게 제공했다.

한국작가로는 이영, 이홍원, 박대성, 현정오, 전수민, 김호연(동국대 교수), 영담 스님이 참여했고 미국작가로는 제프 워링, 죤 쉐빅, 미셸 리, 린 캠밸, 피터 키니가 함께했다. 독일작가로는 마그레트 파이파, 지바라 스타델파이어, 현희 휘셔가 이태리에서는 한스 요한나, 중국작가 박학성 등 21명이 참여했다.

스님은 한지의 세계화는 불교문화의 세계화라고 강조한다. “우리나라 종이의 역사는 절집에서 스님들에 의해 그 맥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를 거쳐, 고려, 조선시대를 이어 간행된 수많은 전적과 경전, 사경품과 시서화를 통한 예술로 남아있죠. 오늘날에는 몇몇 스님들에 의해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한지의 세계화는 결국 또다른 불교문화의 세계화를 말한다고 봐요. 한지의 역사와 특성과 물성에 짙게 배어있는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서양의 현대작가들이 많아질수록 한국불교의 문화적 우수성은 널리 알려질 것이니까요.” **정혜숙 기자**

CD로 듣는 대강백 탄허 스님 육성 법문

도서출판 교림, ‘동양사상’ 특강 CD 재편집

유 · 불 · 선에 정통했던 선지식 탄허 스님(1913~1983)의 육성 법문을 CD를 통해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

도서출판 교림(대표 서우담)은 탄허 스님이 1977, 1982년 동양사상과 현대철학, 화엄경 등의 특강내용을 CD 18장에 담아 발매중이다.

탄허 스님 특강의 재편집 및 CD제작은 스님의 속가제자 중 한 분인 명호근 전 쌍용회장의 발원으로 이루어졌다.

이 CD는 당시 강의를 들은 제자들이 녹음한 카세트 테이프에서 재편집한 것으로 참고할 수 있는 주요 목차와 내용 등을 수록한 교재도 첨부됐다.

CD 특강이 다루고 있는 분야는 방대하다. 현대철학의 이상론, 본체론과 공자, 맹자, 왕양명 등 유가, 노자와 장자 등 도가, 묵가?음양가?법가자 등 백가 등을 두루 섭렵하고 있다. 여기에 주역과 천부경, 요순 시대의 교훈과 군자의 도에 대해서도 스님은 강의했다.

당시 탄허 스님의 특강은 대학원 수료자와 사서삼경을 터득한 자, 승가대학에서 대교과를 마친 스님, 10안거를 성만한 스님이어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수준이 높았고, 이를 듣기 위해 전국에서 80여 명의 출 · 재가자가 모여들었다.

서우담 도서출판 교림 대표는 “탄허대종사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특강했던 내용을 재편집 수정해 CD로 제작했다”며 “특강 카세트 테이프를 녹취해 한문원전으로 차례를 만들고 청취에 편의성을 더했다”고 밝혔다.

평생을 역경사업에 바친 대강백이었던 탄허 스님은 생전 자정에 일어나 새벽까지 참선하고 온 종일 〈화엄경〉과 〈육조단경〉 등 불전을 번역했다. 당대의 대학자였던 양주동 박사가 탄허 스님의 장자 강의를 듣고 탄복해 넙죽 절했다는 일화는 아직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함석헌 선생도 탄허 스님에게 장자를 배웠고 현재 불교계 최고의 강백으로 꼽히는 각성 · 무비 · 혜거 스님과 강남 능인선원 지광 스님 등도 탄허 스님 문하에서 수학했다.





탄허 스님의 육성 법문이 18장 CD에 담겼다. 사진 위는 탄허 스님, 오른쪽은 CD 표지

CD집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도서출판 교림으로 하면 된다. (02)733-3334, www.tanheo.com **신성민 기자**



문화

승리하라 대한민국~ "월드컵송으로 함께 응원해요"

불자 뮤지션 비뮤티

지난해 '부처님오신날' 앨범으로 대중들을 감동시킨 비뮤티(vimutti, 본명 홍범석)가 월드컵 응원송으로 대중 곁으로 돌아왔다. 그가 작사·작곡·편곡한 '승리하라, 대한민국'은 록사운드를 기반으로 정동하, 김바다의 보이스가 환상의 조합을 이루며 'KBS 국민 월드컵송'으로 선정됐다. 비뮤티는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신나고 박진감 있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축구는 격렬한 운동이에요. 이와 잘 어울리는 록사운드를 기반으로 만든 음악을 그룹 시나위의 보컬 출신 김바다와 부활의 前보컬 정동하가 불렀죠. 주로 뛰면서 하는 축구응원의 박자에 맞춰, 한번 들으면 쉽게 각인 되어 따라 부르기 쉽고, 신나고 박진감 넘치는 곡으로 만들었습니다."

'승리하라, 대한민국'은 2014 브라질 월드컵 기간 동안 경기 중계는 물론 다양한 영상들과 조화를 이뤄 전파를 탈 예정이다. 비뮤티는 12년전부터 이 곡의 큰 틀을 마련하고 조금씩 완성해 나갔다고 한다. "다함께 즐길 수 있는 월드컵송이 나오기 위해서는 네가지 요소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선 쉬워야하고 신나고 박진감 넘쳐야 해요. 또 감동적이어야 되고 유치하지 않고 세련돼야 하죠. 12년 동안 곡을 연구해 월드컵송이 완성됐죠. 곡을 완성하고 나니 정동하, 김바다를 만나게 됐고 최고의 세션들이 참여해 월드컵송이 탄생하게 됐죠. 스님, 신부님 수녀님들도 함께 어우러져 뛰면서 응원할 수 있을 만큼 대중 모두가 월드컵송으로 신나는 월드컵이 됐으면 합니다."

무장르 아티스트를 표방하는 그는 지난해 '부처님오신날'이라는 찬불 음반을 내놓기도 했다.

당신은 나의 부처님, 미소, 부처님오신날 등이 실린 앨범에는 대중음악계의 유명 작·편곡자는 물론 기타리스트 함춘호, Tommy Kim, 체코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오페라 주역 가수들과 엔지니어 등이 참여했다. 'Buddhist Pop & Mind Healing Pop'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음반은 찬불가를 통해 대중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불교음악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다.


불자 뮤지션 비뮤티가 '월드컵송'을 작사·작곡·편곡해 주목받고 있다.

KBS 공식 월드컵송 작곡
정동하·김바다 보컬 참여
세계적 찬불가 작곡도 발원

"찬불가의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만든 음반입니다. 또한, 불자 비불자 모두 감동 받을 수 있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중음악을 담아내고자 노력했죠. 사실 기독교의 CCM이 너무 다양화 되고 발전된 반면 찬불가는 불교 안에만 머물러 있죠. 노래 부를 곳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제 음악이 불교 음악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비뮤티는 연세대 성악과와 미국 뉴욕 맨하탄 음대를 거쳐 인디애나대에서 정치학을 공부했다. 성악을 전공했지만 다양한 음악을 섭렵한 그는 2010년 12월 '클래식컬 팝' 앨범 'Rest'를 발매해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비뮤티의 이런 왕성한 활동 뒤에는 불자로서의 수행이 큰 몫을 차지했다. 해탈을 의미하는 예명 비뮤티(vimutti) 역시 그의 법명에서 가져왔을 만큼 그는 불자 음악인임을 표방한다.

"아버지께서는 전국불교신도회 회장을 하실만큼 불심이 깊으셨죠.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게 됐어요. 미국 유학시절 인디애나대 불교학인 학생회를 만들어 금강경 독송을 할만큼 열심히 활동했죠. 5년 전부터는 법왕정사를 다니며 절수행을 하고 있어요. 덕분에 일주일 동안 2만배 수행을 하는 특별한 경험도 했죠."

매일 절수행과 초기경전 독송 등 두 시간의 수행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비뮤티. 그는 매월말 3천배 수행을 통해 자신을 다져나가고 있기도 하다. 앞으로 그는 불교음악이 세계인의 음악이 되기를 발원한다. "SNS에 올린 제 찬불음악을 듣고 감동적이라는 댓글을 남기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이렇게 음악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들도 쉽게 접하고 교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음악으로 받은 감동이 불교라는 종교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부처님오신날'을 영어로 발매해 세계인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1집 녹음 당시 체코 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



'승리하라 대한민국' 앨범 자켓

학문과 차의 향기 돋보이는 우정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㉑ 강진 백련사 ㊦




정약용이 강진으로의 유배 당시 머물렀던 다산초당. 백련사 동백 숲길을 걸어 900여 미터 지점에 있다.

다산 정약용의 아버지 정재원의 시는 백련사의 외양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다. '금릉의 옛 절 쓸쓸하여 고요하다'는 표현에서 조선 후기 백련사의 사세를 짐작할 수 있다. 한 때 백련결사로 수행의 일가를 이루었던 옛 절이 '억불숭유'의 시절 인연 속에 초라하게 명맥을 잇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다.

혜장 스님과 다산의 만남

강진은 다산의 유배지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학문과 문학을 더욱 연마했기에 500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그의 유배생활에 신선한 활력소가 되었던 공간이 바로 백련사다. 백련사의 스님 혜장(惠藏)과의 만남은 그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불교에 대한 시각의 변화와 다도(茶道)를 통한 심신의 안정이 그의 학자적 정신을 고양시켰던 것이다.

1801년 강진으로 유배를 간 다산은 5년 뒤에 백련사로 찾아가 혜장 스님을 만났다.

편편청운식장천(片片晴雲拭　天)
제전호접백편편(薺田蝴蝶白翩翩)
우종옥후초소로(偶從屋後樵蘇路)
수과원두광맥전(遂過原頭穬麥田)
궁해봉춘지노지(窮海逢春知老至)
황촌무우각승현(荒村無友覺僧賢)
차심도령유관의(且尋陶令流觀意)
여설산경일이편(與說山經一二篇)

구름조각이 닦아냈는지
바다하늘 활짝 맑고
냉이 밭에 나비들도 하얗게 훨훨 나는데
우연히 집 뒤의 나무꾼 길을 따라
드디어 들머리 보리밭을 지나왔네.
바다 끝에서 봄 만나니
나도 이제 늙나보다.
외진 마을 벗이 없어
스님 좋은 걸 알았다네.
때로 먼 산 바라보던 도연명 생각이 나서
한두 편 산경을 놓고 스님과 함께
얘기했네.

화사한 봄 날, 숲길을 따라 절에 도착한 선비가 스님을 만나 서로 마음이 통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고요하고 맑은 풍경이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지는 시다. 제목은 '봄날 백련사에 가 놀다[春日游白蓮寺]'이며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5권에 실려 있다. 이 시는 다산이 혜장 스님을 처음 만난 날을 묘사한 것 같다.

다산이 쓴 혜장스님의 탑명(塔銘)에 "하루는 내가 야로(野老)를 따라 신분을 감추고 가서 그를 만나 그와 더불어 한나절까지 이야기했으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대목이 나오기 때문이다.

차 한 봉지에 얽힌 이야기

다산은 백련사를 오가며 여러 편의 시를 지었다. 대부분 혜장 스님이 등장하는데, 둘의 교분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잘 알게 해 준다. '혜장이 날 위해 차를 만들었는데, 때마침 그의 문도 색성이 나에게 무얼 주었다 하여 보내주지 않고 말았으므로 그를 원망하는 말을 하여 주도록 끝까지 요구하였다[藏旣爲余製茶 適其徒賾性有贈 遂止不予 聊致怨詞以徵卒惠]'는 제목의 시도 있다.

여가석참죽(與可昔饞竹)
탁옹금도명(卓翁今　茗)
황이서다산(況爾棲茶山)
만산자순정(漫山紫筍挺)
제자의수후(弟子意雖厚)
선생예파냉(先生禮頗冷)
백근차불사(百　且不辭)
양포시의병(兩苞施宜竝)
여주지일호(如酒只一壺)
기득장불성(豈得長不醒)
이공언충자(已空彦沖瓷)
고부미명정(辜負彌明鼎)
사린다곽대(四隣多　)
유걸장하증(有乞將何拯)
유응벽간월(唯應碧澗月)
경토운중형(竟吐雲中瀅)

옛날 여가는 대를 몹시 탐하더니
지금 탁옹은 차를 그리 즐긴다네.
더구나 그대 사는 곳 다산이기에
그 산에 널린 것 자색 순 아니던가.
제자 마음은 비록 후하지만
선생이 왜 그리 냉대란 말인가.
백 근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텐데
두 꾸러미 다 주면 뭐가 어때서
술이라도 한 병 가지고서야
못하는가.
언충의 오지그릇이 비어 있는데
미명의 솥을 그냥 놀리란 말인가.
이웃 사방에 병든 자가 많은데
찾아오면 무엇으로 구제할 것인가.
믿노라 푸른 시내 위 달이
구름 헤치고 맑은 얼굴 내밀 것을.

〈다산시문집〉 5권에 실린 이 시는 그 제목이 길지만, 제목을 읽고 본문을 읽으면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 차를 좋아 하는 다산은 혜장이 자신을 위해 덖은 차를 제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선물 받지 못하자 끝내 받아 내고야 만 일화를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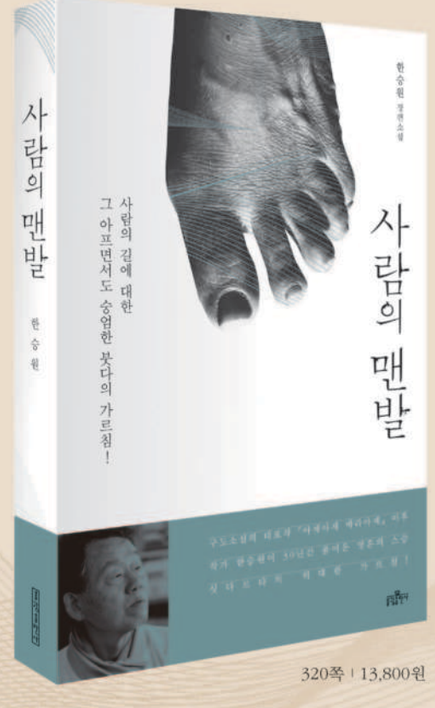
첫 구절의 '여가(與可)'는 송나라 때 대나무를 잘 그리기로 이름 난 화가다. 다음 구절의 '탁옹(卓翁)'은 다산의 또 다른 호이다. 그러니까 송나라 때 대나무를 잘 그린 화가 여가가 대나무를 탐하듯이 자신은 차를 좋아 한다는 것을 대놓고 밝히는 것이다. 속이 상한 김에 자신의 취향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이어서 차를 넉넉히 가지고 있는 혜장 스님이 제자의 말 한 마디에 흔들려 일부러 (나를 위해) 만든 차를 안주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는 항의가 재미있게 표현되고 있다.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사람끼리는 눈짓도 필요 없다. 그러나 더러 강한 어조로 항의를 하여 자신의 뜻을 분명히 하기도 한다. 그래야 다음에 구차한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한 시대의 학문과 정신문화를 가일층 성장 시킨 다산과 혜장의 막역한 교유는 백련사의 또 다른 역사이고 재산이다. 다산은 혜장의 비명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빛나는 우담발화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고 펄펄 나는 금시조가 잠깐 앉았다가 곧 날아갔네."

작가 한승원이 30년의 염원을
담아 그려낸 부처님의 생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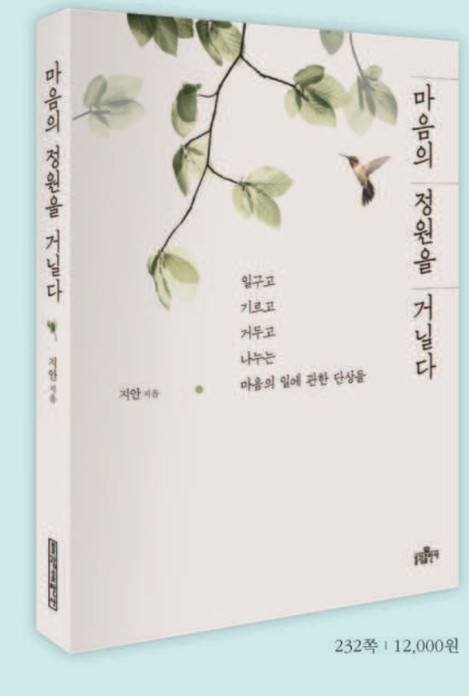
한승원 장편소설
사람의 맨발

사람의 길에 대한
그 아프면서도
숭엄한
부처님의 가르침

주요 언론사가 주목한 화제의 책!
"싯다르타가 맨발로 무소유를 실천하며 중생을 구제하기로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을 설화적 상상력으로 그려낸 소설" — 조선일보
"붓다는 계급사회 없애려 출가" — 중앙일보
"맨발로 떠난 싯다르타의 출가 정신 되새겨야" — 동아일보
"붓다의 출가는 계급차별 철폐 위한 것" — 한겨레신문

320쪽 | 13,800원

한 10년쯤 그저 기다릴 생각으로,
자신을 믿고서 천천히 걸어가라



232쪽 | 12,000원

지안 지음
마음의 정원을 거닐다

생존 경기를
벌이고 있는
현대인에게 보내는
산속 스님의 응원 메시지

"산속 생활에 만족하며 지내던 어느 날, 생존 경기를 벌이고 있는 현대인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문득 들었다. 그 무엇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제삼자의 입장을 분명히 지키면서, 누군가의 승리나 패배를 바라는 대신 경기를 벌이는 양쪽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며 응원하고 싶어진 것이다."
— 「여는 글」 가운데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7 ~ 5/1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3	도쿄대학 불교학과	정상교	동아시아
4	마음의 정원을 거닐다	지안	불광출판사
5	아들에게 남기는 어머니의 마음공부	최혜자	운주사
6	담마빠다(법구경)-빠알리어 직역	일아	불광출판사
7	선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향적	조계종출판사
8	불교의 모든 것	곽철환	행성비
9	그대에게 가는 길 - 아함의 말씀	무원	맑은소리맑은나라
10	혼자만 깨우치면 뭣 하겠는가	진오	리더스북



깨침의 이야기들, 선화(禪話)의 세계



돌계집이 애를 낳는구나

화정거사 이계묵 지음
비움과 소통 펴냄
2만8천원

"깨치면 부처와 같지만 / 다생에 찌든 버릇 아직 그대로네, / 바람 자도 물결은 출렁이고 / 이치는 드러나도 망상은 아직 있네" 보조국사의 게송이다.

책은 과거칠불을 비롯하여 마하가섭존자를 비롯한 33조사, 원효대사를 비롯한 27 고승 대덕들과 저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깨침의 순간에서 언어로 남긴 오도송 · 열반송 · 전법게 · 수행송 등 선시와 선문답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인 화정 이계묵 거사가 40여년의 오랜 수행체험을 바탕으로 제불조사의 경지를 엿보고자 평소에 보아왔던 전법게, 오도송, 열반송, 수행송 등 선시와 선문답들을 쉽게 풀어 쓴 해설을 함께 싣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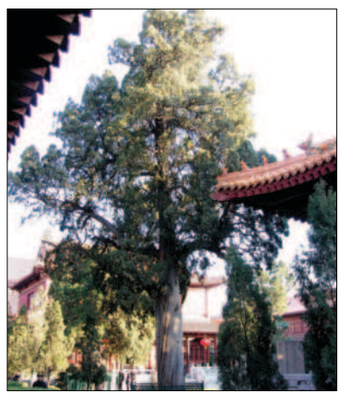
선시(禪詩)는 깨달음의 언어이다. 상식의 범주를 뛰어넘는 격 밖의 소리를 담고 있다. 수행이라는 용광로에서 녹여낸 진금(眞金)이 선시이다.

깨달음이 전제된 오자(悟者)의 소리를 담고 있는 것이 오도송(悟道頌)이다. 그 형식은 오언(五言) 칠언(七言)의 절구 게송(偈頌)으로 되어있다. 임종게(臨終偈)와 열반송(涅槃頌)은 선사(禪師)가 열반에 들 때 읊은 노래이다. 생과 사를 달관한 안목으로 생사일여(生死一如)의 경지를 읊고 있다.

스승과 제자가 심법(心法)을 주고받는 것을 전법게(傳法偈)라고 한다. 깨친 안목으로 스승과 제자가 하나가 될 때 마음과 마음으로 주고받는 것이 전법게이다.

오도송, 열반송, 전법게, 수행송 모두가 선시에 속한다. 선시는 깨달은 자의 소리이며 그 소리는 말과 문자 밖의 소리다. 그래서 보통 우리 범부의 소견으로 보면 알 수가 없다. 부처님 이후 수많은 수행자가 수행의 결과로 얻어진 그 세계를 문자를 빌어 노래하는 것이 선시이다. 격외(格外) 소식을 문자에 의존하는 것이 또한 선시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선가(禪家)에서는 마음을 중요하게 얘기하지만 마음의 실체를 얘기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또한 깨달음을 얘기하지만 깨달음의 실체 또한 정의하기 어려운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마음' 이라, '깨달음' 이라고 이름(名)할 뿐이다.

제1부, '과거7불과 33조사편' 에는 과거칠불과 선종 역대 조사의 전법게가 실려 있고, 제2부, '고승, 대덕편' 에는 고승 · 대덕의 오도송과 수행송, 열반송을 모아 번역하고 자세히 해설한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제3부, '생활선편' 에서는 저자의 견도송(見道頌)을 비롯한 자작 선시들과 그동안 수행을 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바를 소개하고 있다.


조주 관음원의 잣나무

과거칠불 · 33조사 · 고승 대덕 · 저자의 오도송 · 열반송 · 전법게 · 수행송 등 깨침의 순간에 읊은 선시 소개, 해설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은 뭡니까? 물으니, / 조주 스님 대답이 뜰 앞에 잣나무라네. / 어찌 경계로 조사의 뜻을 보입니까? / 또 물으니 조주 스님 또 뜰 앞에 잣나무라 하네." 너무나 잘 알려진 조주선사의 백수자게(栢樹子偈)이다. 해설 편에서 저자 화정거사가 "조주 스님 뜰 앞에 잣나무는 / 창 밖에 붉은 복숭아 꽃 같고 / 다시 묻기를 어째서 그런가? 묻는다면 / 눈은 가로 찢어지고 코는 세로로 섰느니라."고 게송으로 화답하면서 "눈 밝은 납승은 이 게송에 입을 열어보십시오"라고 한다. 이처럼 뜻 없어 보이는 이 이야기들의 뜻은 문자로 전하고 있지만 눈으로 읽는 문자와는 또 다른 '문자' 로, 눈만으로는 읽을 수 없다. 이 뜻 없어 보이는 이 '뜻' 은 이심전심으로 마주하는 문자 아닌 문자들이다.

칠순의 노 거사가 평생의 마음공부를 결산하여 풀어놓은 자상한 선시 해설은 깨달음을 향한 징검다리가 되기에 충분하다. 오도송과 전법게, 열반송은 깨침의 순간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선시들이어서 관련 선화(禪話)와 선문답을 곁들인 흥미진진한 해설은 참선 공부의 지침서로서 손색이 없다. 특히 선어록과 유식(唯識)에 달통한 저자는, 평소 출 · 재가 참선 수행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진솔한 체험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어 간화선 수행자들에게 더없이 유익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o@hyunbul.com

자연과의 소통, 생명에 대한 공경

날아라 부겐빌리아 꽃잎아

최미자 지음 | 우리출판사 펴냄 | 1만원



재미 수필가이자 언론인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최미자의 세 번째 수필집이다. 〈레몬향기처럼〉(2007년)과 〈샌디에고 암탉〉(2010년)으로 국내 독자들과 만난 바 있는 작가는 이번 책에서도, 자연과의 소통이자 생명에 대한 공경을 통섭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책에는 표제 수필인 '날아라 부겐빌리아 꽃잎아' 를 비롯해 총 43 편의 작품이 실려 있으며, 한국어 5부와 영어수필로 구성되어 있다.

작가는 평소 생에 대한 깊은 의문들, 즉 부자와 가난한 사람, 행운과 불행, 평등과 불평등, 정의와 불의 특히 삶과 죽음 등의 의문을 품고 세상을 관찰해오고 있다. 그러한 작가의 사유는 그대로 작품으로 이어진다. 무심히 지나치기 쉬운 소소한 일상에서 삶의 본질을 끄집어내어 감사하고 또 아파하는 그의 작품들은 삶을 경외하는 작가의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제 수필인 〈날아라 부겐빌리아 꽃잎아〉는 한마디로 최미자 수필의 공간애인 토포필리아와 생명애인 바이오필리아를 잘 표현된 대표작이다.

그는 왜, 무엇 때문에 글을 쓰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듯 부겐빌리아의 꽃으로 그 답을 대유하고 있다. 힘든 미국 이민 생활 중에 어렵게 정착한 세 번째 집에서 처음 보게 된 부겐빌리아꽃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다.

환경을 바꾸고 난 뒤 그동안 피지 않았던 꽃잎이 피기 시작했고, 신기하게도 죽음을 생각해야 할 정도로 심각했던 저자의 병(두통)이 나아지기 시작한다. 이처럼 수필은 '생명' 에서 시작한다. 생명애, 즉 바이오필리아이다. 부겐빌리아는 다름 아닌 화자 자신의 얼굴이다. 이방인이 되어 유목민처럼 자리를 옮겨 앉아야 했던 자신의 모습에서 부겐빌리아를 마음에 심고 있는 것이다.

부겐빌리아는 고국에 살 때나 떠나서나 몇 번씩 이사를 해야 했던 화자로 하여금 생활의 안주와 함께 새로운 꿈을 향하여 비상하려는 듯 움츠렸던 그의 날개를 꽃잎처럼 조금씩 펼치고 있다.

제1부의 '하늘을 날아가는 저 새들은' 생명애인 바이오필리아를 주제로 하고 있다면, 제2부의 '오, 반가운 우리 태극기' 와 제5부의 '사랑하는 젊은이들여' 는 주로 공간애, 토포필리아인 모국과 그 땅에 뿌리박고 살아가는 민족애를 담고 있다.

박재완 기자

사찰 벽화 통해 읽는 불교철학

10대와 통하는 사찰 벽화 이야기

강호진 글 | 돌 스튜디오 그림
철수와 영희 펴냄 | 1만3천원



책은 사찰 외벽에 그려진 벽화를 통해 16가지의 불교철학을 살펴보는 청소년을 위한 불교 인문 교양서다.

한국의 고찰은 우리민족의 전통적 사유와 예술이 녹아 있는 대표적인 공간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인에게 사찰이란 공간은 종교를 떠나 문화적 정서의 바탕에 관여하는 배경으로, 세계관과 예술관에 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사찰에서 많은 것을 만나게 된다.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불상의 장엄함, 불상 뒤에 모시는 후불탱화의 화려함, 비바람을 견디며 천년을 넘게 서 있는 석탑과 석등의 강인함, 선인들의 건축미가 오롯이 담겨 있는 오래된 전각들의 수려함, 그리고 나무나 청동 또는 유리 등으로 만들어진 불교 공예품의 섬세함 등이 우리가 사찰에서 발견하게 되는 아름다움이다. 하지만 사찰의 모든 것이 관심과 애정의 대상이 되어온 것은 아니다. 사찰을 찾은 이들을 가장 먼저 반겨주지만 우리가 그동안 무심하게 지나쳐버리는 것이 있다. 바로 사찰 외벽에 그려진 벽화다. 전각 외벽에 그려진 벽화들에선 뛰어난 예술성도 찾기 어렵고 유구한 역사성도 발견하기 어렵다. 그저 텅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한 장식 정도로 취급받기 쉽다. 하지만 벽화는 의외로 아주 오랜 역사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찰의 벽에 무언가를 그려서 장식하기 시작한 때는 불상이 등장한 시기보다 앞선다.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지시로 기원정사에 여러 그림이 그려졌다고 전한다. 한국에서도 삼국시대부터 사찰 벽화가 활발히 그려지기 시작해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화려한 꽃을 피웠다. 사찰 벽화는 불교 경전, 역사, 사상 등이 녹아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불교 공부에 훌륭한 재료가 된다. 벽화가 설명 없이 그림으로만 압축되어 있어서 그 의미를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번 책을 통해 재미있고 풍성하게 불교를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불교와 사유와 실천' 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불교를 쉽게 이해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인욕, 업력, 윤회, 출가, 화엄, 앎과 수행 등의 16가지 주제어로 구성했으며,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 불교사상을 접목시켜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 전달 차원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삶과 불교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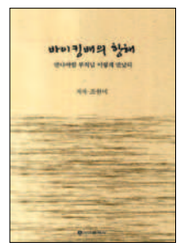
저자는 "불교란 중생이 지닌 이기심의 어둠을 걷어내고 자신이 가진 본래의 빛을 밝혀서 당당하고 아름답게 모든 사람과 어우러져 살아가자는 소박한 가르침과 실천 방법이다."고 말한다. 자신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고 내세나 이상향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서 정토를 세우라고 말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종교가 불교라는 것이다. 책은 청소년들이 불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깨고 우리 삶과 연관된 불교를 새롭게 인식하고 인문적으로 만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기자

불교가 가져다 준 행복

바이킹배의 항해

조현미 지음 | 신아출판사 펴냄 | 1만6천원



"불교와의 처음 만남은 바로 이때 기분전환 여행의 길, 이태리 로마로 떠난 2002년 여름이었다." 책은 저자가 불교와 만나고 불교를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알게 된 것들을 이야기 하고 있다. 미국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동양의 춤이란'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는 무용가 조현미의 불교와의 인연 이야기이다.

그는 남편과의 이태리 여행 중에 보게 된 스즈키 스님의 저서 〈선의 마음, 초보자의 마음〉이란 책을 보게 되면서부터 불교와 만나게 된다. 당시 불교를 전혀 몰랐던 저자에게 책 속의 생소한 단어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하면서도 그녀를 불교로 끌어들였던 것이다.

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5장 '부처님의 나라, 불교의 나라, 인도 순례' 에서는 바이샬리를 시작으로 고대 수도인 라자그라하,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신 보드가야, 그리고 부처님이 전법을 펴셨던 바라나시와 사르나스, 열반에 드신 쿠시나가, 태어나신 룸비니, 그리고 사바티 등을 순례하면서 쓴 기행문이다. 지명에 관련된 역사와 현장에서 느낀 것들을 적고 있다.

박재완 기자

"차를 마신다는 것은 우주의 생명을 마시는 것"
선(禪)에 대한 이해를 넓혀, 다도생활에 흥미와 깊이를 더하는 책



선과 다도
취향에만 몰두하는 오늘날 다도에 일침을 가하다!
참된 다도생활로 안내하는 다도의 새 지침서
다도는 단지 차를 마시는 행위가 아니다! 다도생활을 통해 불성을 깨닫고 지혜와 인격을 형성할 수 있다. 선과 다도는 "선(禪)과 차(茶)는 하나"라는 선불교적 관점에서 다도의 의미를 되짚어 본다.
■ 정성본, 김명희 지음 | 신국판 296쪽 | 13,000원
"자아 힐링의 첫걸음이 되는 것이 바로 선다(禪茶)의 힐링"
참된 다도생활로 안내하는 다도의 새 지침서
다도를 통해 자유로운 정신과 편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각박한 삶 속에 무너진 자신을 일으켜 세워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과 다도』는 좌선과 명상과 같은 선다생활의 방법들을 소개한다.

사바에서 부르는 불이(不二)의 노래
깊이와 넓이를 모를 정도로 방대하여 팔만사천대장경이라 불리는 불교경전!
불교의 핵심·진수가 담겨 단 한 권의 경전으로 손꼽히는
유마경의 세계를 드라마틱하게 펼쳐놓았다.



유마경과 이상향
"유마경의 번역과 더불어 해설 내지는 잡다한 군더더기를 덧붙였는데, 이는 독자에게 본문 이해와 함께 일반적 불교 교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도였다. 불교 교리를 연구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불교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도 읽힐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도한 것이다."
-머리말 중에서
■ 화공 강의 | 신국판 양장본 604쪽 | 29,500원
대한민국호를 타고 함께 업을 짓고 사는 우리들…
이즈음 세월호 참사로 혼돈과 좌절과 아픔 속에 헤매는 우리들의 마음 치유를 위해, 이 땅을 이상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책. 고통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사바세계, 불교는 물론이고 동서양 철학을 꿰뚫은 화공 스님이 고통의 근본 원인을 조목조목 분석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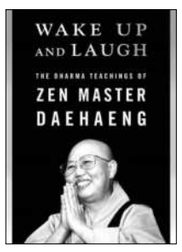
우리 시대 수행자 스물한 분의 스승 이야기
어른을 만나고 싶었다



흠모
금생은 안 태어났다 생각하고 공부하다 죽어라, 세상의 인재가 되어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몸 바치라는 스승들…
"머리만 깎았다고 중 된 것이 아니다. 거기에 맞게 살아야 한다. 중은 평생 정진하다가 논두렁 베고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아이가. 중노릇이 쉬운 기는 아니다."
-성철 스님께서 갓 출가한 원택 스님에게 해 주신 말씀
■ 유철주 지음 | 변형 신국판 372쪽 | 15,000원
"어른이 없는 시대에 바치는 진정한 어른 이야기"
우리 시대 스물 한 명의 수행자가 인생길을 열어준 은사스님에 대한 회고와 마음 깊은 그리움을 전하는 책 〈흠모〉. 흠모하는 스승들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제자는 어느새 중생의 흠모를 받는 또 다른 스승이 된다.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대행 선사 법문 〈Wake UP and Laugh〉 출간



Wake Up and Laugh 깨어나 웃어라!
대행 스님 지음
위즈덤 펴냄
16.95 달러



美유명불교서적업체 위즈덤 출판사 통해 나와
〈No River to Cross〉 베트남에서 출판계약

한마음선원 창건주인 묘공당 대행 선사(1927~ 2012)의 법문 모음집인 〈Wake Up and Laugh(깨어나 웃어라!)〉가 미국 유명 불교서적 전문 출판사인 위즈덤 출판사(Wisdom Publications)를 통해 출간됐다.

한마음선원 부설기관인 한마음국제문화원(이하 문화원)은 "독일어 버전으로 출간된 〈Wake Up and Laugh〉가 지난 3월 영어 버전으로 위즈덤 출판사를 통해 미국 현지에 출간됐다"고 밝혔다.

이 책에는 △죽어야 나를 보리라 △맡겨 놓고 지켜보라 △함이 없이 하는 도리 △마음은 보이지 않는 행복의 창고 △일체를 용광로에 넣어라 등 대행 선사의 주옥같은 법문이 실려 있다.

한마음국제문화원은 이미 2007년 대행 선사 가르침의 요체를 담은 책 〈건널 강이 어디 있으랴〉의 영문본인 〈No River to Cross〉를 위즈덤 출판사를 통해 출간한 바 있다.

문화원은 "위즈덤 출판사는 지속적으로 전세계 불교계 훌륭한 스승들의 가르침만을 엄선해 출판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폭넓은 배급망을 갖고 있어 외국의 여러 불교 서점들이 위즈덤 출판사의 출판도서목록에서 판매 도서를 선택하고 있다"며 "위즈덤 출판사에서 출판됐다는 사실 만으로도 더 많은 해외 독자들이 스님의 가르침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이번 〈Wake up and Laugh〉 출간을 계기로 대행 선사의 가르침과 한국불교가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원은 베트남의 푸옹남 출판사(Phuongnam Books)와 〈No River to Cross〉의 베트남어본 출판 계약을 맺었다.

푸옹남 출판사는 베트남 호치민시를 근거로 베트남 전역에 걸쳐 배급망을 가지고 있는 대형 출판사다. 문화원측은 "1천 여 년전 불교가 베트남에 전파된 이래 오랜 세월 불교를 숭상해왔고, 현재도 전 인구의 80%가 불교를 믿고 있는 베트남 불교계에 대행 선사의 가르침이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종교 넘어 인문학된 불교의 진명목 망라



불교의 모든 것
곽철환 지음
행성:B잎새 펴냄
2만2천원

인생을 살다가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는 흔히 '모든일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말을 자주 한다. 괴로움과 불안, 탐욕과 집착, 분노와 갈등 등 우리를 괴롭히는 감정들도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으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치열한 생존경쟁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제대로 된 '마음 먹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나와 내 가족만 잘살면 된다는 생각, 그것을 위해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정도는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와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싶어지는 순간이 온다. 삶이 고달프고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남부럽지 않은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럴 때 '마음 공부'를 이유로 절을 찾고, 스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 거기까지이다. 금강경, 법구경, 능엄경 등 이름조차 입에 붙지 않는 경전들, 단어 하나하나가 난해해 의미를 알 수 없는 교리들, 밖에서 바라보면 마음은 편하지만 무엇을 하는 곳인지 짐작 가지 않는 사찰의 건물과 다양한 불상들……. 마음의 안식과 깨달음의 길에 다가가기는커녕 길을 잃고 포기 하는 경우가 많다.

저자는 이런 이들에게 "삶의 불안정과 아픔을 해소해보려는 바람으로 불교에 관심 가져보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리 간단치 않다. 왜냐하면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가이드북이 흔치 않기 때문이다.

이 책은 마음의 소음에 부대끼는 이들을 불교의 숲속으로 데려가 나무 하나하나를 쉽게 설명하고, 그 숲속에 편히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이다"라고 이 책을 쓴 이유를 말한다.

이 책은 쉽게 다가가기 힘들었던 불교의 경전, 교리뿐 아니라 문화, 인물, 역사까지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한다. 또한 풍부한 사진자료와 지도, 계보도 등을 통해 독자들의 이해를 쉽게 해주도록 배려했다.

불교만큼 우리 민족의 삶 구석구석에 영향을 준 종교도 없을 것이다. 전국 곳곳 산과 마을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단어 중에 불교서 유래된 말이 생각보다 무척 많다. 언어뿐만이 아니다. 민속 의식, 민속 신앙도 불교서 유래된 것이 많다. 고구려가 처음 받아들인 불교는 그저 하나의 종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거대한 문화복합체였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종교를 뛰어넘어 우리 삶을 공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불교

불교의 용어와 교리 쉽게 설명
풍부한 사진 자료 지도 등 수록
불교상식 일상언어로 해설

를 인문학으로, 교양으로 공부하려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불교 교리의 핵심인 4제와 팔정도, 12연기, 5온, 8정도, 4염처, 7각지, 무상·고·무아와 위빠사나 등의 가르침과 수행법을 연관 지어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다. 또한 읽기조차 쉽지 않은 〈금강경〉 〈반야심경〉 〈법구경〉 〈법화경〉 등을 비롯한 27가지에 달하는 경전을 최대한 간결하고 알기 쉽게 요약했다. 또한 사찰 내 작은 부분까지 그 명칭과 역할을, 예불, 불공, 우란분재, 49재 등 다양한 불교 의식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준다.

그리고 싯다르타의 가족관계부터 붓다의 10대제자, 여래10호, 6사외도 등의 인물들은 물론 여러 종파와 금강경의 4구게, 윤회, 불립문자 등의 뜻과 법당에서 지켜야 할 예절, 승려들의 직책, 발우공양 방법, 염주와 괘불의 용도, 적멸보궁의 뜻, 108번뇌에서 108의 뜻, 탱화의 의미 등의 불교 상식을 알기 쉽게 일상의 언어로 풀어놓았다. 이처럼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불교에 관한 거의 모든 것들을 쉽고 깊이 있게 이야기해 준다.

불교에 의지하려는 사람들은 열반이라는, 고요해진 마음의 평지를 원한다. 모든 번뇌를 벗어버린 해탈한 마음 상태가 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불교를 알면 그곳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해 불교 공부를 시작해 보려 하지만 2,500년간 이어온 불교의 가르침을 단시일 내에 익히기는 쉽지 않다. 이에 저자는 "'앎'이 곧 '됨'이 될 수 없듯이, 불교에 대해 많이 안다고 해서 열반에 가까이 가는 건 결코 아니다. 따라서 불교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앎'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말이나 문자는 방편일 수밖에 없으니까"라고 말하며 이 책에 요약된 많은 법문 중 자신에게 알맞은 가르침을 찾아내 그것을 반복해서 되새기고, 여러 수행 가운데 적합한 하나를 선택해서 지속적으로 닦아나가면 마음의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자비와 사랑은 인종과 국가 그리고 계층도 뛰어 넘는다"

혼자만 깨우치면 뭣 하겠는가

진오 스님 지음 | 리더스북 펴냄 | 1만5천원



달리기하는 스님이 있다. 달리기를 직업으로 삼은 것도 아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저토록 지난한 고통 속에서 자기와의 싸움을 반복해가며 고행에 다름 아닌 달리기를 한다. 그는 구미 대둔사 주지 진오 스님이다.

그가 소외된 이들을 돕기 위해 마라톤을 시작한 것은 2002년. 다음 해에는 철인3종 경기에도 도전했다. 그러다 보니 별난 스님으로 TV에 소개되기도 하면서 달리기하는 스님으로 알려졌고, '철인 스님'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왜 달리는지를 자주 묻는다. 승복을 입고 깊은 산중에 있어야 할 스님이 속세로 나와 달리기를 하니 궁금한 것이다. 그는 달리면서 1킬로미터당 100원 또는 200원의 후원금을 받고, 이 후원금이 모여 이주민노동자들, 이주민여성들, 통일(탈북)아이들의 쉼터와 먹거리를 만드는 데 쓰인다. 그러나 그가 단지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만 달리는 것은 아니다.

토안은 퇴근 후 생필품을 사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불법 유턴하는 자가용에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당한 토안은 가해자와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조건으로 700만 원에 합의했고, 그 돈은 모두 베트남 가족들에게 보내졌다. 당시 토안은 무일푼이나 다름없었다고 한다.

진오 스님은 '만일 한국사람이 교통사고 피해를 당했다면 그것도 뇌를 잘라내는 수술까지 받은 상태라면 그 정도 돈으로 형사합의를 할 수 있었겠는가?' 라고 문제제기를 한다. 토안뿐 아니라 코리안 드림을 품고 우리나라에 온 많은 이주민 노동자와 이주민여성들, 통일아이들이 각종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불이익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이들과의 인연이 그에게는 모두 달려야만 하는 이유이자 화두가 된 것이다.

부처님은 달리라고 설법하신 적이 없지만 '자비'를 중요한 가르침으로 남기셨고, 극한의 고통을 반복하며 달리기를 하는 것이 그가 선택한 수행의 방법이다. 또한 산중에 있지 않고 산 밑으로 내려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사는 것도 부처님 제자로서의 실천이라 믿기 때문에 그는 달리기를 멈출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제일 잘하는 일이기도 하다.

진오 스님은 고등학교 시절, 출가를 결심하고 동국대 불교대학에 진학해 부처님 말씀을 배웠다. 출가자로 34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다른 자신을 만났고, 수없이 변해가는 세상과 만났다. 그가 보았던 삶의 현장에서는 코리안 드림을 품고 낯선 남의 나라로 건너와 편견과 오해, 냉대 속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목숨을 걸고 탈출한 뒤 남한에 적응을 하지 못해 신음하는 통일아이들이 있었으며, 가정폭력과 이혼, 사별로 인생의 막다른 길목에 내몰린 다문화여성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기도가 아닌 보다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돕기로 결심한다. 그가 대학원에 진학해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고, 복지 센터를 세운 것도 그 노력의 일환이다.

이 책의 제목 '혼자만 깨우치면 뭣 하겠는가'로 짐작할 수 있듯이 산속에서 염불이나 외워서는 중생을 구제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종교 철학이다. 어떤 스님은 산사에서 공부와 명상을 통해 더 큰 가르침을 얻기도 하고 어떤 스님은 오랜 시간 묵언수행하며 정진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가 택한 길은 세속에서 사람들과 섞여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며 실천하는 수행이다. 그는 베트남으로 건너가 '해우소 108개

12년 8천킬로, 소외이웃 위한 달리기
타인의 고통 외면해선 안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 황거(皇居) 공원에서 출발,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인 미야기현 이시노마끼시까지 왕복 1,000킬로미터를 완주했다. 그리고 2013년 한독수교 130주년, 그리고 파독광부 50주년을 맞아 독일의 옛 수도 본에서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까지 700킬로미터를 달렸다. 그가 부처의 자비를 전하는 데 장소와 인종은 무의미하다.

이 책에는 지난 12년간 끊임없이 달려온 그의 삶과 그를 달리게 했던 숱한 이들과의 만남, 그리고 달리기를 함으로써 그가 만들어온 남다른 수행의 과정이 담겨 있다. 부처나 예수가 그리고 진리가 반드시 절이나 교회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진정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변에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성인들이 설파한 말씀을 실천하는 일임을 그는 애써 설명하지 않는다.

그는 실천을 통해 몸소 보여준다. 그가 자신과 이웃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쓴 이 책을 읽다 보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비'와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부처의 가르침이 반드시 종교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김주일 기자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삶·죽음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불교로 읽는 古典
몽테뉴의 〈수상록〉



맹난자
수필가

몽 테 뉴 (Michel de Montaigne, 1533~1592)는 르네상스 당시의 프랑스를 대표하는 지성이며 문필가이다. 그가 정착시킨 에세이란 명칭은 그의 〈수상록(Les Essais)〉에서 비롯한다. 서양 에세이의 비조(鼻祖)격인 몽테뉴는 어린 시절 라틴어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는데 이는 라틴어 고전 독서와 글쓰기에 대단히 유용했다. (107장의 에세이로 이어지는 그의 〈수상록〉에는 키케로, 세네카, 아우렐리우스, 호라티우스, 루크레티우스, 오비디우스, 베르길리우스, 루카누스 등의 고대 철학자와 시인의 글들이 인용된다.)

보르도 고등법원의 판사를 지내고 보르도 시장을 두 번이나 역임했다. 결혼 후에 얻은 여섯 딸 중 하나만 살아남고 절친한 친구 라 보에티의 죽음, 아버지의 사망으로 실의에 빠져, 2년 뒤 판사직을 내던지고 고향의 몽테뉴성으로 돌아왔다. 자연히 그의 〈에세〉의 주요 테마는 죽음과 고통에 관한 것이었다. 그를 괴롭히던 신장결석의 지병도 죽음의 성찰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일찍이 아무도 나만큼 철저히 이 세상을 떠날 마음의 준비를 한 사람은 없으리라” 던 그를 요즘 자주 떠올리게 된다.

그는 죽음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습해 오는 것을 소개하면서 어찌 우리가 죽음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한 순간인들 죽음이 우리의 목덜미를 잡고 있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있으랴. 그러니 죽음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면서 죽음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차라리 정면으로 대면하자. 피하려 하지 말고 앞서 마중하자. 사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그것의 낯섦 때문인데, 그렇다면 죽음을 자주 바라보고 죽음과 친해지면 된다. 그래서 사(死)가 생(生)의 한 부분이라면 아예 함께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는 계속 죽음을 바라보고 계속 생각하라고 충고했다.

실제로 그는 어느 날 말을 타고 산책길에 나섰다가 말에서 떨어져 두 시간 이상이나 의식을 잃고 선지피를 토해내며 하인의 등에 업혀 집으로 돌아왔던 적이 있다.

“말발굽 아래 밟히는 순간 죽었다고 생각했으나 그 생각은 너무 다급하여 공포를 느낄 여유도 없었다. 이때 갑자기 한 줄기 번갯불이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이어서 다시 저승에서 돌아온 것처럼 느꼈었다. 이런 조그마한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나 나는 이 일에 좋은 교훈을 얻었다. 솔직히 말해서 이때 비로소 죽음과 친숙해지기 위해서는 죽음에 접근해 보는 도리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다. 폴리니우스 말대로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심사하는 능력만 있으면 자기 자신이 가장 훌륭한 교재이다. 이것은 주어진 학식이 아니라 스스로 얻은 연구이다. 남을 위한 교훈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교훈이다… 몇 해 전부터 나는 오직 나 자신만을 사색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하여 다만 나 자신만을 연구하고 있다… 내가 기록하는 글은 나의 행동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이다. 즉 나의 본질이나 다름이 없다. 나는 자기를 판단하려면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의 〈수상록〉에 보이는 글들이다.

그는 자신의 책 제목을 ‘실험’ 또는 ‘시험’ 을 의미하는 에세(essai)라고 붙였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초상을 주조시켜 ‘Que Sais-je?(나는 무엇을 아는가)’ 를 새겨넣고 뒷면에는 평형을 이룬 저울대를 그리고 그 위에 ‘나는 판단을 배제한다’ 는 글귀를 새겨 넣었다. ‘나는 무엇을 아는가?’ 의 되물음은 ‘너 자신을 알라’ 는 소크라테스의 경구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최상이라’ 는 노자의 사유와 궤를 같이 한다.

한편 그의 깊은 회의는 당시 그가 목격한 종교전쟁에도 기인한다. 그는 왕을 수행하여 구교도로 참전했는가 하면 때로는 양 진영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담당했는데 36년간이나 지속된 신교도(위그노파)와 구교도(카톨릭)들의 싸움은 광신도들이 빚어낸 인간의 광기에 다름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정성만을 오로지 고집하는 오만한 독단론자들이었다. 그들이 진술하는 신, 우주, 영혼, 정신 육체 등 주요한 주제들에 의견을 점검하며 몽테뉴는 그 가운데 절대적 진리가 부재하다는 것을 알았다. 신의 죽음을 선포한 니체 역시도 진리란 ‘환상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환상’ 이라며 절대적인 것을 믿는 행동이야말로 병적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공허한 관념들로 옥죄어 있는가? 우리를 짓누르는 편견과 독단, 이 허구로부터 풀려나지 않는 한, 인간은 사유와 창조의 자유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 본 그는 지식에 관한한 그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양극단을 엄격히 배제하는 실증주의자로서, 어떤 종류의 확실성도 인정하지 않으며 단정적으로 결론짓기를 거부하는 회의주의에 기울었다.

몽테뉴는 회의에 대해 “곧고 굽힘이 없는 판단의 자세”라고 정의하며 그는 “모든 사물을 받아들이되 집착하지도 동의하지도 않는다,”고 언급했다.

‘사물을 받아들이되 집착하지 않는다.’ 모든 사물에 대해 집착 없이 수납하고 게다가 함부로 동의하지도 않는다니, 이때 나는 그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應無所住而生起心)’ 〈금강경〉의 수행자 같았다. 그는 점차 모든 억매임과 집착에서 놓여나 자유로움을 만끽한다.

저 맑은 하늘처럼 평온한 마음의 상태이다. 이것을 가리켜 회의주의 철학자(피롱파)들은 ‘아타락시아’ 라고 불렀는데 몽테뉴가 진술한 만년의 심경을 살펴보면 그가 그런 경지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자녀, 친구, 아버지의 죽음이 ‘죽음·고통’에 대한 성찰 계기
“죽음은 우주질서의 하나”
“받아들이되 집착 않기” 주장 ‘應無所住…’, ‘無罣碍故…’ 금강경·반야심경 가르침 맞닿아

“…어디로 시선을 돌려 봐도 그 둘레에 하늘은 고요하고, 공기를 어지럽히는 어떤 욕망도, 어떤 두려움이나 의심도, 또 과거와 현재의 어떤 어려움도…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에게 고마운 일인지…”

그의 육성이다. 이미 어떤 욕망도, 두려움도, 의심도 없는 자리에 가 있다는 그가 반야의 행자처럼 진정한 자유인으로 다가왔다. 마침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지성소(至聖所)가 아닌가. ‘마음에 걸림이 없기에 두려움도 없다’ 는 〈반야심경〉의 ‘무가애고무유공포(無罣碍故無有恐怖)’ 가 겹쳐졌다. 불교의 수행이란 달리 있지도 않는 깨달음을 얻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탐·진·치 삼독(三毒)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미 욕망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는 그가, 대평안심에 들어있는 어느 해탈한 성자처럼 생각되는 것이다.

지혜로운 이의 삶은 전부가 죽음에 대한 준비라면서 죽음과 친해지자던 그가, 스토아학파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죽음과 고통 따위는 자연에 맡기고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자연회귀를 택한다. 자연은 삼라만상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율동과 조화의 기적을 이루어 내고 있는가! 그러니 자연을 넘어서려는 오만함, 부질없는 야망을 버리고 전적으로 자연을 따르라고 했던 것이다.



프랑스 보르도 시내 광장의 몽테뉴의 동상. 비극적 죽음을 대면하고 스스로도 죽을 고비를 넘겼던 몽테뉴는 죽음에 대해 끊임없이 천착하고 사유했다.

몽테뉴는 스토이시즘에서 천성(天性)에 따라 자연을 즐기는 ‘에피큐리언’ 이 된다. 그러나 그는 감각적 쾌락에서조차도 정신을 개입시킴으로써 쾌락이 전인적(全人的)인 것이 되기를 원했다. 즐거움을 맛보고 누리되 그것이 감각의 표피를 스쳐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는 대신 온 정신으로 그것을 증폭시킴으로써 더욱 충일한 것이 되기를 바랐다. 그는 이 경지를 가리켜 ‘완성’ 이란 말로 표현했다. ‘자신의 현존재를 당당하게 즐길 줄 아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현 존재의 오롯한 알아차림, 당처(當處)가 모두 진여(眞如)라는 임제선사의 말씀이 떠올랐다.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이다. 몽테뉴의 삶의 지혜는 ‘결국 즐기자. 떳떳하게 즐기자’ 로 요약된다. 붓다께서 설한 무상(無常) · 무아(無我) · 고(苦)가 상낙아정(常樂我淨)으로 전환된 그 열반처에 든 것이다.

죽음을 탐구하러 들어가 만난 것은 ‘생의 철학’ 이었다. 그러니 죽음 따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는 말한다. 왜냐하면 “죽음은 그대가 살아 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그대에게 관여하지 않는다. 살아 있을 때에는 그대들 생존해 있으므로, 죽었을 때에는 그대들 벌써 이 세상에 없으므로. 아무도 그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대가 남겨 놓고 가는 시간은 그대가 출생하기 전의 시간과 마찬가지로 본래 그대의 것이 아니었다. 그 둘 다 그대의 것이 아니다.”

여기서 나는 숨을 한번 고른다.

“죽으면 존재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죽음이 두려울 수 있는가?”

예일대학에서 17년 동안 죽음을 강의한 셸리 케이건 교수가 우리에게 던진 물음이다. 몽테뉴의 문장을 여기에 병치시키고 싶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불교에서는 원래 죽음이 없다고 말했다. 죽음이 없다기보다 내가 죽는 일은 아예 없다는 것. 왜냐하면 죽을 내가 없기 때문이다. 무아(無我)를 아는 것, 이것이 대반야바라밀이다. ‘생사는 본래 그대의 것이 아니기 때문’ 이라는 그의 말을 나직이 뇌어본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자신의 존재와 마주하는 일일 것이다. ‘Que Sais Je?’ 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그의 탐구법은 간화선의 화두 ‘이 뭣고’ 와 다르지 않다. ‘나는 누구인가?’ 내부로 향한 그의 명상은 아상(我相)을 지우고, 판단을 배제하며 마침내는 집착과 분별심마저 내려놓게 했다. 그의 정신이 도달한 지점이다.

몇해 전, 한국의 수필가들과 몽테뉴 성(城)을 찾아 그의 서재에 들어선 적이 있었다. 시야는 3면으로 트여있고 실내는 직경이 열여섯 걸음 정도 되는 공간이었다. 예전에는 건초를 쌓아두었던 헛간이라는데 차디찬 돌바닥에서 어떻게 추운 겨울을 지냈을까? 이런 내 기우를 떨치고 그는 이 서재를 세상에 둘도 없는 나만의 공간으로 여겼다.

스스로 외딴 곳에 처해져 자신이 고독을 좋아하는 이유는 ‘나의 감정과 사상을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해서이며 나의 걸음을 제한, 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욕망과 심로(心勞)를 제한,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썼던 〈고독에 대하여〉라는 글도 이곳에서려니 하고 사방을 빙둘러보았다. 고독해져야 비로소 욕망과 심로를 억제할 수 있다는 그가 왠지 친근한 수행자처럼 다가왔다.

‘사물 자체가 아니라 사물에 대해 갖는 생각이 우리를 괴롭힌다.’ 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방에서 빠져 나오려는데 등 뒤에서 그가 한마디 던졌다.

‘당신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 같이 세상에서 빠져나가라. 당신이 생각도 두려움도 없이 죽음에서 삶으로 건너온 것과 동일하게 이번에는 삶에서 죽음으로 건너가라. 당신의 죽음은 우주 질서의 하나다. 이 세상의 생명의 한 부품이다.

두려움도 없이 삶에서 죽음으로 건너가라고 한다. 당신의 죽음은 ‘우주 질서의 하나’ , 수기(授記)처럼 나는 그것을 가슴에 받아 지니고 도피안(到彼岸)을 생각하며 좁은 계단의 통로를 빠져나왔다.

내가 그를 경애해 마지않는 것은 다름이 아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실체를 정확히 보려는 것에서 출발한 그의 명상이 도달한 곳은 무심(無心)과 평정심이었으며 그의 〈에세〉는 엄격한 자기 점검과 성찰로 이어진 수행의 여정(旅程)이었다.

그는 견해(見解)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정견(正見)을 확립한 현자였으며 양극단을 배제한 중용(中庸)의 실천가로, 가난한 농민을 위해 평등사상을 고취한 휴머니스트로, 그리고 무엇보다 격조 높은 철학 수필을 우리에게 선물한 최초의 에세이스트였기 때문이다. 죽음의 명상가, 그가 깊은 우물에서 길어 올린 샘물은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기에 충분한 감로수, 한 권의 〈에세(Les Essais)〉였다.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값 30,800원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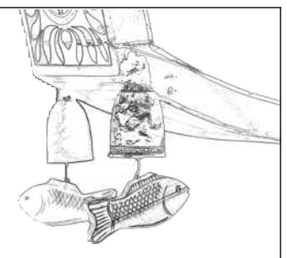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미움 속에 살면서 미워하지 않음이여
내 삶은 더없이 행복하여라
사람들 서로서로 미워하는 그 속에서
나만이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미워하지 말고 바람처럼 물처럼 살아가자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삼일단기 교육생 모집
수맥탐사 이론실기
* 교육과정 이수 후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대웅전 불사 원만 성취 발원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백발백중 귀장술
초보자 환영
쉽게보는 원판제공
다음. 네이버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외울 필요 없음
010-8558-2345



냉, 난방에어컨, 세탁기, 냄새차단, 의자, 주방후드 청소 수도, 난방배관교체 공사없이 녹물해결
하늘 엔지니어링
www.skyno1.co.kr
T.1566-8616
010-4126-4242
무점포, 소자본창업자 모집
부처님께 공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천상을 여는 지장대사
원력으로 조상천도,
빙의퇴마,천병,신병,
우울증,틱장애,
가정우환, 병명없이
치유못한 환자 치유
(극락암)
010-5152-122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031)585-4626

60대 신심깊은
독신자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울진)
011-9571-6559

아름다운 인연
소승은 70세 된 시각장애자
심안으로 달마상과
황금용주도를 남은여생
나누어 드리려 합니다
무소유, 머무를 곳을
보시하실 인연을 찾습니다
010-9003-7783

빙의 기치유 한방쑥뜸
대구 심향사(약사도량 : 법화경)
전통사경,사불,현대사경,작품사경
사주 · 인생상담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도량
다음카페 : 심향사 사경원
053)244-9995
010-3677-3845 보성 합장

포교원 할 분 찾음 (전문)
서울 강서 화곡2층 코너 서남향
간판 연등이 잘 보여 최적지
20평, 보증금 5백만원 월 50만원
건물주가 거주하며 협조함,
불교신도임
010-5381-1419
(포교부동산)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7223-7893

각 전각 예불 및 제의식
능통한 부전스님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경북 문경)
010-8819-8988

천도재,49재 의식
배우며 기도하실
행자스님 모십니다
(대전, 60세 이상도 가능)
010-4220-0566

제주도 사찰
청정도량 적멸보궁에서
몸과 마음을 가꾸실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스님 한분, 사무장, 상주인원
두사람, 보시금 전화상담
주지스님 010-3696-8500

중풍,
예방 할 수 있음
(10년 경험)
010-5096-9870

사찰을 책임지고 운영할
능력있는 스님을 찾습니다
보시금은 없습니다
이외 비용문제 상담
출가 남녀 행자도 찾습니다
(강원지역)
010-9421-0730

기문둔갑 강의
역학을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문비법을 전수합니다
사업자, 성패에 대해서, 학업생 학과 선택, 남여결혼문제, 부부문제 등 세밀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님직접 강의. 수시모집
010-3544-9777

기도의 달인 대주스님
•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4거리 백선사
•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해드립니다.
• 배우실 분은 한번만 오시면 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1-772-4606 제행 합장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 출구

스님이 안계신 절이나
어렵고 가난한 절을
무보시로 도와 드립니다
불사를 헌신적으로
도와드립니다
010-4882-3838

얼굴,손금만 봐도 어디 질병이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관상 · 손금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스님 특별 개인지도(일반인,철학인,무속인)
•암,질병,산소,조상,가족,재판,교통사고 운을 관상, 손금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전국 어디든지 출장 가능함
•개인지도(나이관계없음) 자격증 수여
010-4014-882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대 노보살 원함)
02)917-3363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상동면 신곡리 982번지
• 답 320평 건축허가 되있음
• 삼면이 소나무 울창하고 앞쪽 시원한 물이 보이는 아주 좋은 터입니다
• 사찰 전원주택 팬션 적합
• 정남향 좌청룡 우 백호가 잘 어우러져 있음
• 가액 : 7,500만원
010-3544-9777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강력한 삶의 변화 원네스 치유명상
1 부모, 자녀,부부,관계개선 치유명상
* 가족세우기(지도자과정, 특별세션, 개인세션)
2 하나로 깨어나기 명상
* 성장과 성공을 위한 깨달음
네이버카페 - 원네스 가족세우기(참조)
신청문의 : 혜산스님 010-4114-660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교문화시설 가입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몸이 자주
부으시는 분,
치유해 드립니다
010-4411-663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010-7656-9393
033-682-8100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화요일 저녁반, 목 · 금요일 오전반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영 가 찾 는 법 강 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애기있어도 됨
(진주 근교)
010-4587-1011

백 발 백 중
산사에서 50년동안 연구,
현재 70대 노비구.
역대 대통령 90%적중,
꼭 필요한 분만 연락
010-2506-2425

산중절을 좋아하는
공양주를 찾습니다
기도하며 수행할
비구니스님을 찾습니다
지장보궁 내원암
(답사 전화바람)
경북예천 054)653-1180
010-6353-1180

제주도 사찰에서
기도하면서
공양주 하실 분
모십니다
010-3639-8500
자세한 것은 전화문의

탈 종 공 고

• 법 명 : 일명(박정선)

• 주 소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681-2번지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제 적 공 고

귀의 삼보하옵고

본 종 종법 제3장 징계 제8조 4항(파당을 형성하여 승단의 화합을 파한 자), 11항(종단발전을 저해하고 명예를 훼손한자)에 의거 불기 2558(2014)년 5월 14일 1차 종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되어 제적되었음을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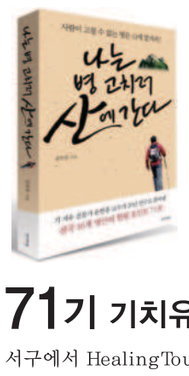
제적 (3명)

제주	선운정사	현오 송춘섭
제주	천 운 사	정철 최충식
제주	영 조 사	관일 홍종하

(재)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장 경 원

총무원 : 서울시 세검정로6길 76-9, 일붕선원 1층
전화 02)991-8175,8904 / 전송 02)991-8176

풍수계 최초 밝혀낸 명당의 실체와 신통발복력!
태극혈맥풍수
반드시 발복흥성 유지되는 혈맥음양터!
● 명당은 반드시 땅속혈맥 갖춰야 진터
● 맥과 혈 짚어내는 비술득통
● 도승들이 펼친 산수혈맥주술법 도통
흥망성쇠 좌우하는 양택 음택!!
● 길터, 흉터 출장감정
● 명당점지, 묘이장 화장 상담
▶ 절암자 사업장(공장,매장) 점포 사무실 주택 묘지 납골터 수목장 등
※ 우리터문화는 자연과학이자 생명공학이다.
※ 태극혈맥터에서 인물나고 부자되고 가문이 흥성한다.
덕숭산승 지천공
010-4600-7399
충남 예산군 덕산면 광천동막길 83-7 절로암

기치유 전문가 윤한흥 교수가 20년 연구로 찾아낸
전국 16개 명산의 힐링 포인트 71곳


산에는 몸과 마음의 병을 낫게 하는 엄청난 에너지가 숨어 있다!
* 만성위장병 환자를 고친 팔공산 약사암
*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속리산 법주사
* 심장을 치유하는 송광사 약사전
* 일주이만에 신장병을 호전시킨 용선대
* 생식기 질환과 성 기능에 좋은 신선바위
* 하늘과 땅의 기운이 만나는 최고의 명상
전국 서점, 인터넷서점 판매중
71기 기치유 수련반 개강!
서구에서 HealingTouch, Energy Healing 등으로 불리는 통합 보완의학의 한분야의 치유 방법을 말한다.
누구나 8주만 수련하면 만성피로, 두통, 관절염, 산후풍, 상기증 소화장애, 요통, 생리통 등 다양한 질환을 氣로 치유할 수 있으며 또한 자연의 기운을 느끼고 그 기운을 건강과 치유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개강일자 2014. 5. 24 (토) 10:30 ~ 1:30
수련기간 8주 과정 (주1회)
수련지도 윤한흥 나는 병 고치러 산에 간다 / 기치유와 기공수련 외
공주대학교 외래교수/(전)서울 불교대학원 대학교 겸임교수
문 의 02-3482-5032 백제고분로75 올림피아B 503
기치유센터 잠실(본원) : 02)3482-503 2
대구 053)652-2202 / 부산 051)953-8333
기치유상담 산후풍, 상기증, 기력쇠진, 만성피로, 원인 모를 병증 등 상담을 원하시면 기치유 센터로 문의 바람.
한국 기치유 연구회 Energy Healing Center 02-3482-5032 gihealing.com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접수일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가 격 : 1회 - 기본규격 50,000원 / 가로 7cm 70,000원 /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마땅히 친한 벗에 대해서는 그의 허물을 보지 않아야 하고
친한 벗과는 마음과 염원 이 같고 서로 생각하면서
늘 잊지 않아야 한다."

- 별역잡아함경 -

사 찰 안 내

- 아름다운 토굴 -
(생수공장, 황토공장)
- 위치 : 구례군 지리산 온천 부근
- 총부지 : 1150평, 도로 8m 접
- 건물 : 42평, 남향(별장 및 전원주택)
- 지하 200m 암반수 : 일일 취수량 500톤
- 양도금액 : 평당 20만원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 사 찰 -
- 위치 : 부산 바다 전망 좋은 사찰
- 대지 : 2,700평
- 건물 : 4동 (법당 50평,요사채40평,산신각,주지실)
- 텃밭 : 300평
- 가액 : 6억 8천만원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사무소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직통 051)863-6622

사찰(급)안내
- 목포시 중심사찰 양도
- 기와편백법당70㎡, 황토요사채 90㎡
- 잘지은 2층사찰. 토지 230㎡
- 아파트,주택,관공서지역사찰.주변산
- 가액 : 3억원 9천만 조정불가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이규철)
010-7347-1010 (사찰전문)
061)282-9873 (창건주님)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청학동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계곡접 해발 700미터)
- 대지 1,815평, 부지조성완료, 정동향
- 법당 목조30평, 산신각 목조7평, 요사채25평, 창고1동, 해우소 1동
- 심야전기 및 전기판넬사용.
- 노인복지,요양원,연수원,선원 등 최적임
- 가액 : 13억

010-3403-335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도천동 도리1길 부근
- 종교부지 800평, 산 812평, 전 350평,
- 법당 21.8평, 요사채 21.5평, 삼성각 2평
- 가액 : 6억

055)645-9171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에서7분거리
- 등기 실평수 553평, 기타 평수 있음
- 대웅전, 천불전, 요사채, 방 35개
- 산신각, 종각, 용왕당, 황토방, 주차 40대가능
- 가액: 4억 5천만원
- 8억원 이상이나 건강상 이유로 급 안내 (현지 답사 조절가능)

010-9889-3188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 부지 : 1000평
- 법당 : 50평
- 요사 : 40평, 차량진입
- 양도가 : 11억 8천
- 위치 :서울 한강 이남
- 대지 : 150평
- 법당 : 40평,목조기와
- 요사 : 60평, 2채
- 양도가 : 33억 8천

※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운영,구하는사찰 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 김용각)
02)723-4082 / 010-4586-4525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401호) (탑골공원길 21)

< 사찰안내 : 전문가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양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인연을 찾아드립니다.(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암자,토굴,포교원,사찰부지,매매임대전문중개사
010-7347-1010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대표:이규철)
010-3426-9393 이박사공인중개사(대표: 이현종)
주소: 강원도 원주시 모래내길 50(성일아파트 상가 108호)
■ 전국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사 찰 안 내
-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오거리
- 대지 64평. 건물 2층 슬라부주택 3층 조립식 건물
- 요사채 : 1층 약 30평, 2층 약19평, 법당 3층 약 16평
- 삼존불 3자, 2.5자<동불> 약사여래불 목불 3.5자
- 가액 : 2억 6천 5백만원<융자 1억 포함>
- 주변 아파트 및 준상가지역

010-3409-4502

포교원(급)안내
- 울산 남구 신정 시장 입구
- 2층건물에 2층 평수 45평
- 법당 20평
- 공양간, 큰방, 작은방, 옷방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전세도 가능
- 시설비 : 700만원
- 꼭 필요한 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9767-4119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옥천읍에서 5분거리, 대전에서 10분거리
- 대지 505평, 1층 요사채40평, 2층 와가법당 20평(단청필)
- 옥외건물 20평(창고), 화장실, 샤워실, 창고 6평
- 수려한 금잔디 및 조경, 6층석탑 주변 팬션 및 별장있음
- 대전 영동간 4차선 국도 300M 접
- 가액 : 3억7천만원

010-3645-1361

큰사찰(터)찾는 분
- 위치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외석리 양산 시내 및 고속도로,지하철 20분거리 부산, 울산 40~50분 거리
- 높은산 중턱 자연녹지 1만평
- 평당 10만원,답사 후 결정,주인직접
- 현재 절 운영중
- 법당 20평,요사채40평,주차장넓음

010-3879-2544

암 자 안 내
- 위치: 경기도 가평읍 북면 화악산 줄기 청정 수월 도량
- 명산지대이며 산세 수려하고 좌청룡 우백호 도량 자리
- 청정 자연물 큰 내가 24시간 흐름
- 평수 총2,530평 하천부지 2천평 사용 가능
- 요사채 1개, 방 5개, 법당 1개, 정각 2개
- 가액: 12억 5천(가격절충가능)
- 불사하실분 환영하고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바랍니다

010-5009-1772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별장 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종교용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가액 : 협의 후 가격절충

010-5234-550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전철역 10분거리
- 대지 400평, 법당 요사채 70평 방6, 화장실4, 창고 텃밭있음
- 시설완벽 즉시법회 가능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70만원 시설비 2,300만원

010-4667-5466

포 교 원 안 내
- 부산 가야초등학교 정문앞
- 4층건물에 2층, 20평 철학관도 호조건
- 삼존불, 후불탱화, 방2, 주방완비
-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3천 3백만원 월세없음 시설비 5백만원

011-9308-0857

포교원(급)안내
- 강원도 동해시 시청 옆상가 2층 독채
- 상가평수 50평(등기평수보다 넓음)
- 보증금 : 2천만원, 월세66만원 (부가세 관리비 포함) 시설비 : 1천5백만원
- 법당, 삼성각, 공양간 완비 방2개, 화장실 겸 샤워장 2개
- 즉시법회 가능합니다 (소승 건강상 급 양도)

010-9018-665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진구 전포동 (놀이터시장 입구)
- 2층 건물 2층 법당, 방 2개, 20평, 시설 완벽
- 위치 좋음,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보증금 6백만원, 월 25만원
- 답사후 절충

010-8872-1326

사 찰 (급) 안 내
- 위치: 경남 고성군 동해면 해안도로 바다정원
- 평수: 150평(120평 증축 가능)
- 법당 1층, 2층.. 각 30평, 요사채3동 30평
- 근린시설, 종단 총무원 및 학당 최적합, 창원-진주-통영, 거제 20분거리
- 가액: 답사후 결정, 절충가능

055)673-604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두산동 2층
- 법당 삼존불 35평
- 시설 : 쑥뜸훈증침대 6대 옷20벌 추출기 2대, 포장기 1대
- 약초 : 200여가지 모든 것 전수
- 보증금 : 5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3500만원, 조정가능

011-573-443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 총평수 800평 건물, 법당,
- 요사채 합 50평, 산신각 5평, 용왕당 2평
- 가액 : 3억 2천만원

010-8034-830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현서면 부근
- 135평, 임법당, 건물3동, 삼존불
- 신중단, 지장단, 칠성단, 영가단
- 도로에서 200미터 심야전기 보일러, 화목난로
- 가액 : 5천5백만원

010-4146-6556

농가 주택 안내
- 위치 : 경북 영덕
- 지목 대지 456평
- 건물 60평, 수리 요함
- 해발 500 국유림 내
- 도로 대형차 진입
- 한적한 곳 전화 바람

주인직 010-8899-889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병곡면 각리리
- 대지 300평, 전 450평
- 대웅전 25평, 요사채 40평
- 사찰 근교에 바다가 있음
- 개인사정상 급매
- 가액 : 3억 7천만원 (융자 5천5백만원)

010-4747-3164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양산 아파트 주거 밀집지역
- 교하기 좋은곳, 주차가능
- 신도분들 오시기 편안함,
- 시설 깨끗한 약 10년가량 된 사찰
- 대지 708㎡ • 건평 250㎡
- 법당, 공양간, 종무소
- 가액 : 5억5천만원

(주)금호부동산
051)861-2233
010-5346-4138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수익성 건물 안내
- 기도도량하면 참 좋습니다
- 상권, 유통, 의료, 교육, 교통 조건을 갖춘 동래복합환승센터 역세권입니다
- 유동인원 상주인원 부산 최고의 환경과 조건
- 대지106평, 건물330평(신축)
- 월수익 900만원 받고 5억 6천만원 투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주)금호부동산
051)861-2233
010-8676-2278

사 찰 안 내
- 위치 : 의령군 부림면 소재지 근처
- 면적: 400평
- 법당: 목조 10평
- 요사채: 통유리, 심야전기 적벽돌 반기와 30평
- 가액 : 1억 9천만원

017-310-6482

포교원안내
- 위치 : 김해 장유 신도시 위치최고
- 3층 건물 2층 약40평
- 삼존불, 신중, 소불 연등설치
- 법당, 공양실, 방2개 실내 화장실 사용하기 아주 편리함 철학 및 포교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22만원 시설일체 2천300만원

010-4017-0993

시골집 안내
- 위치 : 충북 음성군 음성읍
- 건평 24평, 창고 8평, 건물만 양도
- 가액 : 1천 6백만원
- 사정상 급안내

※ 인수시 살림도구 모두 드림

010-8460-6377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24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1동, 산신각
- 사용가능평수 약200평,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3억2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신림동 3층 건물중 2층
- 석가모니, 관음, 지장. 삼존불과 후불 및 신중탱화
- 봉안지장보살 원불 297분
- 법당외 방1 주방1, 화장실1, 약 30평
- 도심속의 포교 최적지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77만원 시설비 2,700만원

011-309-3535
(답사후 절충가능)

전 원 주 택
- 땅을 알고 터를 잡으시고 좋은환경 좋은이웃 찾아오세요
- 위치:경남 창녕군 부곡
- 대지 167평, 건평 30평 목조, 기와, 황토방, 정자
- 가액: 2억 8천 5백만원

010-3703-5879

사 찰 안 내
- 위치 : 김천IC 10분 거리 (김천대학 뒤편)
- 법당 45평, 삼성각5평, 요사채 55평,
- 토지 2,000평, 요양원, 연수원, 선원 등 최적지

010-9354-7000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양시
- 법당 : 40평, 총평수 80평
- 방 2개, 창고 2개, 종무실, 시설좋고, 시장옆
- 보증금3,000만원/월165만원
- 최고의 지역으로 전망좋은 지역임. 시설비 유 전화주세요

010-6722-2211

옛 절터 안내
-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왕궁면 보석박물관에서 1Km 올라감
- 넓이 : 14,400제곱미터
- 복지시설, 납골당으로 적합함
- 가액 : 4억(절충가능)

010-9303-75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 시내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대출 1억 가능
- 가액: 2억 7천만원

010-8725-3196

사 찰 안 내
- 위치: 김천시 면소재 김천역 교통15분거리, 대로변
- 건물 32평, 근린생활시설 사찰, 등기필
- 대지 : 도지료 년 35만원
- 내용 : 법당, 방2개, 주방, 세면장
- 여건: 큰길변, 좋은요지, 남향, 법당넓고, 현대식시설, 생활편리함
- 가액 : 7천 4백만원(절충가능)

054)435-1259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 대지 60평, 건평 1층 30평, 2층 법당 27평
- 석불, 석등
- 가액 : 2억 9천만원

010-3695-457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진구 부전동
- 법당, 친견실 1, 방 2, 주방,
- 다용도실, 화장실 별도
- 가액 : 5백만원에 월 30만원 시설비 800만원

010-8683-642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시 유성구 상대동 예술 고등학교 부근
- 5층 건물에 5층 50평
- 아미타 삼존불 후불탱화
- 오피스텔 최신식형 법당
- 가액 : 보증금 1,000만 월 100만 시설비 3,500만원

010-2485-879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현삼면 면소재지 부근
- 100가옥 사는 동네 맨 뒷집(산자락)
- 면적 1,164평방미터에 법당 34평, 주차시설 및 조경 좋음 (법당까지 승용차 진입가능)
- 모든시설 일체 완비
- 가액 : 6천만원(절충가능)

010-6621-9400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097-3468

사찰(전세)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장
- 대지 210평
- 건평 80평
- 법당완비, 시설완벽
- 가액 : 전세 1천만원, 월세 120만원
- 시설비 4천만원

010-3193-368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 유곡면
- 대지 약 800평, 산 임야 2,300평
- 대웅전 20평, 산신각 7평, 용왕전, 요사채 50평
- 가액 : 2억 9천(절충가능)

010-9395-6675

전원주택 및 토굴
- 위치: 인제 원통에서 15분거리
- 사용가능 : 총 1,400평, 대지 300평, 건평 25평
- 잘 가꾸어진 밭 900평, 2중 흙벽돌 심야보일러
- 잘가꾸어진 마당, 멀리큰강이 흐름
- 가액 : 2억 9천만원

010-3337-973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서구 충무동 교차로 주변
- 5층 건물 2층 82평, 지하철 대중교통 3~5분이내
- 삼존불, 지장보살, 삼신당, 호신불324(분양10%)
- 법당과 요사채 분리 (기공, 철학, 교육 등 다용도 이용가)
- 임대조건 : 보증금 2천 월 66만 3천 월 55만 / 4천 월 44만 선택 시설비: 답사후 절충

010-4590-6777
010-3869-6799

암자 전세(동해)
- 위치 : 강원 동해시내(바다 조망)
- 임야 3,349(대지 500평) 포함 건물 5동, 약 120평(1동 80평 신축건물)
- 특징 : 유명한 약수물 있음, 방13개 시내지만 산속같음, 차량진입
- 창건: 약 70년된 암자, 소쿠리터
- 가액 : 보증금 6천만원(전세)

010-7325-3838

여기! 도심속 참 좋은 도량 포교원 임대
- 위치 : 경남 김해시 어방동 (대우유토피아 아파트 인제대)부근
- 2층 법당 45평, 1층 공양간 및 다용도실 30평
- 창고 주차장 시설은 완벽하며 즉시법회 가능한 참 행복이 샘솟는 도량입니다. 비구스님 인연 요망
- 가액 : 보증금 1천5백만원 월 90만원 시설비 5천만원(약간절충)
- 2층만 계약가능 1천만원 월 50만원

주지직 010-4288-377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종로5가역과 버스정류소
- 4층 건물중 3층, 14평,
- 법당과 상담실, 탁자, 운각, 에어컨 1대, 냉장고, 사무용 쇼파 등 지방사찰에서 종무소나 상담실 적합 합니다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77만원 시설비 200만원
- 확장 이전하여 현재 비어있음(언제든 이사가능)

02)7620-108번
02)4430-108번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주시 가흥 2동 472번지 금명사
- 법당, 산신각, 방 2개, 욕실, 주방
- 가액 : 월세 1년에 200만원 (가격조절 전세도가능)

011-9370-7513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회화면
- 평수: 3만 6천평
- 평당 만오천원
- 최적의 절터

010-8616-573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시내중심지
- 평수 : 60평
- 바다와 인접한 완벽한 시설 완비, 시장과 인접함
- 시설비 3,000만원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010-8616-5733

마음 길들이기

달라이 라마 (티베트 승려)

〈2〉 무지에서 벗어나기

"인과의 그물망을 주의 기울여 폭넓게 보세요"

연기와 현실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모든 상황은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수많은 과거와 현재의 원인과 조건에 의존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폭넓은 관점에서 보면 상황을 좀 더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그 상황의 실체, 즉 그것의 상호 연관성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대적인 견해를 갖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현실성을 갖게 된다. 국제정치를 예로 들어보자. 만일 한 나라의 지도자가 상대적이고 폭넓은 시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야기된 것으로 보고 그 사람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하다. 폭넓은 시각이 없으면 의도가 아무리 진실해도 상황을 처리하려는 모든 노력이 현실성을 잃고 만다.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 부족과 원인과 조건의 그물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 가지 요소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면 현실감각을 잃기 때문이다. 해로운 마음으로 인한 가장 큰 해악은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상황에 대해 큰 그림을 보아야 합리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게 되며, 그로 인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연기적 관점은 우리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어떤 대상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잘못 인식하면 그것의 장점을 실제보다 과장하게 되고 그로 인해 탐욕이 일어난다. 분노나 성냄도 마찬가지다. 이번에는 단점이 지나치게 부각돼 대상을 전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보게 되고 그로 인해 마음이 크게 불편해진다.

어떤 심리치료사가 내게 해 준 이야기가 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 화를 낼 때 그 대상의 문제점으로 보이는 것 중 90퍼센트는 사실상 우리 자신의 과장된 생각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는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불교적 해석과도 상당히 비슷하다. 어떤 대상에 대해 탐욕과 성냄이 일어나면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과장된 생각의 작용으로 인해 대상이 극도로 나쁘게, 혹은 극도로 좋게 보이고 그로 인해 왜곡되고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때 모든 현상을 연기적으로 볼 수 있다면, 즉 모든 현상이 일어나고 존재하는 원인과 조건의 그물망에 주의를 기울여 상황의 큰 그림을 볼 수만 있다면 왜곡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空은 '아무 것도 없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만일 '꽃'이 보이는 그대로 진실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꽃의 속성이나 부분과는 별개의 무언가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아무리 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고 실제로 찾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더라도 꽃이라는 실체는 분석을 통해서도, 다른 어떤 과학적 수단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없다. 꽃은 실제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스스로' 존재하는 꽃을 찾고자 한다면 그런 것은 결코 찾을 수 없다.

만일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석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분명해져야 하고 분명히 발견돼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분명 존재하고 실제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을 통해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즉 그것이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다. 분석을 통해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음'을 뜻한다면 어떤 중생도 보살도 부처도, 순수한 것도 순수하지 않은 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해탈할 필요도 없어지게 되고 공에 대해 명상할 이유도 없게 된다. 사람이나 사물이 서로 돕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며, 즐거움과 고통이 존재하고,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이나 사물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할 수는 없다.

나가르주나는 모든 존재와 현상은 연기해 일어나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말한다. 이는 허무주의와는 다르다. 나가르주나는 '공하다'는 것이 '현상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대신 현상이 원인과 조건에 의존해 일어난다는 사실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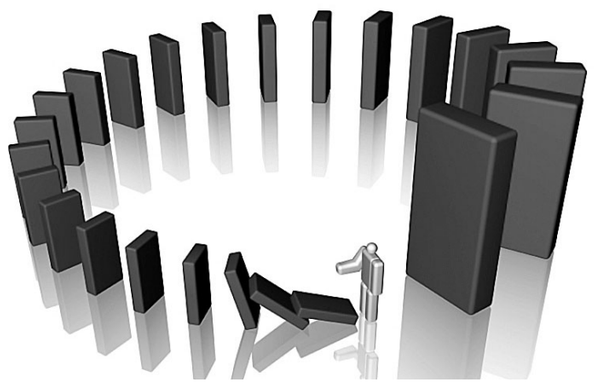
현상의 연기적 속성 이해하기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 원인과 결과, 이것과 저것 등의 모든 현상은 서로 다른 요인들에 의존해서 일어나고 형성된다.

나가르주나는 〈보행왕정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일어난다. 긴 것이 있으면 짧은 것이 있는 이치와 같다. 이것이 생겨남으로써 저것이 생겨난다. 불꽃에서 빛이 생겨나는 이치와 마찬가지다."

이 같은 연기적 맥락에서 서로 돕고 해치는 일이 일어나고, 무상한 현상이 작용을 할 수 있으며, 업과 그 결과가 가능해진다. 이는 결코 상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너와 나, 우리라는 것은 단지 세상이 지어낸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현상이 스스로 존재함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상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릇된 결론을 내리는 허무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나가르주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들은 원인으로부터 결과가 생겨남을 보고 세상의 관습 속에서 드러나 보이는 것들을 받아들이며 허무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러한 양극단, 즉 현상이 스스로 존재한다고 과장되게 생각하는 것[상주론]이나 원인과 결과를 부정하는 것[단멸론]은 모두 깊은 나락과도 같다. 그 같은 생각은 대상의 상태를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아니면 인과 자체를 아예 부인하는 그릇된 관점을 갖게 한다. 상주론의 나락에 떨어지면 실제 모습 이상의 자기 모습을 만들어 내려고 애쓰게 되는데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반대로 단멸론의 나락에 떨어지면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미래에 해가 되는 좋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다.



연기적 조건의 그물망 이해 못하면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해로운 마음 생겨 현실감각 잃는다
인과 못 보면 있는 그대로 못보고
대상에 대한 탐욕과 성냄 일어나

연기와 공의 균형을 맞추려면 '고정된 실체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과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것'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 것'과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불교의 위대한 현자들이 공의 원리를 가르칠 때 '현상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들은 현상은 연기에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고, 즉 자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공을 이해하면 양극단을 모두 피할 수 있다. 공을 깨달음으로써 현상이 고정된 실체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극단을 피할 수 있고, 현상이 연기에 따라 일어나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현상의 작용을 부인하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극단을 피할 수 있다.

공으로부터 연기를 추론하기

연기를 이해하면 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공을 이해하면 연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로서는 '모든 존재와 현상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연기해 일어난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연기해 일어나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 즉 공하다'고 이해하는 편이 더 쉬운 것 같다.

세상이 본래 고정불변한 실체들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변화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나무와 잎과 열매 같은 특성들을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다면 환경이 나무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며 겨울이 되어도 잎과 열매라는 특성들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나무의 아름다운 특성들이 나무 스스로의 힘으로 생겨난 것이라면 환경에 따라 그 특성들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본질적으로 '참'인 것은 단지 있는 그대로일 수밖에 없지만 '거짓'인 것은 무엇으로든 될 수 있다. 거짓 안에서는 얼마든지 상반되는 사실들이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젊은이가 나이가 들 수도 있고 무식했던 사람이 많은 것을 아는 학자가 될 수도 있다.

역설적인 것 같지만 모든 현상이 무상한 성질을 지니고 있기에 오히려 그렇게 많은 변화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젊은이가 노인으로 변하기도 하고, 선이 악으로 악이 선으로 바뀌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한다. 어떤 장소가 사람들로 가득 찼다가 다시 텅 비기도 하고, 평화롭게 지내던 나라들이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국가가 생겨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선과 악, 성장과 쇠퇴, 윤회와 열반 등 변화는 수없이 많은 방식으로 일어난다.

모든 존재와 현상이 이처럼 변한다는 사실은 그들이 자신의 모습 그대로 고정된 실체를 지니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바로 그렇게 고정된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원인과 결과가 가능해지고 연기해 일어나는 것이 가능해진다. 어떤 현상이 스스로 존재한다면 다른 요인들에 의존할 수 없다. 다른 요인들에 의존하지 않으면 연기는 가능하지 않다.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 주는 좋은 언인을 지음으로써 행복이라는 좋은 과보를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는 나쁜 원인을 짓지 않음으로써 고통이라는 나쁜 과보를 피할 수 있다.

명상의 특별한 대상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선생님이나 정신적인 지도자를 명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선생님과 함께했던 순간을 생각해 보고 그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영향을 생각해 보면 원인과 결과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을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공을 완전히 이해하면 해로운 마음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공을 이해하지 못하면 소가 고삐에 매여 끌려가듯이 해로운 마음의 굴레에 얽매인 채 생을 거듭하며 윤회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 자체에 집중하는 대신 때로는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을 강조하고, 때로는 그것에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강조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번갈아 생각하면 연기와 공 모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 공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상의 본질임을 알게 된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를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이라고 한다. 색에 고정된 실체가 본래 없는 것이 공이다. 공은 머리에 쓰고 있는 모자처럼 여분의 것이 아니라 색 자체의 본질적 특성이다. 티베트의 현자 총카파는 〈보적경〉 가섭장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 "공이 현상을 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현상 자체가 공하다."

일년 전쯤 라다크에 갔을 때, 〈이만오천송 반야경〉에서 비슷한 구절을 발견했다. "색은 공으로 인해 공해지는 것이 아니다. 색 자체가 공하다."

나는 이 심오한 구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됐다. 그대 내가 알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니 다소 복잡하더라도 잘 따라와 주길 바란다.

우선 사물이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다. 불교 내의 대부분 종파에서도 탁자나 의자, 몸 같은 대상이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사물의 이러한 모습을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탁자가 객관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탁자를 파악하는 시각적 인식은 타당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인식이 타당하면서 동시에 오류일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현상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대해 가장 심오한 설명을 한다는 귀류논증파, 즉 찬드라키르티를 따르는 중도파에 따르면, 탁자나 의자, 몸 같은 모든 현상들은 분명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시각적 인식은 어떤 대상이 있음을 본다는 점에서는 타당하지만 그 대상을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잘못이다. 이런 면에서 인식은 옳을 수도 있고 동시에 틀릴 수도 있다. 대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본다는 점에서는 옳지만 그 대상이 자신만의 고유한 상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잘못인 것이다.

찬드라키르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못 인식하는 습관으로 인해 대상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색 자체가 공한 것이지, 공에 의해서 공해지는 것이 아니다. 공하다는 것은 무엇이 공하다는 것인가? 색 자체다. 탁자 자체이고 몸 자체다. 마찬가지로 모든 현상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공은 마음이 만들어 낸 어떤 것이 아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처음부터 공했다. 색과 공은 하나이며 별개의 실체로 구분할 수 없다. 정리=이나은 기자

이 글은 달라이 라마의 〈마음 길들이기〉(이솔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 한옥 38평
- 법회하고 있음
- 보증금 5백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2천만원(절충가)

010-3381-0800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마산 3층 건물에 3층 (160평)
- 포교원 10년 한 자리
- 삼존불, 후불탱화, 법당, 종무소, 방4
- 화장실(실내 1, 실외 2), 법당과 모든 방에는 난방필름 되어 있음
- 시설완비, 불사소임관계 부득이 양도
- 옥상사용 주차장완비, 일체민원없고 조용함
- 보증금 : 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협의
- 바로 법회가능

055)221-5182

사찰 임대 및 양도
- 위치 :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로 천태산 칠불사
- 평수 : 대지 230평
- 법당 : 30평, 현대식 요사채 및 방 5칸, 공양간 15평
- 임대전세: 1,0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 답사후 결정, 절충가능

스님직통 : 010-2055-3366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전철역세권, 노선버스 최다
- 재벌을 길러낸 터, 포교 최적지
- 100M 전방재개발확정, 아파트 2천세대
- 법당 30평, 부처님 5분, 천불전불사중 현재 약 300분
  1층 : 차고, 창고, 일주문 / 2층 : 법당, 방3개, 공양간, 화장실2개
  3층 : 방3개, 산신당, 빈공간 20평, 화장실 1개
- 대지 140평, 건평 107평
- 가액 : 12억(융자 4억포함) 시세가 이하
- 학업관계로 부득이 안내(절충가능)

010-8634-7851 (부동산 사절, 꼭 하실분만)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 중산리 부근
- 평수 : 130평
- 황토 이중벽으로 완공 된 법당 및 요사채(방 3칸), 후원 9평, 몸만 오시면 됨
- 수양 정진 도량
- 가액: 2억 6천만원(시설비 포함,절충가능)

011-895-2258

사찰안내(신축)
- 위치 : 경남 합천
- 면적 : 413평 (계곡물 사철 흐름)
- 법당 : 25평(동남간, 목조, 기와)
- 사채 : 25평(방2, 화장실2, 컨 1동)
- 가액 : 융자 3천안고, 2억 2500만원

010-8517-8526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갤러리 색즉시공



석탑

너와 내가 수많은 전생 끝에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라면
너와 내가 바라보는 저 석탑도 그 윤회 속에 있었으리.
너와 나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석탑 앞에서 만났고
석탑은 너와 내가 바라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부서지기 시작했다.

내리는 빗방울에 석탑이 무너져 내릴까.
너와 내가 전생을 잊은 동안 석탑은 다시 부서졌고
석탑의 모서리가 사라질 때마다 설법이 있었다.
너와 내가 다시 지닐 몸이 있다면 석탑의 모서리인 것을

사진 · 글=박재완 기자

"입은 닫고 귀는 열고 마음은 깨어 있으라"

이란보살의 인과이야기



틱낫한 스님의 정념수행
마음챙김 수행에 도움
"설거지 할 때는 설거지만, 언제나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

정념수행–지금 이 자리에서의 삶을 배우다

불교에 입문해서 틱낫한 스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챙김의 정념수행을 한 것이 18년 전 일이다. 지금까지 스님을 세 번 뵙고 수행을 했는데, 첫 번째 1996년에는 괴산 공림사에서, 두 번째인 2003년에는 천안국립청소년수련원에서, 세 번째인 2013년에는 월정사에서였다. 작년에 틱낫한 스님이 방한했을 때 스님이 주도하시는 월정사 수련회에 참가하면서 떡을 한 상자 준비해 가지고 갔다. 남편과 아들이 떡을 싣고 월정사까지 같이 가준 것이 고마움으로 가슴에 남아 있다.

처음 뵌 틱낫한 스님의 모습은 봄바람처럼 가볍고 깃털처럼 가벼워보였으나 내면은 태산보다 더 단단하고 넉넉함으로 충만해 보였다.

불교를 쉽게 가르치고 수행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 신행생활을 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주었다.

틱낫한 스님은 시인이자 선사요, 평화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수행자다. 티베트의 달라이라마 스님, 한국의 숭산 스님과 함께 세계 3대 생불로 알려져 있는 분이니, 그 수행력과 인품은 말할 것이 없는 분이다. 평생을 평화와 화해를 위해 일해 왔고, 평화를 위한 굽히지 않는 의지와 솔직한 표현들 때문에 고국에 돌아가는 것이 금지되자 프랑스로 망명하여 수행공동체 마을 프럼빌리지를 세우고 그곳에서 수행하고 글을 쓰며, 난민들을 위한 작은 공동체 지도자로 일하고 계신다.

틱낫한 스님이 방한하셨을 때 법문을 듣고 또 정념수행에 동참하면서 마음챙김 수행을 하게 되었다. 수행은 바로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나의 생각과 일치해 정념수행은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스님은 말씀하셨다.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만 해야 합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자기가 설거지를 하고 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단순한 일에 왜 그리 역점을 두는지 좀 이상해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게 요점이예요. 내가 여기 서서 그릇을 닦고 있다는 사실이 그대로 놀라운 현실입니다. 내 숨을 따라,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과 내 생각, 내 행동을 모두 알아차림으로써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결 위에서 이리저리 떠다니는 병처럼 생각 없이 떠밀려 다닐 리 없겠지요."

우리가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에서 헤매느라, 자기 삶의 한순간도 알차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커다란 수확이었다.

설거지를 하고 목욕을 하고 이부자리를 개고 물통을 나르고 이를 닦는 등 모든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 의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일어나면서 "이제 일어났구나, 바라노니 모든 사람이 저마다 큰 깨달음을 얻어 밝은 눈으로 볼 수 있기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마음챙김 수행에서 소의경전으로 삼고 있는〈염처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걸어갈 때 수행자는 마땅히 자기가 걷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앉아 있을 때 수행자는 마땅히 자기가 앉아 있음을 알아야 한다. (…) 몸으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든지 수행자는 마땅히 그렇게 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수행함으로써 수행자는 몸소 한결같은 마음챙김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염처경〉을 말씀하시면서 스님은 "그러나 자기 몸의 자세에 마음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숨결, 모든 동작, 모든 생각과 느낌, 남들과 맺는 모든 관계를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셨다.

자각이라는 말을 그토록 많이 쓰고 살았으면서도 이러한 모든 것을 스스로 깨닫는 것이 진정한 자각임을 알지 못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정념수행을 하다 보니 서두르지 않고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삶에 목표를 두고 살 수 있었다.

걸으면서 하는 경행수행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품이 넓은 대지를 걷고 있는 것을 자각하고 한 발 한 발 마음챙김을 하면서 길을 걷는 것이 경행수행이다. 경행수행을 하면서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적이며 걸을 수 있고 푸른 하늘을 느끼고 볼 수 있고 전철 안에서 엄마에게 안겨 있는 아기의 검은 눈동자가 곧 기적임을 느낄 수 있었다.

틱낫한 스님에게 청중이 물은 적이 있다.

"바쁜 현대인들이 언제 마음챙김 수행을 할 수 있나요?"

"언제나 눈길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어떤 상황이 전개되든 능력 있고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으십시오. 이것이 마음챙김입니다. 하는 일에 주의를 집중하여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마음챙김이 서로 달라야 할 까닭이 없어요. 사람이 의논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발생하는 일에 대처하여 좋은 결과를 보려면 고요한 마음과 자기 통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지요. 만일 우리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그 대신 조바심을 내거나 화를 낸다면 우리 하는 일이 더 이상 가치 있는 일이 되지 못합니다. 마음챙김은 곧 기적이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자기를 제어하고 회복하지요."

기적은 어디 먼 곳,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매순간 마음을 챙기며 집중하는 것이라는 말씀은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고, 내 의식을 지배했다. 정성과 집중으로 살 수 있다면 안생(安生)은 매순간이 기적이라는 생각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대할 수 있게 했고, '사랑' 만이 전부임을 깨닫게 했다. 마음챙김 자체가 깨어 있는 삶이며, 삶의 순간순간들을 알차게 살 수 있는 수행이었다. 나는 일찌감치 틱낫한 스님을 만남으로써 삶의 현실에 집중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

삶이 선택과 집중의 과정이라면 부처님 지혜 속에서 날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문제들을 올바로 선택하고 그것에 몰입하는 것만이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다.

호흡을 지켜보며 마음챙김을 유지하고서 10분 쯤 숲길을 걷다보면 신선하게 회복되는 자신을 느꼈다.

스님은 "무슨 일로 화가 나 있거나 마음이 어지러워서 마음챙김 수행을 하기 어려울 때는 호흡으로 돌아가십시오. 호흡을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마음챙김입니다. 호흡이야말로 의식을 놓치지 않는 아주 놀라운 방법이지요."라고 하신다.

주변 환경에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던가. 40년 넘게 틱낫한 스님의 제자로, 수행동반자로 늘 함께 해오셨다는 찬콩스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여러분은 폭풍이 불어올 때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면 '저 나무가 견딜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무 둥치를 보면 나뭇잎과 달리 단단하게 서 있는 것을 보고 안심을 합니다. 굳건한 뿌릴 보면 더 안심이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이 이 뿌리에 있으면 여러분은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마지 않는 평화는 "깊은 집중"에 있다는 것이다.

"입은 닫고 귀는 열고 마음은 깨어있으라"
언제나 가슴에 담고 있는 스님의 말씀이다.

〈여여원 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6번째 저서 출간!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5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전 30권중 25권 출간!
운문, 장경, 경청선사, 부 상좌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불공예식법이란, 우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함이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흡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중략)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이 시대에 맞는 석문의범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자기 뿌리만이 자길 위해 모든에너지를 흡수합니다

닥치는 모든 경계 지혜롭게 해결하려면

문) 마음공부를 한다 하면서도 어떤 문제는 마음을 비우고 잘 관해지지만 어떤 문제는 거기에 끄달려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떡하면 닥치는 모든 경계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는지요.

답) 제일 첫째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걸어왔든 앞으로 한 발 한 발 떼어 놓는 그 진리 속에 어떻게 해야만이 그 한 발 한 발 떼어 놓는 것을 그렇게 항상 그릇을 비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참는다면, 속으로 참고 내색을 안 하고 좋은 소리를 하고 그래도 그건 참는 까닭에 항상 그릇에 넘쳐 담기지 않죠. 참는 게 아니라 한 발 떼어 놓는 것과 같이 놓아라 이런 소립니다. 우리 진리가 지구를 한 바퀴 돈다고 하더라도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렇듯이 사람도 한 발 한 발 떼 놓고 가는 것이 징검다리를 딛고 가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살이거든요.

불교가 어떤 것이냐 그러지마는 우리가 생명이 있음으로써 몸이 움죽거리죠? 그렇기 때문에 불은 생명이요, 교는 삶이다 이겁니다. 생활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 이게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진리인 것이다 이런 소리죠. 그러면 우리가 현재 모든 생활 속에서 당면해 있는 문제들, 그걸 어떻게 해야만 슬기롭고 지혜롭게 타파해 나갈 수 있는가. 내가 항상 말하지만 자기의 몸 안의 생명들, 의식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자기의 선장이 있다. 그럼 수많은 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자기를 진화시키고 형성시켜 온 자기 근본이란 얘기죠. 자기 근본을, 즉 말하자면 자기 자불을 이 몸이 한 치도 쉬고 돌아가지 않으니까 주인공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공에다가 어떠한 화나는 일이 됐더라도, 악한 일이 됐더라도, 부작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용도에 따라서 항상 '네 속에서 화가 나는 거니까 네 속에서 화를 안 내게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되굴려서 놓는다. 일체를 닥치는 대로 말입니다. 일부러 쫓아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만 내 앞에 닥치는 것도 각종에 달하니까. 진짜로 자기를 누가 이끌고 지금 갑니까. 대신 이끌어 주는 사람도 없고 대신 먹어 주고 죽어 주고 아파 주고 또는 똥 눠 주고 잠자 주고 그럴 사람 하나도 없죠. 자기 뿌리만이 자기를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림 · 최주현

그런데 지금은 '불교' 이러면은 모두 이름, 역사, 스님네들이 해 오신 길, 또 스님이 해 오신 길의 이름, 어느 스님, 이렇게 이름 있듯이 이름이 없어서도 안 되지만 그 이름은 바깥에서 방편으로 쓰는 여건이고, 내가 나를 이끌어서 그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걸 타파할 수 있고 여여할 수 있고 자재할 수 있고 만법을 들이고 낸다 하더라도 손색이 없이 될 수 있어야만이 되겠기에 자신들을 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못났든 잘났든 자기 먼저 알아야 상대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이 하나로 돌아가는 섭류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러더러는 이름을 알아두는 것도 좋지만 그거조차도 그림자, 즉 말하자면 구름 같은 이 몸도 50%가 돼요. 정신계 50%, 물질계 50%가 양면이 다 100%가 돼야 만이 능히 사람이다. 사람이 쉬지 않고 닥치는 대로 굴리면서 즉, 한마디로 요약해서 구정물이 나올 낌새가 있으면 맑은 물로 바꿔 쓴다, 이런 도리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항상 여러분의 주장자의 자불은 항상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거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50%, 50%로 바깥의 물질계만 찾는 격이니까 얼마나 끄달리고 걸림이 많고 괴롭겠어요? 그런데 나 아닌 나가 진짜로 있거든요. 지금 나는 육체가 보이지마는 진짜 나는 육체 속에서 나가 보이지 않는 거를 말해요. 보이지 않는 데로부터 보이는 데로 나오니깐요.

내가 예전에 그랬죠. 정수에 물을 붓는다고 이렇게 경전에 있습니다마는 그 물이라는 건 어떠한 파도가 치고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도 항상 그냥 흘러가요, 아랑곳없이. 그와 같이 인간의 정수에는 항상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어서 그렇게 내가 살고 생각하고 하는 대로 거기에 입력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생활 속에서 모든 게 거기에 입력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저 지금 현재의 그 주인공에다 모든 거를 놓고 '너만이 지켜 주고 너만이 해결하고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어.' 하고 모든 용도에 따라서 자기한테 닥치는 대로 거기다 놓고, 그렇게 좋은 거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언짢은 거는 굴려서, 자기가 편리한 대로 굴려서 놓는다. 그렇다면 현실에 살기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지금 현실을 내다볼 때에 천안통이고 천이통이고 타심통이고 신족통이고 천이통 숙명통이 다 그냥 바로 보이게 된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예전에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천안통이 지금 현실에 나와 있잖아요. 안방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세계를 볼 수 있죠. 또 천이통도 나와 있고요. 전 세계로 전화 안되는 데가 없죠. 너 나 할 것 없이 한번 손가락만 깜작깜작하면 만나죠. 대문 바깥에서 부르면은 문 열어 주는 데도 그 형상이 나타나죠. 우리가 지금 현재에 이렇게 살면서 그것이 바깥으로 그냥 표현이 됐어요. 그만큼 시대가 빨라질 뿐만 아니라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 진화돼 가고 진화되면서 또 밝아지고 이런다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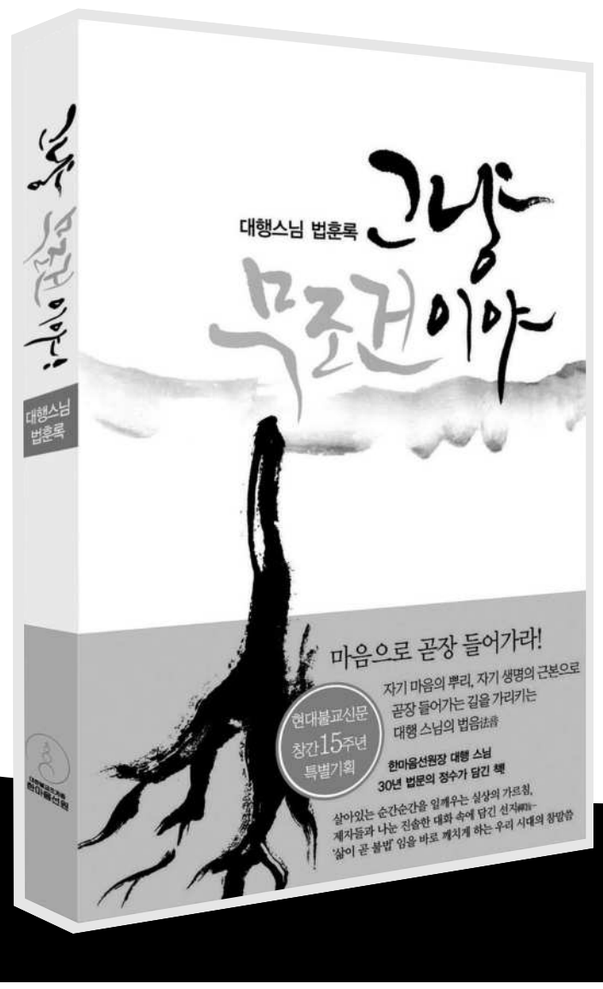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지금 악이 많다고 하더라도 선이 반이면 악이 반인 것과 같이, 악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주어지니까 지금 주어지는 대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공부 하면서 아무리 주어진 팔자 운명이라도 자기 한생각이면 그것이 다 묵살된다 이겁니다. 사람의 운명이나 팔자를 고치는 것도 여러분의 한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어떤 땐 애탈 때가 있어요. 자손들이 잘못돼서 걸어가는 길이 비뚤어져서 부모가 울고불고할 때, 자식들이 나가서 안 들어오고 그랬을 때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애타게 전화하시고 그 애원하시는 걸 볼 때, 또는 사고가 나서 자식이 잘못됐을 때, 정상이 아닐 때, 부모가 생각할 때는 마디마디에 피멍이 들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서 있는 걸 볼 때에 사람이 이 모습들을 가지고 몇 알갱이나 살 양으로들 그러나 하는 생각, 그리고 저렇게 끝없이 살아나갈 저 차원을 어떡하면 좀 높여 줄까.

외려 자식들을 붙들고 늘어지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그 모든 팔자 운명이 없어질 텐데. 그 습관, 애착, 사랑이라는 애착에 매달려서 붙들고 있거든요.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모두가 이 세상에 났으면 제가끔들 걸어야 하고 제가끔들 자기만이 자기를 이끌어서 차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부모가 있어도 부모가 자식 죽는 거를 막을 수 없고, 부모가 죽는 거를 자식이 막을 수가 없어요. 먹는 것도 그렇고 다, 대신 먹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생활 속에서 어떻게 커버하고 걸음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진짜로 믿는다면 그냥 맡겨놓고 안달박달 안 합니다

☞ 29면에서 계속

을 걸어야 되느냐. 우리가 징검다리를 걸을 때는 항상 한눈을 팔 수가 없습니다. 첩첩 물인데다가 이 징검다리로 우리 인생을 걸어가게 했다면 그것 잘못 디뎌서 물에 빠지겠나 하고선 그거 보느라고 다른 생각 할 여유가 없듯이, 오직 자기 주인공만이 자기를 지켜 주고 자기를 이끌어 주고 또는 모든 해결은 그로부터 된다고 믿어야 합니다. 자기 육신이 움죽거리는 일거수일투족이 다 자기의 근본이 아니라면 움죽거릴 수가 없어요. 그게 빠지면은 송장이 되고 송장이 되면은 사람의 눈에 상대가 보이질 않아서 무효예요, 또.

그래서 공부는 살아 있을 때 공부해야 된다는 결론이죠. 그러니깐 열심히, 뭐 길다 짧다 하지 말고 '왜 이렇게 오래도록 해도 이렇게 안되나.' 하지 말고 의기양양하게 그냥 살고 하되, 모든 거는 주인공이 하는 거라고 믿으세요. 믿지 말래도 믿어야 되죠. 자기 싹이 자기 뿌리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요?

지도자의 마음자세에 대해

문) 요즘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종교계의 지도자들이나 다 자기 개인의 이익 때문에 전체를 살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인지라 부끄럽습니다만 지도자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예전에 달마 대사가 양 무제라든가 누구라든가 믿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화신으로써 방편이라도 써야 했죠. 어느 스님이 그 짚신 한 짝 얘기를 하기에 "그 작대기에다가 우린 지금 안 하고 다닙니까?" 그랬어요, 내가. "스님은 지금 당신 작대기가 당신 몸을 꿰 가지고 끌고 다기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렇죠!" 하곤 손바닥을 치면서 아주 퍽 좋아하시더군요.

그랬는데 그 달마 대사이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 그럭하고 다니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신 한 짝을 하늘에다 놓고 신 한 짝을 땅바닥에 놔야만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지요. 만약에 무의 세계에 내가 없고 유의 세계에만 있다면 유의 세계만 보고 물질만 보고 나가다간 정치를 못해요. 마음 세계. 이게 마음이라는 것도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우리가 한마음이라 한다면 한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깐 이게 방편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그러한 뜻을 볼 때에 그것은 묘지 속에 신 한 짝이 거기 놓여 있고 하는 건, 이 우주 속에 전부 하나에 뭉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자기가 또 있고, 지금 현재에 화해 가지고 화신으로서의 그 방편으로 보여준 거죠. '나는 산 것이 없기 땜에 죽을 것도 없다.' 는 그 사실을 알려 주고, '너희들도 이렇게 작대기에다 꿰어 가지고 네 몸뚱이로 다니는 거뿐이다.' 그걸 일러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양 무제는 그것도 그때는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 참 미거했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가만히 볼 때에, 각 사찰이나 모든 종교인들을 볼 때 가톨릭교든 기독교든 다 봐도 지금 자기 제자들도 그렇게 가르치질 못하고 있고 또 신도들한테 그렇게 당겨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밝고 밝은 세상에, 이렇게 좋은 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그냥 갑니까? 필수적으로 우리는 해야 하는 문젭니다, 이게.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내가 지금 안테나가 서지 않았으면 절대로 무전도 들을 수 없고 남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보이는 데서 듣는 거, 보이는 데서 보는 거, 보이는 데서 행하는 것만 알고선 그냥 생각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입력이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보이지 않는 데 50%를 완전히 알아서 그 보이는 50%로 내놓고 또 안으로 들여놓고 한다면, 그게 입력이 다 되니까 우주 이 법계에서 다 알고 그냥 선처가 다 들어오죠. 그러니까 전부 부하 아닌 게 없고, 전부 나 아닌 게 없고, 부처님 자리 아닌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병이 났을 때는 모두 무정물 생물 또는 식물이 전부 액체로 그 약이 돼 가지고 체내에서 모두 즙을 내서 분배하듯이, 그 우주간에서도 전부 분배를 해 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자동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북하면 부처님은 병자를 낫게 해 주는 왕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했다는 얘기죠. 당장 그 중생들이 자꾸 와서 자기 고달픈 걸 말하니까. 이 사대에서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악업 선업으로서의 뭉쳐진 덩어리기 때문에 자꾸 나오는 거죠. 즐거움도 있는가 하면 거기서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독함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시시때때로 나오는 것을, 그 입력이 돼서 자꾸 나오는 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러니 거기다가 되입력을 해 놓는다면 앞서 것이 없어지고 현실에 넣는 것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즐겁고, 정말이지 나날이 밝아지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아래로는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위로는 그 은혜를 갚는 능력이 생기고 또 두 마음이 아닌, 둘이 아닌 도리를 알게 되고, 무의 세계 유의 세계를 한꺼번에 걷어쥐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당당함과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이러한 도리를 하는 데에 그 달마 대사가 그랬듯이 우리가 지금 한 짝은 무의 세계에 있고 한 짝은 유의 세계에 있다 이겁니다. 그 도리를 안다면 지금 어느 별성이나 어는 혹성에도 여러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건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공부를 하면 마음은 찰나에요. 오백 년 전으로 지금 금방 돌아갔다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법왕이라고 그랬습니다, 법왕!

무의 세계와 유의 세계가 이 벽이 없다. 저승 이승이 벽이 없다. 이쪽은 이승세계, 저쪽은 저승세계라 하고 전자의 그 선지식들이 요렇게 금을 그어 놓고 여기는 저승이니까 넌 들어오기만 하면 죽는다 요렇게 걸리게끔 해도 요, 이 도릴 공부한 사람은 픽 웃고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넘어오죠. 그런데 덜 떨어진 사람은 거기 걸려서 못 넘어옵니다. 감히 어떻게 넘어옵니까? 모르니까. 자기가 있기 때문에 죽을 것이 두려운 거죠. 만약에 자기가 없다면, 둘이 아니라면 되는 거고, 또 그 스님과 둘이 아니라는 걸 안다면 그냥 넘어와요. 그래서 이 도리가 아니라면, 이승 저승을 다루지 못한다면 이승 천자 저승 천자 노릇을 못한다는 얘기죠. 법왕 노릇을 못한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보통 공부한는 이유가 …

문) 보통 우리 중생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 공부를 해서 병을 낫겠다라든가 도를 이루겠다든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욕심이나 마음의 장난이 아닐까요?

답)) 마음의 장난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마음의 장난이 아니고 법에요, 진짜로 알면. 어떠한 일이 저거 했을 때 우리네는 뭐 주인공에다가 맡기는데, 이게 도가 넘어가면 맡긴다 안 맡긴다가 없이 그냥 보면은 법이요, 들으면 법이요, 그냥 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배우는 과정이니까 무조건 거기에다가 맡겨 놔라, 맡겨 놓고 굴려라 이런 거죠. 그런데 진짜로 믿는다면 그냥 맡겨 놓고 안달박달 안 합니다. 진짜로 믿기 때문에 그냥 맡겨 놓은 거죠. 변호사를 진짜로 믿고선 돈하고 서류하고 탁 디밀어 놓고선 그냥 그 변호사만 믿고 있는 있는 거나 똑같은 얘깁니다.

그런다면, 자기를 그렇게 믿는다면 변호사가 다 해서 이렇게 해 줄 때에, 때로는 뭐가 부족해서 변호사가 이기질 못했다거나, 또 자기가 너무 엄청나게 많이 저질러 놨기 때문에 그게 이기질 못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아하, 그것도 바로 내 탓이다. 내가 그런 많은 문제를 저질러 놨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금방 잘되랴. 그거는 졌을망정 그것이 또 잘 돌아가서 나중에 그거보다도 더 좋은 일이 생겨서 내 앞에 돌아올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진실하게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지는 게 아닙니다. 안되는게 아니다 이 소리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진짜로 믿어야 된다 하는 거는 아니, 싹이 뿌리를 안 믿으면 뭘 믿습니까? 내 주먹을 안 믿으면 뭘 믿느냐고요. 형상을 믿을 겁니까, 이름을 믿을 겁니까, 허공을 믿을 겁니까. 정말 부처님이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고깃덩어리를 믿을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자기 몸부터 알아야 부처님의, 수억겁을 거쳐 온 그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그 선지식들의 마음이다 할지라도, 그 벌레의 마음이다 할지라도, 중생들의 마음이다 할지라도, 내 배 속에 있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다 알게 돼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처신이 아쉬움이 남는다면 …

문)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때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이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돌이켜보면 그때의 처신이 좀 부족하게 느껴지고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흐르는 시간만큼 지혜가 넓어졌다고 봐야 할까요?

답) 우리가 어저께도 과거, 한 시간 전도 과거듯이, 우리가 지내 놓고 보면은 그때는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조금 지나고 보면 '아! 그거 조금 미흡했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생기는 것이 차원이 높아지는 징조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높아지는 징조에 의해서 자꾸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탓할 게 아니고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초발심심 미묘법' 이라고 했듯이, 이 처음에 조그만 걸로 해서 체험을 했다고 그래서 우습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큰 거를 하나 조그만 거를 하나 똑같으니까요. 마음으로다가 체험하는 건 큰 거든지 작은 거든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얽히고설키게 그냥 모두 일을 벌여 놓고 하게 되면, 조금 그것이 풀리려면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한테 풀려야 하니까 좀 더디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고 이런 점은 모두 여러분이 벌여 놓은 용도에 따라서 그것이 더디고 빠르고가 있는 거지, 그것을 '아이고! 내가 주인공을 이렇게 찾았는데도 안되더라.' 이러진 말아요.

왜? 안돼도 그놈이 하는 거고 돼도 그놈이 하는 거니까 누구 원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로 통신이 되게끔 해야 대뇌로 통신이 돼서 대뇌에서 이 사대로 하달을 해서 다 이렇게 그 작용을 해 주고, 또 때로는 이렇게 이 속에 들어가서 작용을 해 주는 것이, 만약에 나가서 할 일이 있으면은, 원자에서 입자가 나가듯이 그냥 여기에서 분자로 화하고 입자로 화해서 그냥 나가서, 그게 보살의 행이니까. 이제 지금 알기 쉽게 얘기하느라고…. 그래서 응신으로 화해서 나가서 전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다 완화하게 해 놓고, 찰나에 그렇게 해 놓고 찰나에 들고 찰나에 나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 마음먹기에 달린 거고 자기가 얼마만큼 자기 뿌리를 믿느냐에 따라 있어요. 자기가 어디서 생겼겠소? 자기 영원한 근본이 아니었더라면 엄마 아빠가 아무리 정자 난자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종자가 없는데 어떻게 났겠소? 땅이 좋고 물이 좋다 해서, 씨가 없는데 어떻게 그 싹을 바라겠소? 그렇듯이 우리가 이 마음의 근본 종자의 주장자가 없다면 집도 비고 아무것도 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외려 자꾸 차원이 좀 넓어지고 둥글게 되는 거니까 감사해야죠.

※위 법문은 1992년 5월 17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직 자기 주인공만이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이끌어주고
모든 해결은 그로부터 된다고
믿어야 됩니다.

孝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만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며,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바로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청색, 홍색) + 4GB 불경SD카드 + 이어폰 + 1200AM 베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구 입 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흥국농산
유황오리, 다슬기엑기스 강력추천!!

함양군 HAM YANG GUN

보리빕과 약재 부산물, 다슬기 껍질을 우창과 함께 배합하여 먹여 키운 유황오리
100ml*90팩 = 449,000원

지리산과 덕유산일대의 자연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80ml*60팩(1박스) = 109,000원

많이 구매해주셔서 이에 보답하고자
"파격판매 이벤트 연장"

지리산자락의 헛개줄기와 잎, 열매를 넣고 천연지하암반수로 진하게 달였습니다.
100ml*60팩 = 89,000원

★결제계좌: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는 (주)홍국농산
- 판매처:칠성상회 (02-879-2007)

★카드결제시 홈페이지 방문
http://www.7-star.net
(네이버,다음에서 칠성상회 검색)

5월의 청소년에게 보내는 편지

진정한 자아 찾아 시대의 주인공 되세요



선진규
봉하 정토수련원장

사람이 영원토록 보람되게 살기위해서는 자연 질서와 사회 규범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하는데 자연적으로 발생한 초자연적 법칙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연기적 현상(緣起的 現象)이라 합니다. 이 법칙은 톱니바퀴같이 짜여져 있어 개인이나 사회 더 나아가 대자연의 움직임까지 모두가 이 궤도를 벗어나면 전체적으로 큰 폐해(弊害)를 당하게 된다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무시이래(無始以來)로 이 대자연의 질서인 성(成) 주(住) 괴(壞) 공(空) 즉, 일어나고, 머물고, 허물어지고, 없어지는 변화속에 생(生) 노(老) 병(病) 사(死)하는 작은 개체는 전체속에 함께하고 있으므로 큰 나(大我)를 불교는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라는 존재는 변화하는 대자연의 일원으로서 남을 위해 베풀고 봉사하며 자신을 버리는 수행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이 불교적 생활 규범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태자로 계실때 이런 근본적 자연 질서와 규범을 직시하고 당시 사회가 안고 있는 대립과 분쟁, 강압과 착취, 서민과 노예의 고통 등 무질서하고 부조리한 규범을 보시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 끝에 부귀한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구도(求道)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의 이 위대한 출가정신을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월호 참사로 애도하는 추모의 슬픔이 한국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이 살아가는데 지켜야할 자연 질서와 사회규범을 알지 못한 무지서 나타난 기성세대의 고질적인 탐진치(貪嗔癡) 삼독심의 산물이 이런 참담한 비극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 세월호 참사는 독립된 사건, 우연한 참사가 아니라 한국인만이 갖는 성급한 요행문화, 나만이 잘되면 된다는 개인주의, 절제되지 않는 욕심과 어리석음의 문화, 서구정신문화가 갖고온 배타와 독선의 유일 문화가 지금 우리 사회를 언제 어디서 제 2의 세월호 사건으로 돌변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이 시점에서 이런 고질적 큰 문제를 어떻게 치유하고 어떤 방법으로 풀어 나가야 할까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는 총체적으로 정신문화의 도덕성 결여가 근본 원인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청소년들을 가르칠때 지행일치(知行一致) 양익양륜(兩翼兩輪)이라 해서 지식과 도덕적 행위는 날개의 바퀴와 같다고 분명히 지식과 도덕을 균형있게 교육하고 수행하게 했습니다. 그간 우리는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실현해온 급성장의 산업화가 청소년 교육까지 이어져 입시위주의 교육이라는 폐해로 도덕성까지 말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도덕적 장애를 치유 하는 것이 가장 시급을 요하는 우리사회의 당면과제라 하겠습니다.

그 길은 오랜기간 자기를 버리고 근원적 자아 발견을 목표로 하는 불교적 배움과 수행에 의탁하는 길 이외에는 특별한 처방책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간 서구 종교인들이 미신이라고 폄하했던 바로 그 불교가 정신장애를 치유하는 산실이 되며, 도덕 불감증이 된 이 사회를 구원하는 도장이 됨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예인 것입니다.

5월의 청소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섭취해야 할 영양분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체를 건강케 하는 음식물이요 다른 하나는 자기를 발견하고 도덕적으로 인격을 완성케 하는 수행과 자기성찰의 길입니다.

인도의 싯달타 태자가 인간의 근본 문제인 생노병사와 부조리한 사성계급 그리고 대립과 분쟁의 사회를 구제코자 큰 이상(理想)을 세워 깨침을 얻어 해결한 것과 같이 우리 청소년들도 분단된 국토와 그리고 혼란한 우리 사회 더 나아가 지구촌의 온갖 어려움을 구제하겠다는 큰 이상을 일으켜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주길 간절히 발원합니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애도하며

아들아 딸아 어서 가자 우리집으로 돌아가자

(팽목항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울부짖는 여인을 대신하여 어머니의 마음을 쓴 시)



이부자리를 깔아주던 효자 아들은 어디로 갔느냐
지난 겨울에 에미를 위해 딸기를 사오던 이쁜 내 딸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금쪽보다 귀한 내 새끼가 차디찬 바닷속에 갇혔으니
발을 구르고 가슴을 치며 제발 돌아오라고 울부짖는다
하나님도 부처님도 무심하고 영험이 없으신지….
온 나라가 초상집이고 모든 국민이 상주되고 조문객이 되었어도
자식 잃은 에미의 마음은 위로가 되지 않고 날이 갈수록 애타는 마음 더해만 간다
자식을 잃은 슬픔은 약이 없어 누가 대신 아파해 줄 수 없어
무정한 아들아 딸아
이렇게 어이없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나냐
에미가 아빠와 함께
너를 찾아 진도 앞바다에 왔다
친구들은 관이라도 보듬고 돌아가는데
어찌하여 너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느냐
아들아 딸아

어서 가자 우리집으로 돌아가자
평소에는 에미 말을 잘 듣던 네가 오늘은 무슨 일이 있길래
끔쩍도 않고 에미의 말을 걸러서 애간장을 녹이느냐
불러도 불러도 알토란같은 내 새끼는 끝까지 대답이 없고
진도 바다는 에미 원숭이의 울부짖는 메아리뿐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보고 싶구나 사랑했다 아들이 에미 곁에 있어 그 동안 행복했다
널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 딸이 없는 올 오월 팔일 어버이날은
지독히 잔인한 날이구나
오! 보고 싶다 내 아들아 딸아



김형중
동대부중 교감, 문학박사

社說

혁신이 필요한 대한민국 문화재 정책

문화재청은 5월 12일 인제 봉정암 오층석탑을, 15일 의성 대곡사 대웅전을 보물로 지정예고하고 기장 장안사 석조석가여래삼불좌상은 보물로 지정했다. 한 주동안 3건의 불교문화재가 보물로 지정 혹은 지정예고가 된 것이다. 그 만큼 가치가 높고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 정책적인 행정이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이 발표한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자료를 보면 왜 국보와 보물을 지정하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대한민국의 문화재 보존?보수 정책은 쓸데가 없다. 일반 언론에 대서특필된 숭례문과 첨성대를 비롯해 전 문화재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불교문화재에 대한 보수?보존 처리 결과는 세월호 수준이다.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수가 진행되지 않는 반면, 문화재 주변 전시관 건립, 화장실 개축 등 주변 정비 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예산 투입 기준이나 매뉴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실제 문화재 보수 예산의 22.9%인 908억원이 문화재 보수에 쓰인 반면 51.7%인 2053억 원이 문화재 주변 정비 사업에 쓰였다. 아무리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점'에서 '면' 단위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필요한 문화재 보수보다 주변 정비 사업이 우선이지는 않는다.

현재 보수가 시급한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만 79건에 달한다. 상황은 심각한 수준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문화융성' 은 현대 문화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되려 전통문화라는 초석이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융성' 은 커녕 '몰락' 될 수 있다.

세월호의 그림자는 사회 곳곳에 있다. 문화재 정책에 일대 혁신이 필요한 때이다.

중첩 규제는 불교문화 발전의 장애물

그동안 불교에 대한 중첩 규제는 불교문화 발전을 위한 큰 장애물로 작용돼 왔다. 전통사찰 들은 도시공원법과 자연공원법에 규제를 받고 문화재보호법은 공공성을 너무 강조하다보니 소유주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이렇게 문제가 돼 온 규제 법령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제안들을 담은 자료집이 제작돼 희망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집에서는 중첩 규제 법령 총 18개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자연공원법 △농지법 시행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문화재 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령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조계종은 전통사찰 도시공원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와 △자연공원법 재검토 △전통사찰 건축법 적용 제외 △사찰 내 장사구역 설치 △봉안당, 자연장지 상한선 제한 폐지 등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문화재 사찰과 전통 사찰은 불교적 유산을 넘어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가 살아 숨쉬는 보고이다. 규제 만능주의에 묶여 가장 힘든 숨을 내쉬는 존재가 돼서는 안된다. 자료집에서 제한된 내용들은 실제 규제이기도 하지만 전통 문화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들이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도 유무형 문화재 보존 노력을 확대하고 사지 복원 조사 사업 지원, 템플스테이 적극 활용, 안내 표지판 일제 점검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번 자료집은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불교 현안을 공유하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만들었고, 전국 사찰과 국회와 주요 정당에 배포했다고 한다. 자료집 발간을 통해 스님들은 후보자들에게 정책 기조를 제안하고, 후보자들은 전통문화 발전 정책을 공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떡전고을로 114-1. 1층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

2014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을
한 권으로 담아낸 성전!

장종천 편역 | 신국판 양장 | 926쪽 | 33,000원

붓다

붓다의 본생과 탄생, 성장과 출가, 수행과 전도, 열반에 이르기까지,
읽는 이의 가슴을 울리는 붓다의 감동적인 생애가 펼쳐진다.

방대한 아함의 불음佛音을 한 권으로 쉽게 풀어 엮은 책으로, 붓다의 일상적인 삶과 수행생활, 45년 간 펼친 방대한 가르침의 에센스가 오롯이 담겨 있다.

목숨을 건 수행과 통찰,
중생들에 대한 깊은 연민과 자비심,
제자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자상한 가르침,
한 사람에게라도 더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쉬임없는 전법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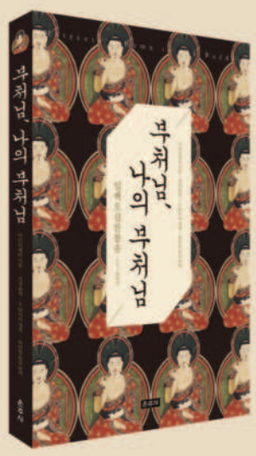


부처님의 덕성과 자비심, 지혜와 공덕을
찬탄한 150게송!

부처님, 나의 부처님



– 일백오십찬불송 –



읽는 이로 하여금 깊은 환희심과 믿음,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부처님 찬가!

마트리체타의 「일백오십찬불송」은 종파를 초월하여 인도의 모든 수행승들이 계를 암송한 후 바로 배우는 게송으로, 아름답고 유려한 문장은 불교에 대한 믿음과 실천을 불러일으킨다. 이 책은 산스크리트, 한문, 영어본, 우리말을 대조하면서 읽을 수 있게 엮었다.

마트리체타 지음 · 의정 한역 · S. 담미카 영역 · 허만항 한글 번역
신국판 | 252쪽 | 1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